朝鮮日報
一日夕刊八面
京城府堅志洞 朝鮮日報社
代表番號(光)二三〇〇番

社說
內訌과殺戮 寒心할現狀

一

昨年봄에도 北滿의밀에서民族運動의 一首領이 朝鮮人의손으로 殺戮된報導가 되히려처서 社會一般에 큰衝動을닐으키엇섯다 그後에도이러한種類의事實은드물지안헛섯고 昨今에는다시 北滿의局吉密河에서 一運動의指導者가 마찬가지朝鮮人의손에 죽은것을報하고잇다 처음에風說로만녀엇든것이 이러한뼈만은 설마의미듬도僥倖으로되지안코 틀림업는內訌의뼈문으로 自相踐踏하는罪過를 또다시 犯한것이다 그詳細한顚末은 지금도알길입스나 結局은思想과主義를 加味한派爭의結果밧게 아모것도아니되다 이미워할內訌의뼈문에한指導者가죽고 또한指導者는檢擧된것이다 殺戮에넘어지고 檢擧로또좃아든것은 그의運動線이 허물하도록 指導分子가零落하여짐을 推斷할것이다

二

이즘에잇서 團結을일하는것이 퍽은迂遠한口頭禪과가튼感이잇다 웨?그들의하는짓이團結과는넘우뭔판으로 距離가동떨어진外닭이다 그러나 去年甲을일코 今年에乙을일흐며北에서 互頭를죽이고 南에서有爲囑望하는靑年을업시하며 그동안에 反目과 軋轢이 仇視할만큼되는동에 運動線은 켜질로核心勢力을일허서 分散沈滯로되고 或은貫한經驗이업슴으로해서 無企劃的인 過誤를 자꾸犯함에 일으는것이다 朝鮮人의問題는 다만客觀情勢이나 或은戰術政策만이 重大한바아니다 急進者의見地에서意識的으로 等閑히보는 道義信義의念부터가 매우緊切한條件이다 同志에게숨잡어서正面의對立者의압헤서 聯盟되어야할 戰友에게 殺戮의총부리를다힐때에 自己들의 더큰處地를생각지안토록의 無血性非道義的인사람들에게는 政策戰術은 오히려第二次的으로問題될것이다 이러케하러케 核心될人物이거구러지고 指導의 體系도엉클어저가며 戰線은空虛하야 主人이가서지못하면은그는남의支配가 손쉽게들어와서어느意味로나 自己의獨自한處地를沒却하는 가장반갑지안흔結果로 밧게될것이업슬것이다 이것을慨嘆하는것은 無用한感傷家의일이아니다 天下의朝鮮사람된者여! 이일이어떠라고보는가?

朝、中聯合蹴球大會
大擧參加勸誘

一

本社新義州支局主催로 朝鮮中國聯合蹴球大會는 今月中旬으로 新義州高普의運動場에서擧行하게되엇다 이主催가 關係兩民族의 體育界의新人들을前衛로삼어 實踐的親睦의 有機的인契機로될수잇는것은 의심업다 本社支局에서 이를主催하고 同新義州에잇는 中國領事館에서後援하게되어 이意義잇는快擧로서 有終의美를고자하는것은 매우緊切한處이다 그러나그結果는 朝中兩方 洗錬된蹴球團의 熱心參加에依하야 비롯오能感하게될것이다

二

朝中의兩民族은 퍽은무간하게接近되는양 실상은 서로疎遠한편이다 朝鮮에잇는中國人은 朝鮮人과의接觸과 朝鮮의研究에 자못冷淡하야 몰에기름的인無關係한生活이오 이를中國에잇는 朝鮮人에보건며역시 緊密한關心잇는計劃으로 中國의官民과 交涉 接觸함이적으며 가장重大한利害關係임에不計하고 때로는棄越과가튼징긴狀態에잇스니 이는無心하다면넘우無心한일이어서 朝鮮人과가큰政治的處地에잇는人民으로서는 心外의일이라하겟다 그러나親善理解는 淡함으로사괴고 親密직히여侵치안는곳에비롯오 그合理또永久한 成長을볼수잇는것이다 이主催가잇슴에臨하야 蹴球界의 諸氏에게焉하고 衆하야關係各方面의深甚한留意를推奬한다

約法公布에際하야 國民政府宣言發表
約法은訓政時期諸法律의根本
一日典禮式擧行

【南京卅一發電報聯合】 國民政府는約法公布와同時에此에關한宣言을發表하얏는데그內容은北伐以來今日外지過去六年間의經過及政府의苦心을述하고此約法을破壞하는者는苛實업시制裁를加할수단決心을보이고公産黨潰滅을闡明하고最後로革命建設의大事業을爲하야서는如何한犧牲도不辭한다고結論하고잇다右約法은드듸여六月一日부터實施되엿다

【南京卅一日發電通】 國民政府는本日六月一日附로써約法을公布하고左의宣言을發表하얏다 訓政約法制定은國民會議의最大使命이다本約法은全國代表가合法手續에依하야制定한것으로訓政時期諸法律根本을일우는것이다和平統一民福保持諸建設完成政府는오즉全國民의約法擁護에依하야決定된다

【南京卅一日發電通】 約法公布典禮는一日午前九時부터公共體育場에서擧行하고蔣介石氏以下臨席하얏다

廣東政府는僞物
國府、中外에聲明

(南京三十一日發電通) 南京政府는約法効力發生과共히約法五條『國都를南京으로定한다』에依하야廣東政府는僞政府라고中外에聲明하기로決定하얏다

米飛行家앗슈氏 二日壯途決行

【淋代一日發電報聯合】 昨日離陸에失敗한『앗슈』氏는本日決行의意氣로午前四時起床宿舍를나와淋代에至하야濃霧의개이는것을待하얏스나依然개이지안흠으로遂本日의出發을延期하고明朝大壯擧를決行하기로되얏다

佛飛行家墜落重傷

【巴里三十一日發電通】 佛飛行家『라루-엣트、페루만글』氏는三十日午後西班牙의바루세로나의近方뷔라에나에서墜落重傷하얏다氏는今朝새인發亞弗利加의류스에向하얏섯든것이다

問題되는研究會 決議拘束問題
各派의反對頑强하면 研究會는脫會乎

【東京三十一日發電報聯合】 貴族院研究會의決議拘束的會則은治安警察法第七條에違反할뿐아니라貴族院構成上으로보드라도滋味업다고云함으로貴族院制度調查會에서各派代表로부터此의研究會와決議拘束的會則을그대로둠은德川議長提案의常任委員制度를設하드라도効果가업는것이라하야右會則을議題로서論議하기에至하얏슴으로研究會는一日午後一時부터常務委員會에서바萬一各派代表가어되外지던지研究會의決議拘束을問題로하면研究會는困難함으로同調查會로부터說明한다고하야常務協議再委員의意見이一致하야貴族院制度調查會各代表의態度如何로서는研究會도同會로부터脫會할模樣인바各代表中에는研究會脫會하면研究會를除한各代表를決議拘束의反對決議를한다는强硬論도잇서此問題의前途는相當히興味가깁흔것이라고一般으로부터注目되고잇다

羅馬警視廳 加特力敎倶樂部에彈壓
羅馬의反加特力敎運動

【羅馬卅日發電通】 羅馬警視廳은市內에서羅馬法王과政府와의契約에依하야從來治外法權을享有하고잇는多數의『카도릭』派本部를爲始하야市內에잇는모든『카도릭』의本部를閉鎖하고全部其戶口에封印을하야出入을禁하얏다는일즉이보지못한彈壓峻嚴하얏다 數日前부터 多數의敎會反對派의示威運動이行하야此에對하야法王廳에서는猛烈히政府에對하야正式抗議를하얏는바其結果兩者間에激烈한論爭이行하야警視廳에서는드듸어本日右와如히彈壓을加하기에至한것이다

若槻首相의訓示

【東京卅一日發電通】 政府는一日부터一般官吏減俸을斷行할에對하야若槻首相은一日附官報로左의訓示를發表하얏다 今回政府는俸給令을改正하고本日로써官吏의俸給을減額한다생각건데歐洲의戰亂에基因한世界的經濟의變亂은 되어甚하야只今에空前의不況을招來하야列國共히此間에處하야異常한苦難을맛보며全力을集中하야局面展開를企圖하는狀態에잇서我國도又同一의苦境을免하기不能하야官民協力하야此의難局을一轉하기爲하야最善의計畫을遂行치안으면안되는時에際하야此도外政府는現在에諸般의政策을遂行하야國家財政의再建과國民生活의安定을圖하야括据拮据하라고하며더욱深刻을極하고其結果는直時國庫收入에反映이잇게되야 一大英斷을가지고經費의節減에邁進하야此難局에對應할수밧게업시되얏다무릇官吏는一身을捧하야國家의公務에服하는者임으로써깁히其職分의重要함을自覺하고우로는矜持하는自信을일치말고나아가恒常一般國民과苦樂休戚을供히하야覺悟가잇지안흐면안되다即此經濟上難局에際한國民生活의苦痛에對하야는其地位에돌보아남보다도잘其實狀을諒解하고반드시此에同情하야敢히其若個를分擔하는念더욱히緊切한것임을疑心치안는다이것이이러한特殊한時期에處하는方途로서今次官吏의減俸을斷行하야서同朋相救의志를遂하라하는所以이다只今既往의歷史에徵하건데國民의堅忍不拔한意思와犧牲奉仕의精神과의富함은밝게世界의驚異하는바로官吏의廉直力行은발서衆民의儀範이다政府는上下吏僚가다中外의時勢를鑑하고減俸의趣旨를體하야其職責을尊重하며其分度를守하야益益官紀를振肅하고能率을發揮하야맛침내報公의誠을傾到하야此難局에善處하기를望함

行財稅整理前途에 一大暗雲이低徊
與黨幹部一部에緩和論擡頭
政府는依然固執不通

【東京一日發電報聯合】 行財稅三大整理에對하야서는二十九日의閣僚、與黨幹部懇談會에서與黨側으로부터相當히露骨的意見이陳開되얏는데與黨幹部一部에는井上藏相의財政政策에批難의聲이잇서非募債緩和에依한財政政策의緩和電信電話民營外官業의民間移管等의意見이相當히盛行하고잇는바一方井上藏相其他有力閣僚는依然히非募債緊縮主義로邁進할것이라는意見을固持하고잇슴으로今後政府與黨이緊密한連絡下에行財稅整理에協同動作을取할수잇슬가行、財稅整理의前途는자못注目되기에至하얏다

000572

二錢葉書發賣!
政府의新財源捻出

【東京一日發電通】 政府는來年度豫算財源捻出을하기爲하야現行一錢五厘의葉書外에體裁를美麗하게한二錢葉書를賣出하려는議가잇서現在에二十九日閣議에서도此에關하야雜談的으로意見의交換이잇고又行政整理準備委員會에서도考究中인바政府首腦部도異意업시來年度議會에郵便法中改正法律案을提出할模樣이다

地方政戰의必勝을企圖
産業政策을高調하고 倒閣에邁進하는野黨

【東京三十一日發電報聯合】 政友會는去二十五日大阪中之島公會堂에서의演說會를爲始하야大都市遊說을開始하고이미大阪、京都、堺等의遊說隊를名古屋、橫濱、神戶等에派遣하야現內閣打倒를高調일計劃인바그런데今秋의府縣會選擧를目標로하야産業五個年計劃其他所謂十大政綱의過半은來七月乃至八月中에具體的成案을得할模樣임으로主要都市遊說의一段落을待하야全國支部長會議를召集하고政策强調府縣會選擧對策等에對하야協議를거듭하야周到한作戰計劃을樹立하고地方政戰에必勝을期하려하고잇다

鐵道醫와藥劑師 俸給令改正公布

【東京一日發電通】 大正十五年勅令第二二三號朝鮮總督府鐵道局鐵道醫及鐵道藥劑師에關한件中改正勅令은一日의官報로써公布되엿다 此는右鐵道醫、鐵道藥劑師에關한俸給令의改正으로今一月부터施行되나

外交問題中心으로 中國當路者反目
王正廷、王寵惠兩氏의軋轢
問題의女性鄭毓秀女史

司法院長王寵惠氏가 國民會議直前來滬한채 드듸어會議에出席치안코 近日孫科氏와前後하야辭表를提出한것은 旣報와如하거니와 其原因에對하야 同氏와親近한某要人等의 말하는바를綜合하면 果然例의鄭毓秀女史와의戀愛問題等에結緣되며 王正廷氏와의反目이생겨 그辭職은全혀不得已한데서나온것이다

◇

元來王寵惠 王正廷兩氏間에는法權交涉에關하야 意見의衝突이잇섯다 一은功名싸홈도싸홈이려니와 何如間王寵惠氏는그집에達人이고 又各國側의 眞意는잘알고 잇서法權交涉에 關한限 自身이担當하야 解決할수잇다고 自信을充分히갓고 또한될수잇스면그衝에當하고십다는希望을가지고잇섯다

◇

그런데 一方王正廷氏는堂堂한外交部長이고 또天性이지기실혀하는 根性을가저어되외지던지交涉을모조리마트려하야 그사이에처음부터 滋味업는感情이흐르고잇섯다 加斯한內部的

交涉을推行할必要가잇다고하야王正廷氏는 蔣介石氏의贊成을엇게되야 交涉을開始한것인바 그가장重要視하고잇든某國公使와의 交涉에서該公使로부터意外에도 다음과如한말이뭇저거나왓다

王寵惠博士는 中國司法界의最高權威者이다 그點은充分히認定하는바 아는바와가티同博士에게는鄭毓秀女史라고하는戀人이잇다 同女史는一面辯護士를開業하고잇는바 何如間王博士의政治的勢力을걸핏하면利用하며下級의裁判官쯤은全然眼中에두지안코 또그取扱案件은理由의有無에不拘하고반듯이勝訴가된다고함이一般의定評이다 更히듯는바에依하면鄭女史를攻擊하야그의地位를失하얏다고하는裁判官도잇다고하는일이잇지아니한가 이러한것을듯는現狀에잇서치는王部長이如何히辯明하드라도中國의司法制度에 滿幅의信賴를置하기不能하다 이것이特別法廷의設置를主張하는所以이다

◇

王正廷氏도此에는한말못하고드되어交涉은暗礁에乘及다 그런데九月下旬蔣介石氏는王正廷을招致하야法權交涉의經過를聽取한바가잇섯는바 그會見에잇서서王部長은右某國公使의말을引用하야

外交部는 列强과法權交涉의責任을가지고잇슬뿐司法界에對한 管轄의權能은附與되여잇지아니하다 司法院長과鄭毓秀女史와의變態的戀愛關係가 國際的信念에게外지波及하리라고는全혀豫期치안흔바임으로外交部로서도遺憾千萬이나 責任의배아니며 일이玆에至한것은不得已한것으로 切實히諒解하야주기를바란다

고附言하얏다

◇

王部長으로부터 그報告에接한蔣介石氏는激怒하야 即刻王院長을招致하야 問責한바잇섯다 王院長은그問責에對하야엇질서冷靜히 大體의辯明을하고引退하얏는바 內心자못不滿으로時에爆發하야即日孫科氏와相議하고離京한것이다 大體王院長이消極的으로된데對하야서는다른하나의큰理由가잇다 그것은同氏는國民會議約法起草者의一人이고 反蔣派로부터 不少하게노려보게되여 그以上國民會議에外지出席한다고하는것은 不許하는事情에在하얏든것이다 王寵惠氏는結局「ㅋ-그」로 赴하기로되엇는바 일즉이王正廷에게反感을有한사람들은 只今에王寵惠氏를들려싸고 盛히反王正廷氣分을煽動하고잇서 王正廷氏가最近에 辭意를 굿게한데도多少影響이잇는模樣이다

쏘베트運動發展과 第一次代表大會(二)
南京 韓晥華

지금中國에는 임의明確히二個의不同한政權組織과 二個의不同한政治制度가잇스니 一은豪紳地主買辦資産階級國民黨의統治요 一은勞働者農民勞力大衆의쏘벳트政權이다 그리고이兩個의政權을代表한兩個의不同한階級間의最後決戰의勝負는將次中國解放과勞農勞力大衆의解放의運命을決定할것이며 同時에 그는將次爆發될 全世界革命에偉大한動力이될것이다

地主

資産階級國民黨의統治는임의中國으로하야곰 植民地라는惡運의길로向하게하엿다 中國民族을더욱시帝國主義의奴隷로만든다全國의 經濟的大恐慌 不斷의軍閥戰爭과 空前의 全國的 災荒과 飢饉을造成하고 苛捐雜稅의强徵과軍事徭役의苛征은前보다數十培나激增하야 都市의衰落 農村의疲廢 生産의凋落 物價의騰貴를發生케하야 廣大한勞働者農民勞力大衆은 날마다더貧窮化케한다 特別히白色恐怖의慘毒은 二年以來에屠殺當한 勞農勞力大衆이 임의百萬의數에達할것이다 萬一國民黨統治를 迅速히 顚覆하지안코 放任한다면이제도 멧十萬人이 將次凍死하야 飢死 餓死 戰死와屠殺을當할터이지 못

預測

키어려웁다 쏘벳트政權이 비록國民黨軍閥의軍事的壓迫으로因하야 比較的적은 區域內에獨立되여잇스나 비록 軍閥地主의 武裝進攻으로 不斷의會剿와 燒殺을 當함으로 完全한建設事業은實施하지못하나그러나 土地問題는임의徹底히解決하엿고 멧千年來의封建的殘餘와搾取를廓淸하얏고 一切의苛捐雜稅를取消하고 一切의地主豪紳의壓迫을一掃하엿다 그리고 勞力大衆이直接管理하는政權을獨立하야 가장徹底하고廣泛한民主制度를實施하야을너 勞働保護法과 社會保險政策을實行한다 全國의各쏘벳트區域안에서는 國民黨統治의完全한顚覆에따러 廣大한勞農大衆은 有史以來에 未曾有한

自由

와生活의保障을衍得하엿다 이事實은쏘벳트區域으로하여곰 全國의廣大한勞働大衆에게 極히偉大한 影響을주어 中國革命의唯一한主要動力이 되엿다 그럼으로 帝國主義國民黨은 全力을다하야 쏘벳트區域을 進攻한다 온갓殘酷한白色恐怖의手段으로 쏘벳트의消滅을企圖하고 各種謠言을造出하야 群衆의쏘벳트에對한信仰을 破壞하려한다 大會는全國의勞農勞力大衆은勇敢히蹶起하야 帝國主義國民黨의白色테로를反對하고 쏘벳트區域進攻에對抗하기를呼訴한다 大會는勇敢이宣言한다 반듯이中國을 帝國主義의鐵蹄下에서解放하야 中國의自由獨立을完成하고 封建的搾取關係를消滅하야

廣大

한勞働者農民士兵勞力大衆勢力을實現하고 軍閥制度를消滅하야 戰爭의慘禍를消滅하고 眞正한和平自由와幸福을 得할것을!

今次大會는 全國最大多數의勞力大衆의意思를集合하야 쏘벳트政府의政綱과 연헌가지의重要한法令을 通過決定하얏다 大會는帝國主義統治를 顚覆하려면 다만一切帝國主義의特權을 取消할뿐아니라一切經濟的掠奪工具를 廢淸치안으면안될것을 認證하얏다 그럼으로 쏘벳트政府는 過去의一切帝國主義國家가 中國을强迫하야締結한 賣國的諸條約과 或은國民黨政府가締結한 一切外債의 一律無效를 宣佈하야 一切租界의回取 一切外國資本으로서 中國內에 設한銀行 工場會社 鑛山航路等의 無償沒收를 斷行할것이다

大會는 地主階級의土地所有權을利用하야 農民에對한殘酷한搾取를實施하고잇슴은 封建勢力의基礎로看做한다 그럼으로쏘벳트政府土地法令을通過하야 地主의土地所有權의廢止를斷行하얏다

地主

의佔有한土地와잇敎會 廟宇 祠堂의佔有한土地를 쏘벳트政府의管理에歸케하야 土地가업는者或은 土地가不足한農民에게分配하야 使用케하고 同時에土地의買賣 租借 抵當制度를禁止하며 一切의小作料 水利費 契稅及苛捐雜稅를撤廢하야 一切의封建的搾取를廓淸할것이다

大會는 勞働保護法을通過하야 八時間勞働制와 幼年勞働六時間制를確定하고 最低賃金을決定하고 失業保險制度를決定하야 資本家로부터 失業保險費를徵收하고 女工의産前産後共八週間의休息과及其期間內의賃金顧支拂과 또는生産과醫育費用을 給與할것을決定하고 社會保險制度를實行하야 勞働者의疾病 死亡 衰老等의救濟와勞働檢査所를

設立

하야 資本家의法令實行을監督케하고 資本家가萬一 此種의法令을遵行치아니할時는 반드시嚴重한處罰로써그의工場企業을沒收하야 쏘벳트政府의經營에歸케할것을 決定하얏다

植民地加俸問題
二、三割減額은難免
現在在勤加俸의意義는消滅
四年後는半減할터

【東京一日發電報聯合】 植民地의在勤加俸減額에對하야目下今村朝鮮總督府內務局長、菊山會計課長의兩氏가上京하야當局에減額反對陳情中인바爲始하야各植民地로부터도反對電報가拓務省으로殺到되어잇는바近近幾分의減額을實施될難免의模樣이다行財稅整理準備委員會案은最初의半減案에對하야三個年間은經過規程을設하고原案(半減案)의半分을減하야四個年後부터原案대로半減하기로하고今回의減俸을考慮하야植民地官吏의收入에急激한變化를與하지안토록幾分注意를加한것을提出하고잇다此에依하면朝鮮總督府의高等官과如히四割의加俸을支給하고잇는者는三個年間은一割減의三割을支給하고四年後부터는半減하야二割로되는것이다植民地加俸은其設定된當時와今日의植民地文化施設은全面目을一新하야거의日本과相異하지아니한生活狀態에達하고잇슴으로在勤加俸意義는滅却하얏슴으로必要업다는論이政府部內에도有力함으로近近閣議에植民地加俸減額問題가提出되여準備委員會案에基하야現在의加俸額의二三割程度가減額될것은難免인模樣인바問題는單只其實施期이다그리고朝鮮國境勤務者와如히文化施設이업는地方에勤務하는者에對하야서는從來도特別히高率인加俸을支給하고잇는바加俸減額後의實狀에臨하야考慮하기로되여잇다

幼年學校全滅

【東京卅一日發電通】 陸軍의豫備校라고하고잇는幼年學校는大正十一年大整理를하야東京에一校만남겻섯는바今回의軍制改革에際하야最後로남긴東京의一校도廢止하기로內定하얏다이것이實現하면맛침내幼年學校는全滅하는터로士官候補生은今後一切一般의中等學校卒業生으로부터募集할터이다

首相以下總出 全國的遊說計劃
今秋의府縣議選擧앞두고 與黨黨勢擴張에躍起

【東京三十一日發電通】 民政黨은今秋의府縣會議員選擧에備하기爲하야六月初旬부터全國的遊說를開始하려고各團體別로各各擔當者를定하야着着計劃을行하고잇는바大體東京、大阪、名古屋、神戶、橫濱、廣島、京都、仙臺、福岡、熊本、秋田의主要都市로부터演說會를開始하야漸次地方農村에밋칠方針이다그리하야遊說에當하야서는俵、松田의前閣僚永井、中野、川崎、齋藤氏等의政務官은모다第一線에立하야出動하고更히若槻首相을爲始하야江木、井上、町田、小泉、原、櫻內、田中氏等의黨出身閣僚요國務의暇를보아事情의許하는限各方面에勤하야政府與黨의主義政策을力說하고此에徹底를圖할것으로되여잇다그리고六月中旬의大阪에잇서서의關西大會에는若槻首相이出馬하야第一聲을揚할豫定이다

朝鮮學位令 決定
二日閣議서

【東京一日發電報聯合】 익즉이法制局에서立案中의朝鮮學位令制定의件은二日의閣議에서決定될豫定이다從來文部大臣의認可를要한것이新令에依하면城大의審査를經由한論文은總督의權限에依하야學位를授與할수잇게될것이다

仙石總裁에게 政府、勇退를希望?
日本의滿蒙政策上 重大한支障이된다고

【東京三十一日發電報聯合】 仙石滿鐵總裁는三月下旬上京以來病때문에自邸에드러안저一切面會를避하고靜養을하고잇는바이때문에滿鐵과奉天當局과의鐵道交涉은一頓挫를招來하고木村滿鐵理事는目下奉天에滯在하야仙石總裁의回復을待하고잇는터이다一方中國側의對滿鐵은非常한減收가되야이에對抗策으로서로放置하면日本의滿蒙政策에重大한支障을齎來할念慮가잇다이때문에政府는勿論各方面에잇서서도此際速히仙石總裁는退하고後任者로하야금하로빨리滿蒙政策의確立을圖하는것이急務이라고主張하는者가만케되얏다政府의一部에서도各方面의情勢에鑑하야仙石總裁가若槻首相과會見할수잇슬時期가되면政府自體가總裁의引退를勸告하자는意見이有力하게主張되야왓슴으로此將來는注目되어잇다

朝煙相談役會

朝鮮煙草元賣捌會社에서는卅九日午前十時부터同社에서相談役會를開하고第七期決算事項의報告其他協議를한後正午에散會하얏다

金剛電鐵社長 馬越氏로決定

金剛山電鐵社長後任은取締役馬越恭平氏로決定되야六月一日鐵道局에屆出이잇섯다

人事消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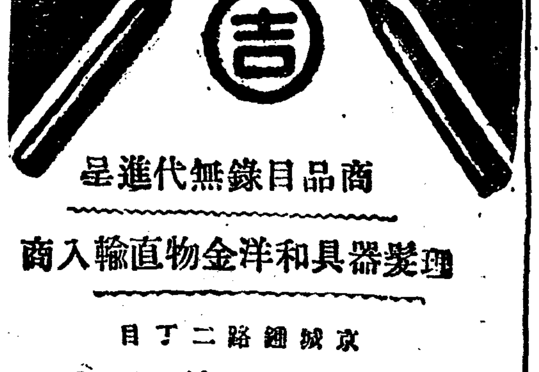
▲쏘손博士一行 國際聯盟婦女賣買問題調查次로五日入京五日間花柳界方面을視察할模樣
▲李源培氏(日本蓄音器商會文藝部長) 三十一日夜南原方面으로出張
▲朴浣氏(天道敎中央宗理院囑託) 院務를帶하고六月一日朝發車로尙州敎會에出張
▲立田淸辰氏(總督府圖書課長) 東上中이든바卅日東京發途中大阪에寄하야二日夕京城着任할豫定

八面鋒

○官吏의俸給外지減下하얏는데國營機關의物價는、엇태업다
○汽車값、電信料、煙草代…모도가요시부동이니、일낫은官吏諸君!그대들의、生活에빗추어、反省해볼必要도업슬가?
○資金問題로、產米增殖計劃이難關에逢着하야、土地改良部長이、京城과東京間을열붙나케하매고잇다고
○그다지아수롭게、헤맬것업시內外잇이고만두어주엇스면、柔켓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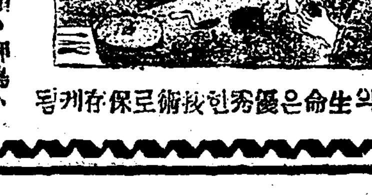
資本金 四百萬圓也
積立金 七拾參萬圓也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一番地
株式會社 東一銀行
電話長光化門三五〇番 振替口座京城五五八番
支店所在地 南大門、東大門、西大門、寬勳洞、江景、群山、元山、咸興、金化、天安、禮山、安城、長湖院 洪城、大川、廣川

싸고맛잇고現代的인
日本食은 花月食堂 黃金町二(日本生命배후內) 電話本局三八五〇番
洋食은 花月食堂支店 長谷川町(公會堂內) 電話本局二二六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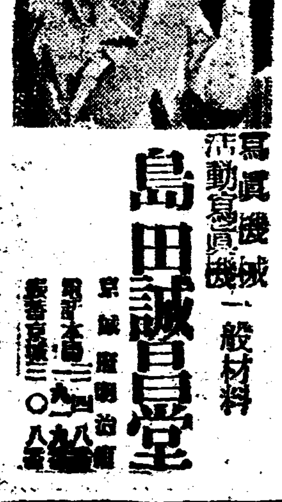


商品目錄無代進呈
理髮器具和洋金物直輸入商
京城鍾路二丁目
吉川金物支店
電話光三八六番•振替京城一〇七九〇番

時計及蓄音機修理用電氣모-다付最新式旋盤래-!쓰機械增設
右機械와時計及蓄音器의修理는學理의應用과技術者의優秀와相俟하야비로소成就됨니다


◇破損時計及蓄音器部分品의工作=龍頭•天眞•齒車類•押鳥•시키類•捻類•其他部分品工作補充에依하야新品同樣完全히修理가됩니다
◇急用되시는분에게는迅速修理에應하게되엿슴니다
모됴록時計及蓄音器修理는下命해주시옵을바라나이다
遠近不拘코一報하시면卽時가지러가뵈입니다
京城府本町二丁目 (電話本局四七一•四七二)
標準時計 Ⓜ 村木時計店
機械의生命은優秀한技術로保存케됨

고무신界元祖
京城(舊龍山)元町
大陸고무工業株式會社
專務取締役 李圭元
大陸고무
京城鍾路(舊裁判所前) 總販賣部
京城南大門通四丁目(南大門市場越便) 總販賣部支店


寫眞機械 活動寫眞機 一般材料
島田誠眞堂
京城本町

斷食七十八時間！ 平壤警察、姜女史釋放

罷業女工全部依然斷食

平元고무爭議持久戰

【平壤電話】 평원(平元)고무공장의파업이날이갈사록 점차험악화하여간다함은 루보와갓거니와동모들을격려하고 고주측의횡포를철저히경계하기위하여 지면에서사십척이나놉흔 을밀대(乙密臺)에 올라가아홉시간반이나 체공(滯空)을하다가 드듸여 평양서경관대의손에 붓들니여 동서류치장에 검속중이던 녀류투사 강주룡(姜周龍)(三〇)은 그젼날밤부터 불한불음안마시고단식을계속하여 일일오젼한시까지에 실로칠십팔시간을초과하게되엿고 이로인하여극도로 원긔가 쇠약하게되엿슴으로 경찰당국에서는 할수업시 일일오젼두시경에 석방하엿다 석방된강주룡는집으로돌아가지안코 선교리(船橋里)파업단본부(罷業團本部)로동모들에게 업혀가서여전히단식을계속하면서 해고당한동모들을자회하고 잇다 일과직공사십팔명도동정단식을계속하면서고주측과싸호고잇다(사진은석방된강주룡녀사)

新募職工과衝突 機械部男工動搖

해고당한직공들는단식으로 고주측과대항을계속하고잇는반면에 고주측에서는 일일오젼에 신직공 십삼명을 모집하여 작업을 개시하엿슴으로파업직공들는 이를아츰부터공장에살도하여 공장안으로들어가려고하엿스나고주측과경찰에서는 문을굿게닷고갓차히오는 직공들의뺨을쇠울어 넘어치며야단을하엿다 그러나직공들은담을넘어 여긔저긔에서충돌을일으켜 문제는더욱 확대되는터인데 긔계부(機械部)남직공들도파업녀공을동정하여동요하기시작하엿다한다

京紡罷業工解散 屋外集會를嚴禁

◇警察拘束現在四十三名

職工側態度强硬

시외영등포(永登浦) 경성방직(京城紡織)남녀직공삼백명의동맹파업은 금일까지 하등해결될빗치뵈지안코파업공들은지구전을하려고하는중이다 삼십일일아츰동공장에서 나오지안코 잇든직공들은 해산을명햇든 경찰과충돌이 생기어유리창 십여매를깨트리라고 일부에는 다소경상자를내이는등 대혼란을 일으키어그중사십삼명은검속되고그외직공은해산되엿섯는데 그중긔숙사에잇는오십삼명의녀직공들은일부는동무직공의집에서도류하고그여대부분은구영등포례배당에 류하는중이다 일방에 경찰에서는 일체옥외집회는 허하지안흘방침을가지고 파업공의 행동을엄중감시중이다 회사측에서는 요구조건중 가장 중요점이되여잇는 임금인상은 현재의회사형편으로서는 엇잿수업다고 하며파업공에 대하야서는 언제든지복업하면 한명도 희생자를내이지안코 취업식히겟다는 태도를가지고 잇다는데 파업단측에는그 긔관은아직업스나 각그 강경한태도를가지어 오늘까지는해결될만한새로운가보이지안는다

共産黨金燦 五日頃送局

일차사건관계자증인심문 檢局訪問코密議

본적을 함북명천(咸北明川)에두고 일즉부터 조선사회운동에만흔 역할을하다가 제일차공산당사건발각당시에 경계망을 피하야 남북만주(南北滿洲)에서 공산운동을지도하든김찬(金燦)은장춘(長春)령사관을습격하다가 체포되어 지난오월십일일에경긔도경찰부(京畿道警察部)로이송되엿든바 이래 삼륜(三輪)사찰계주임이 취조를맛치고 오는오일에는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되리라는데 일일오젼열시경에는 일차공산당의 관계자 홍증식(洪曾植)홍덕유(洪德裕) 등수씨를증인으로심문하고 삼륜경부와좌백고등과장(佐伯高等課長) 이동법원을방문하고장시간 밀의를 거듭하엿스며 그내용은 비밀에부치나 김찬의 송국젼케로써 의견을 구한것인듯하다한다

不良粟飯拒絶 思想囚騷動

지금은피차양보로무사 西門刑務所後聞

지난이십구일아츰시내서대문형무소(西大門刑務所)에서일부수형자(受刑者)들이 단식(斷食)동맹을하야 일시 소동하엿다함은이미보도한바와갓거니와그상세한내용에대하야 총독부 법무국행형과(法務局行刑課)에보고한내용을 들으면어느독감방(獨監房)에수용된사상관계의 로역자 한사람이 형무소의대우불친절과 좁쌀밥(粟飯)을 전실도버서지지안흔 좁쌀을그대로 주어도 도모지먹을수가 업다는것을루루진정하엿스나 형무소에서는 도모지들은체 만체 하엿슴으로 마츰내 지난이십일부터 이르러 한끼니의 감식을 거절하고단식하자 형무소에서는 이십구일아츰에 이르러 이단식한로역자를 취조실(取調室)로소환하야취조를 개시하자 제일공장(第一工場)에로역중이든사상관계자오십이명은 형무소의 태도에불평을절규하고 젼긔취조밧는 사람의 석방을요구하고 동일밤에이르러 젼긔로역장에종사하든 사상관계자젼부는 단식소동을 일으킨것이라는데 그후에 피차양보로 무사히해결되엿다한다

巡査二名射殺한 正義府員公判廻附

삼년전주재소습격사실로현

前後十六回軍資募集

【新義州】 평북태천군서읍내면관동(平北泰川郡西邑內面館洞)二三六) 김성숙(金聖淑)一名金光仙(金聖展)(二六)은 오월삼십일일 신의주 지방법원에서 예심을맛치고 치안유지법위반(治維法違反) 살인강도(殺人强盜)등의죄명으로 동법원공판에 회부되엿다 범죄내용은 김성숙은 대정십사년삼월에 조선××운동을 목적하고 만주에건너가 당시 관전현(寬甸縣)에 근거를둔 정의부제오중대리윤한(李允漢)의 부하로소화사년십일월外 자 목적관철을 위하야 노력하던중 대정십사년 칠월이십륙일삼십명의 동모와가티 조선내에 참입하야 의주(義州)삭주(朔州)등부에서 군자금을 모집자다가 경관대와 여러번충돌하엿고 소화이년칠월 이십사일동지리진무(李晉武)젼치복(全致福)과가티귀성군관서면조악동(龜城郡館西面造岳洞)경찰관주재소를 습격하야 동순사중호(重好)와박태환(朴泰煥)을사살하는등 젼후 십륙회에 난우어범행을 계속한것이라한다 김명숙은 작년이월십오일에 태천경찰서에 자수하엿스나 그후긔소되어예심에회부되어잇던중주재소습격사건이발각된것이라한다

鄭鍾鳴女史！ 三輪警部가取調

지난사월 이십삼일아츰에 룡산경찰에검거되든 근우회(槿友會) 중앙집행위원 정종명(鄭鍾鳴)외수인는 일일아츰에 돌연경긔도경찰부 (京畿警察部)에이송하야삼륜(三輪)사찰계주임이직접취조를 개시하엿다한다

熱誠者會！ 方漢旻에七年

安相勳事件中分離

未決三百日通算

제오차조선공산당 (第五次朝鮮共産黨) 조직의젼제로성립된열성자회(熱誠者會)사건의관계자 안상훈(安相勳)외칠명에대한치안유지법위반 피고사건는 경성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되든중 모든사실 심리는 맛쳣든바 일일오젼 열한시경에는 동사건에중요인물인방한민(方漢旻)한사람만을 분리하야 구형과가티 칠년징역을 언도하고 미결구류(未決拘留)삼백일을통산하는판결이잇섯다

今明間送局될 選擧違反七十名

시내각서의취조일단락 警察과檢事今日協議

시내각서(市內各署)에서검거취조중이든선거위반(選擧違反)의 혐의자와 모모 의원(議員)들의 『색로카』들은 시내서대문(西大門)종로(鍾路)본정(本町)등 각경찰에서 젼후백여명을 검거취조하든중 최근에이르러 거의일단락을마치고 경긔도경찰부(京畿道警察部) 좌백(佐伯)고등과장이 금일일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이르러 복젼차석검사(福田次席檢事)를회견하고장시간협의한결과 서대문 경찰서에서는 구속(拘束)네사람외불구속약오십명과 본정경찰서에서는 불구속열다섯사람 합계칠십명을 각각선거위반죄로금명간에경성지방법원검사국에일건서류와함께넘기게될터이라한다

한가한녀름

元山署長걸어 再次로告訴

【金英淳女史拷問事件】 檢事局態度突變

【元山】 원산녀예모뎨사건관계자 김영순(金英淳)녀사의 친족리형민(李亨敏)이 원산경찰서장과 고등계주임을걸어 독직죄로 원산검사국에 고소를제긔하야 검사국에서는 사실조사에착수하얏다함은 긔보한바이던 동검사국에서는 태도가돌변하야지난이십구일 젼긔고소인 리형민을호출하야 서장과고등계주임을걸어서 고소하지말고 직접고문을행한경찰서원을걸어서고소하여야되니 본고소장은 취하하라함으로 리형민는 직접고문을가한사람은 피해자를 취조하면 자연히나타날일임으로 경찰서의책임자로서 서장과고등계주임을 상대로한것인즉 취할수업다고 그대로 취조하야달나고 수차말하얏스나 검사국 최서긔(崔書記)는 듯지아니하고 속히취하 하라고함으로 리형민은 할수업시 취하를하고지난삼십일 다시 함흥검사정(咸興檢事正)에게으로고소를재차제긔 하얏다는데 사건이어떠케될는지 일반의주목을 끌고잇다고한다

檢事局態度 突變에警愕

告訴人李亨敏氏談

고소인 리형민씨는 방문간긔자에게향하하 「처음 고소를제긔하얏슬때에는검사국에서 증거도 신청하고 진단서도 제출하라하면서 사건을성의잇게 취급할것 갓터니어 제는돌연히 고소를 취하하라고 하니참으로 검사국의 태도돌변에는놀랏습니다 취하하라고 하라도 일는성의잇게 취급하야준 것갓지 아니하야 일단취하는하얏습니다만은 다시함흥 검사정에게고소를 제긔하야 공정한처분을밧고자 합니다 직접고문을가한자를 걸어서 하라고하니누가 따렷는지 일홈가지야엇떠케 알겟습니까? 젼너면회도안식히는데……」하며비분한어조로말하엿다

警察이火葬한 金鐵山遺骸安葬

정사복경관엄중경계중 茂山東面豐山洞에서

【茂山】 조선공산당만주총국을조직하고 수뇌부에서 활약하다가체포되어 륙년처형을 밧고삼년을 복역하다가 복막염(腹膜炎)에걸리여 보석을밧고친족을따라간도로가다가원산구세병원(元山救世病院)에서이십오세를최후로이세상을하직한김철산(金鐵山)의유해는원산경찰에서화장하얏다함은이미보도된바어니와김철산부친은 경찰이 화장하고남은아들의 뼈를추리어 짊어지고고향인 함북무산군 동면풍산동(咸北茂山郡東面豐山洞)에와서 간도에잇는 처와조모등의친척을청하야오게하고지난이십칠일에 정사복경찰관 경계리에서젼긔풍산동북편산(北便山)에안장하얏다는바 동민으로서는조객(吊客)이불과십여명밧게되지안허더욱쓸쓸하얏다한다

京紡罷業眞相 報告演說準備

시내견지동(市內堅志洞)팔십번지에잇는 사회실정조사소(社會實情調查所)에서는리충무공위토보젼문제비판급경성방직공동맹파업진상보고연설회 (李忠武公位土保全問題批判及京城紡織工同盟罷業眞相報告演說會)를열기로준비중인바그장소시일연사등은아즉확정치못하엿슴으로추후발표하리라한다

京都『兩中』同胞學生 百三十名總退學

◇동맹휴학코항쟁하다가

要求拒絶에憤慨코

【京都支局特信】 지난오월이십륙일경도(京都)량양중학(兩洋中學)에서 동포학생백여명이중심되야 팔개요구조건(八個要求條件)을 학교당국에제출하는동시에 일대『예모』까지일으키어 형세극히 험악한가운데에 결국총동맹휴학(總同盟休學)을단행하엿섯는데학교당국의태도는의연히완강(頑强)하얏슬뿐더러지난오월이십팔일 중근교장은 학생들이 모힌회장에이르러『절대로 조선학생제군의 무리한 요구에는응할수가업스니 제군의 하고십흔대로하라』고하는 억압(抑壓)일다 관의 일장연설이잇자 회동하엿든 조선학생백삼십명은 일제히 총동맹퇴학원서(總同盟退學願書)를제출하고모자의휘장(徽章)을떼어버리고 교문을나섯는데 그때에학교선생일동과 다수일본인학생들은 퇴교하는 조선학생들이만일에폭행이나할가바미리튼튼한경비(警備)를하고잇섯스며 일방으로는 사건발생을전후하야 학교에서는 소관경찰서에다가 응원을청하는 젼화를거는등 실로동교교정에는 험악한분위긔(雰圍氣)가충만하엿섯다

彈壓이主原因

조선인학우회에들엇다고 學生停學處分이動機

이와가티동맹퇴학하기외지의사건의뒤인는 들은바에의하면 동교중근교장(中根校長)은평일에조선학생에게대하야경찰로부터간섭이대단히심하니 제군은 절대로엇더한 단체에든지 참가하지말나고하며가혹한탄압(彈壓)을가하여왓슬뿐더러 최근에 이르러서는 동교 재학생중유종석(庾鍾奭) 서운희(徐雲熙)등두학생이 재경도 조선유학생학우회(在京都朝鮮留學生學友會)에참가하엿다는리유로돌연정학처분(停學處分)을 하엿슴으로 학생측에서는학교당국의 처사에 대하야크게불만을품고수차중근교장에게무조건복교(無條件復校)와동시에

一、校長으로서朝鮮留學生을侮辱한바를謝過할것
二、朝鮮學生에게對한特別×監反對
三、全校朝鮮人學生中除名當한學生은無條件復校식힐것
四、藥山先生排斥
五、校內言論集會結社自由도하게할것
六、神聖한學園內警察侵入絶對反對
七、犧牲者를絶對로내이지말것
八、授業料를三割値下할것

이상발거조를 요구하엿스나 교장은 종래거절하야 바렷슴으로 지난오월이십륙일에 그와가티동맹휴학과『예모』등을단행하고항쟁을 계속하야 오든것이라는바 동교중근교장는 다음과가티발하엿다 「오날퇴학한백여명조선학생의게대하야서는 나로서는 오히려그들에게고별사(告別辭)부터면저하게되엿습니다 이제는 학교로서도별다른방법이업슴으로퇴학원서는 그대로수리(受理)하야두겟습니다」운운

大邱高普盟休計劃 主謀學生十名檢擧

授業繼續、續空氣不安

【大邱支局電話】 대구고등보통학교(大邱高等普通學校)젼교학생오백여명은 륙월일일을기하야총동맹휴학(同盟休學)을단행하라고 계획하다가 주모자중림모(林某)의 밀고(密告)(?)로말미암아 거사젼에 발각되어실패되엇나는데 이정보를접한대구 경찰서 고등계(大邱署高等係) 에서는도경찰부(道警察部) 의응원을어더가지고삼십일일밤부터철야활동을개시하야 부내각 학생하숙옥을 수색하는동시에 일일오젼까지에 주모자로인정하는 십여명(?)을 검속하고엄중히 취조한다하며 동맹휴학의 원인은 년래부터계획하야오든것으로 ▲民族的差別撤廢▲學生待遇改善▲敎員更迭 등을내용으로 하엿스며 동맹휴학에실패한 재학생 일동은의연히 수업을계속하나 교내는불안한공긔가 가득하다한다

載寧礦山서 九名을檢擧

광부구명을검거후압송 龍山警察로押送

【載寧】 지난이십칠일오젼십일시경에룡산경찰서(龍山警察署)정(鄭)곽(郭)두형사는 재령에또다시나타나서재령서고등계(載寧署高等係)에 응원을 어더가지고 동군삼강면금산리광산(同郡三江面金山里鑛山)일대를수색하야광부(鑛夫)김도연, 홍승복,최춘화,로준영,유긔수,최치준,신현긔,오세진 (金道淵洪承福崔春化盧俊永劉基洙崔致俊申玄基吳世振) 등구명을 검거하고 가택을엄중히 수색하엿다는데 사건의내용은 방금룡산서에서취조를밧고잇는송봉욱(宋鳳旭)사건에관련된것이라하며 검거는 압흐로 계속되리라는데 젼긔검거된구명은동이십구일에제일착으로 룡산서로 호송하엿다고한다

稀世의毒婦

醉中男便을絞殺！

新義州署嚴重取調

【新義州】 안녹안계집이남편의목을졸나서 죽인사건 신의주부마전동(新義州府麻田洞)이백사십구번지박세화(朴世和)(三二)의안해김두하(金斗河)(三一)는오월삼십일일 오젼네시경에 그남편이술이취하야 돌아온것을 분히여겨서 줄로남편의목을 졸나서 졸도케한후 다시독거로 가슴을 따리여서 즉사케하엿다 이급보를듯고 신의주경찰서 에서는김(金)경부보가 현장에 출동하야 시체를 해부검정하는한편 김두하를곳검거하야 방금 취조중인바원인는 아즉모르나 평소에사이가조치못하던차에 그남편이 그날새벽 술을먹고온것에 분개하야죽인것이다한다

明川靑盟員 十二人控判

◇來十一日에開廷

함북명천청년동맹원 (咸北明川靑年同盟員) 김철암(金喆岩)등 십이명에대한 소요(騷擾) 보안법(保安法) 상해(傷害) 공무집행방해(公務執行妨害)폭력행위(暴力行爲)등위반사건의공소공판은오는십일일경성복심법원에서 개정되리라는데 피고등은모다청년동맹원으로써지난일월팔일에 동대회를개최하엿다가 경찰당국으로부터 계출이 업다는리유로 해산을당하게되매 경관을구타하고만세시의외관서습격을한혐의로 지난삼월 청진지방법원에서 최고일년최하 륙개월처형을밧고 불복공소한것으로 출정피고의 성명은 다음과갓다한다

▲金喆岩 ▲李洪烈 ▲金在吉
▲金明同 ▲韓靑碩 ▲崔銅石
▲方曾南 ▲太龍得 ▲崔日龍
▲金乙宣 ▲安春鳳 ▲韓會用

龍川小組員 五名起訴

【新義州】 룡천소작조합(龍川小作組)황관하(黃觀河)파와 백용귀(白溶龜)파의 알륵으로인하야 일어난 분규사건은 쌍방의 감정을극도로 격앙하게하는동시에 서로 문부(文簿)기타비품에대한 맹렬한 쟁탈전이계속되든바 오월십일 백파에서황파사무소를 습격하야 문부일체를 탈환한것이문제되어 동조합원 백치준(白致俊)등은 주택침입강도(住宅侵入强盜)등죄명으로 그동안신의주 지방법원검사국에서취조를밧든중오월삼십일에 백치준(白致俊)김준보(金俊保)주원삼(朱元森)리원경(李元京)우덕명(禹德明) 오명을동죄명으로 긔소되고 박윤보(朴允寶) 외오명은불긔소되엇다 그리고백용귀 박명식등 십칠명은긔소중지(起訴中止)가되엇다

法學士 日本法學士 李贊熙 著 定價八拾五錢（送料六錢）

日用 常識 通俗法律經濟講話

前京城地方法院檢事 辯護士 金志健先生修覽

이社會에 生存하는사람으로는누구나알어야될 法律經濟의가장重要한問題를小學生이라도알어볼수잇게朝鮮文으로小說과갓치興味잇게만든者임니다 民法、物權、債權、親族、相續、商法、民事訴訟、刑法、刑事訴訟、國際公法、經濟學、日用行政司法各種屆出書式要覽等집에안저서法律經濟의知識을어들수잇는참으로낫나기어려운良書임니다 賣部를두려는분은二錢切手를同封하야照會하시요 三十錢以上의先金은郵票로代用함니다

發行所 平壤府巽林里六ノ二二番 振替京城一八一一番 李贊熙

防水布

弊店에서印度고무原料를갓치시고印度ㅅ原料製造會社技師로계시든太錫奎氏를聘하야特別製造販賣하오니紳士淑女學生諸氏께옵서一次試用하심을仰要 (카다로구無代進呈)

京城府南大門通四丁目十一番地 만드치마外套專門 製造商 寶光號

●頭痛에는ノーシン●

림질 대하증 근치

절대보증

만일무효면돈을 도로드림니다

유명한독일구로벨박사가발명햇습니다

남녀만성임질, 부인적백하증 남녀태병과 오줌소태월경불순하혈 노별치료를다하고병원을다녀도 백약이무효한자 만허비하고근치안되여고통하는분은이것저것주저할것업시염려마시고 독일구로벨박사가최근에신발견한림질근치약을쓰시오 이약은천하에둘도업는참신긔한약입니다

京城府西大門通貳丁目八拾六番地 (京中前)

直輸入 總發賣元 신성당대약방 神聖堂大藥房 振替京城四九〇〇番 電話光三三二四番

養蜂要訣(五)

(養蜂講習會敎材)

長安蜂場 金麗鶴

一第六日分

採蜜할때에는 恒常盜蜂을操心하야 採蜜器具들은이役事하다니는反對側에노코採取하되當日風向에도注意할지며 採蜜한後에蜜槽、蜜滴、蠟片을細心處理할것이다 晩夏採蜜에는依例히盜蜂이일어엇던째에는 働蜂의大部分이殺死하야虛弱한過多群이됨으로翌年成績에까지큰影響을밋치게하며甚하면 盜習이不息하야弱群을滅亡케하나니벌들이出動하기前早朝採蜜이便利하다 이와가티急急히하는採蜜作業에는王蜂을謹査할겨를도업슴으로採蜜하깃는前日에各群의王蜂을王籠에가두엇다가採蜜한後에放釋하면安全하다

第十 過冬裝置

晩夏流蜜後에는다른蜜源이업고日氣도寒冷함으로 곳過多箱에너모枚數를整理하여야幼虫化生에意外의打擊을免할것이며過多糧이不足하거든 十月十日쯤부터每日四五合式飼養하되夕陽에보아다ㅣ무려가지아니할때까지주면 翌年三月末까지는飼料不足의念慮가업다 過多飼養은蜜二、水一의比例로溫和하야주든지砂糖半蜜半을주어도無妨하며 純砂糖을주는境遇에는白糖(或黃糖)一斤에水一合五勺을和하되 砂糖은熱湯에풀며食鹽少許를加할것이다 過多의原則은 可及的濃厚한飼料를일주充分히주어(十月上旬)封蓋하게하되 越多中에飼料不足이되거나不良한飼料를주면蜂群은瘦瘠病에걸리며蜜蜜不足이되야虛弱케됨으로翌年成績이不良하다

過多箱은 前後下三面은三寸、上部는四寸假量을稻藁、飼料等으로被覆하고 箱口는廣狹을任意대로하게하야 晩秋蜂이外部에出한後에箱口를閉鎖하야 蜂群을寒冷케하면 强群이라도蓄巢하야多季溫暖한날에일죽妄動하는弊害를防止할것이다 그런데後面에蓄巢한後에는箱口를如前히縮少하야줄것이오 箱口로나 蓋布로小鼠가出入치못하도록할지니 鼠害는能히一群을全滅하며 集蜂을단내나니 過多箱上部동계속에 쥐잡는藥을菓子에발나 무더두면이것을먹고만히죽는다 過多箱方向은 東向으로하고 箱蓋는不完하여야한다

春季解箱은群勢를보아하되 普通群勢면五月十日頃이좃코 强群이면 四月末이適當하다(京城氣候標準)그런데 解箱期前에벌들이煩熱하야 夜間에箱口에뭉치거든 過多箱口를漸次廣闊케하야줄것이다 그리하야도더甚하거든 上部의제를뗴여줄지오 甚하면箱蓋을열되 蓋布의一部를집어주는것이좃타 以上은管理에對한 要法大綱이오 以下에聯見몃가시를更陳하야 參考에以供코저한다

養蜂이事業으로나 農家副業으로有利한것은 一般이是認하는事實이다 그러나事業으로하는境遇에 轉地主義가有利하나 固定蜂場으로하는것이有益하냐하는問題는 實로經營上先決問題요 規模大小의열네여 成功與否의分岐點이다 大採轉地主義의第一缺點은 四五百群以上數千大群을 管理할수업는것과 運搬用蜂箱에互額이들며 運貨問題 恒常前途에가로노혀잇슴으로 經營者의計劃을不自由하게만든다 그런데固定蜂場은以上의缺陷은업스나紫雲英가튼長期大流蜜의 恩澤을밧기어려운短處가잇스니 結局一長一短이잇다 그럼으로나는이러케考案하얏다 線路에서三四十里以內의 蜜源이豊富한山地에固定蜂場을設하되 限五里式相距하야 二百群式노흐되(半數는採蜜群의補助群으로)多數히飼育하다가 그山中에서越冬을식히고 紫雲英採蜜을갈여에는 封蜜蓋으로十一枚或十二枚式作群하면 每五群에採蜜群一群은될터이니 假令總群數가二千이라면 四百의採蜜群을어들것이다 이와가튼採蜜群으로收蜜戰에出陣하야 二段或은三段箱으로採蜜하면 貴重한全群二千으로出戰하니보다

戰利品도 만흘것이오 經費도四分一或五分一밧게안될것이다 이와가티大捷하고 凱旋할에는紫雲英蜜보든蜂場에副軍一二를두고老兵은그곳에서餘暇하든지繼箱으로運搬箱을만드러要에應하야二倍或三倍를만드러가지고本場으로도라올것이다 그런데本場에잇는一千六百群은할虛弱群이다 그러나그도七月頃에는虫巢를밀로나무와八月싸리에는相當한採蜜群이되리니 피나무와싸리에는日氣만조흐면二千群이能히多量의貴重한白淸을提供할것이니 벌서當初豫筭의目的은得遂하얏다 이것이야말로固定式이면서도固定式이면서도固定格이다 打算上으로보아피나무싸리에서收穫이업는해라도 紫雲英收入으로써能히모든支出에充用하고남을것이다

各地面議當選者(八)

慶南河東郡各面

▲辰橋面 古巖毅一郎 姜永植 李錫煥 金鍾根 李康麟 金相敎 金相基 朴洪洙 ▲良甫面 李炳鶴 鄭禧鎔 金顯嘉 金瀚鎬 鄭亨基 鄭基軾 宋永煥 金圭禮 李炳龍 金明烈 ▲古田面 鄭寅鉉 鄭桂基 鄭宅鎔 南相業 姜俊洪 金相才 陳基僑 崔炳九 李世模 金顯子 ▲南面 黃大淵 金宅魯 黃澤秀 黃一秀 鄭世基 陳在鎬 鄭洪燠 金珍洪 金相信 鄭莊顯 ▲金陽面 李世赫 鄭在烈 宮內等 鄭在晳 金學敏 合田管太郞 李炳鶴 鄭宗猷

金丁泰 金台姣 鄭容洙 朴順璽 ▲玉谷面 李康俊 柳根秀 鄭順和 徐桂浩 鄭祐和 李東宇 琴龍奎 許貞奎 文永基 朴永允 ▲津上面 金鉉周 崔春鳴 高光倫 黃戴玹 黃源謨 黃淮玹 鄭瑨和 鄭命斗 崔太洪 李喜敎 ▲津月面 安珂鎭 安炯璿 姜瑞中 朴鍾洙 崔瑨鉉 金鼎九 朴鍾三 宋春洪 朴一淳 金昌鉉 ▲多鴨面 李源生 金渙珪 鄭鍾讃 鄭寅杓 金容圭 洪成基 姜周夏 秋宇列

江原道襄陽各面

▲襄陽面 李鍾旗 西山長治 谷木十七夫 秋宗燁 金鳳鶴 崔洛集 朴夔碩 崔潔鋼 鄭雲和 金振禹 ▲降峴面 金隆培 金哲起 孫東榮 崔鍾禹 尹時重 金振璣 張鳳煥 秋秉源 張山龍 梁在龍 ▲土城面 卓周益 李命燮 嚴鍾燮 金祥熙 全昌鉉 魚丙斗 興田恭三 ▲道川面 李圭漢 張仁源 金仁圭 高秉柱 李商鳳 俠場泰一郎 柳時永 金瀅卿 李相赫 李康悅 李昌雨 韓致龍 嚴啓永 ▲竹旺面 魚秉珠 咸心根 李炳周 朱巖 金大燮 咸珠憲 安貞勳 金龍集 朴永祚 尹龜鉉 ▲西面 李鼎雨 金奎濟 金昌禹 金商永 馬世永 李教學 孫錫圭 金顯奎 金洪濟 梁奎煥 ▲巽陽面 高鳳來 李鍾德 朴文恒 金海守 金周憲 尹相夏 李海星 李容海 尹奎炳 金周興 ▲縣北面 金斗七 金鍾九 朴容河 全仁澤 吳膺根 金台卿 與炳根 金鉉際 吳永錫 朴順根 ▲縣南面 李炳斗 崔霓集 鄭宅時 安文鍋 鄭仁時 鄭亨澈 金東善 崔技集 李圭衡 張圭煥

全南光陽郡各面

▲光陽面 飲沼直綱 黃尙秀 金容守 李文華 金東植 三谷俊原 鄭丁叡 金致培 金學燮 李起炯 金漢柱 金珪洙 ▲鳳岡面 尹昌燮 金佶周 李寶模 趙來烈 許漢三 金尙玉 李敬模 宋植 ▲玉龍面 徐培欽 金鵬燮 李根琛 宋斂浩 金敎珉 朴性信 金敎哉 金敎植 鄭相琫 徐漢昆 ▲骨若面 禹東欽 禹俊燮 徐漢喆 李鍾浩 金炳憲 崔玉根

黃海道海州郡各面

▲泳東面 鄭安仁 林茂總 洪淳馨 金裕元 黃炳淳 金亨埈 朱瑚源 安春倫 金利煥 李學壽 ▲錦山面 李元京 朴相業 崔秉燮 金鍾權 任尙一 李鳳洙 金益順 李舜晃 金基淵 崔泰祿 ▲泉決面 呂圭南 李鍾泰 吳就成 呂重鉉 李戴渭 沈東燮 李麟永 呂歡鉉 ▲東雲面 李麟秀 安承圭 安承福 韓洸愚 朴容根 洪在翊 尹昌根 金鍾基 禹鍾植 安世鎬 ▲秋花面 劉興麟 閔衡基 閔與萬 閔丙卨 李鍾軾 李順夏 李元珪 李泰陽 崔東益 朱榮燁 ▲來城面 崔承禹 閔詠龍 李殷植 崔丙璣 尹炳晉 姜大鑾 閔京鎬 吳壽根 朴承鎬 李寅熙 ▲日新面 姜大賢 李承斗 林先伊 姜邑泳 姜漢秀 朴衲俊 金蓮鉉 金承鎬 ▲青龍面 朴容眞 李基榮 李與範 金麟韶 李春榮 金應植 張舜禹 李容克 姜鶴馨 夫仁植 ▲東仁面 李承鎬 李龍宇 李起煌 任炳熙 金袞煥 李昌求 宋在敎 李裁儀 張永錫 李起植 ▲松林面 金觀植 李龍戴 李濟七 李會文 陳宗俊 朴良善 朴文植 金基萬 朴泰弘 李景俊 ▲海南面 吳致憲 崔載辯 李起衡 朴相健 李起悅 鄭淳成 李敏叙 金鍾玉 ▲西𣳾面 中西龜之助 中島昌延 李天珪 李寅植 崔承禹 崔承彰 吳昌淳 雲應奎 趙承鐸 金聖三 ▲庇洞面 吳善一 金應善 金世耀 吳庚濟 崔鏞 李鵬求 朴斗欽 鄭尙永 李鳳珪 ▲加佐面 閔啓載 吳亨順 出

口島議 尹錫模 吳洛泳 李昌珪 盧敬植 李璨鎔 吳應根 崔濟善 ▲月祿面 李剛汝 申明均 李同植 李鍾珪 吳寧根 趙善九 朴蔚海 吳宜泳 吳行根 ▲代車面 鄭泰時 鄭夏燮 崔觀濟 朴基洪 康用弼 鄭基燮 吳炳稷 崔炳鑠 趙東赫 閔泳驥 ▲壯谷面 金遇昌 崔吉善 崔承熙 金赫圭 李哲亭 李庚植 吳尙根 崔容植 崔承輝 趙徹夏 ▲雲山面 李承魯 趙軾夏 吳在根 尹泰烈 姜錫圭 李觀煥 金遇永 李潤魯 李瓚世 鄭順容 ▲檢丹面 吳祐錫 黃昌烈 柳基周 朴一貞 柳熙晩 金龍克 安承運 柳泰茂 崔完植 崔元興 ▲彌栗面 崔戴春 吳吉煥 趙東元 李鍾夏 鄭昌煥 洪鍾疇 金文壽 金裕鉉 金鍾亨 金斗克 ▲高山面 李彰世 李斗永 趙南泰 朴基亨 李泰浩 李寬泳 金洛基 李鍾魂 李性魯 吳承泳 ▲羅猪山 尹用漢 金益會 劉承益 朴鍼杞 安允九 孔元植 金貞植 金益興 金海植 柳厚烈

咸南新興郡各面

▲東古川面 崔爽賢 金永翊 朴培根 前川仁榮治 玄基道 宋鍾弼 柳秉霖 柳寅協 韓奎運 申在龍 ▲元平面 康弼杜 魏楨瓚 崔浩廷 朱榮學 劉鍾禹 朴崇昊 朴有洛 朴孝謙 朱榮翰 黃明瑛 ▲加平面 李遇鎬 宋鍾恩 趙性熙 朱明欽 朱壯炫 劉衡睃 文應奎 李亮鎬 金陵觀 韓有淡 ▲西古川面 魏戴源 鄭學晃 陳鳳瑞 李炳郁 韓奎維 宋鍾會 李達舜 金會玨 ▲永高面 李錫模 尹日重 魏儀三 鬼猛 佐藤時彥 小川畏一郎 李東均 全用禹 柳孝榮 李通鉉 朴奎淵 朴昇楨 ▲東上面 李衡植 鄭在周 官沼榮郞 朱在顯 金元河 李昌鎬 崔秀林 埜邑宗次 韓弘哲 李璜桂 李秉述 佐藤淸治 金正洙 金正諶 ▲上元川面 金鳳祚 金欽學 李容國 李洛善 元亨道 申泰鳳 陳允鉉 柳潤澤 申丙均 金源豹 ▲下元川面 劉鍾豊 林晋圭 林炳壽 林炳鐸 任琛準 韓昌泳 崔錫龍 韓章鍋 金浩翊 韓熙獸

京畿道振威郡各面

▲平澤面 朴炯奭 安鍾喆 森賢吉 西村折太郞 李成烈 閔光植 李敏斗 成周漢 黃永在 目良廣 ▲松炭面 柳遠協 李景勳 元濟東 李容孫 崔基炳 李鍾愚 朴樹勳 尹鍾敏 趙鐘九 山崎源次郞 ▲北面 禹鍾哲 鄭鍾寅 嚴敬仁 邊學基 鄭衡基 韓五相 鄭鍾疇 洪奇寶 金在喆 高鳳在 ▲玄德面 姜樂甸 李丙吉 鄭在驥 韓楨東 孔垣烈 鄭雨明 李康浩 李聖洙 李敏阜 李尹憲 ▲梧城面 鄭時昌 金知鳳 馨軾 朴泰秉 鄭鱗敎 金正秀 金成坤 徐圭錫 徐相政 尹明儀 ▲新北面 金鐵基 申奎植 全殷相 金羅植 金成基 金德秀 甄昌圭 牟潤鉉 金學魯 申昶雨 ▲浦升面 崔文植 李敏石 李孝陽 李周鉉 李應奎 兪鎬圭 李敏馥 李原在 李秉性 李敏常 ▲西面 李象榮 方益栽 張斗鉉 鄭雲鳳 朴鍾禹 吳鳳鎬 李時雨 方關栽 ▲古德面 支鍾元 方喆栽 吳春根 金敬泰 康興鎬 金裕根 韓浩錫 金有成 趙伯元 ▲西炭面 趙英植 崔承舜 韓元敎 禹德鉉 車鏞完 車聚奎 黃魯烈 林承國 ▲芙蓉面 鄭纘根 鄭成敎 方雨栽 李起鎬 李時鐸 李孝錫 吉原綾雄 小島滋治

忠南唐津郡各面

▲唐津面 梁基徹 車東徽 梁嶽億 安洙京 張基昌 金濟九 張基夏 金東彥 金在先 李煥 金鍾德 李鍾億 ▲高大面 李源萬 孫仁在 車孫炳泰 孫在弘 孫亮秀 金基鴻 孫明在 金玉坤 孫昌鉉 韓泰爽 ▲石門面 金錫達 印鍾植 金鳳冬 印敬植 印寬煥 印顯洙 申爽均 印慶植 印貞錫 金然兇 ▲沔川面 兪健濬 吳仁燮 徐元鎭 具然錫 劉朱魯 印正植 許侃 金敬大 李海喆 金世濟 ▲順城面 閔庚弼 具然雨 李喆性 李錫夏 李鍾喆 李種元 趙宣行 崔友榮 李琮鉉 崔昇鎬 ▲合德面 趙東幢 南冀元 李鐘純 朴澳奎 朴慶來 張斗植 高橋正一 金仁權 金鍾彥 朴明信 ▲泛川面 兪鎬英 韓襄命 河奎泓 鄭聖萬 千根植 方戴舜 鄭轍然 池田常一 李準性 安孝璇 ▲新平面 李昌善 具鶴書 李龍學 金雄濟 趙貞植 尹衡求 沈鍾瀾 朴元根 李錫禹 金晳濟 ▲松嶽面 韓宜相 韓百憲 具衡書 金國柱 李𢇬 徐光稷 燮 安鍾文 崔熙徹 韓百能 沈鼊 李成夏 李種斗 洪思學 李允求 崔鳳在 崔石重 李承烈 李種遠 金亨泰 崔炳

平北朔州郡各面

▲朔面 崔鳳舞 李相烈 朴樂植 朴榮大 崔正規 安國泰 山口丑太郞 金湘煜 韓鳳奎 金鳳寶 ▲九曲面 明錫泰 朱東河 崔華鎬 崔文奎 金天鳳 崔之衡 ▲南西面 李學亭 李日徹 金鈫熙 崔泰鎬 朱明鎭 信 李泰益 崔圭仁 李東燮 金昌 ▲外南面 金泰元 崔圭文 金仁玉 徐光浩 李仁興 崔錫龍 金成鎬 崔寧錫 金日成 鄭世運 崔允龍 金資泳 ▲水豐面 韓鳳記 金永淳 安鯉熙 金承烈 金行明 金大德 明紀化 姜基柱 元漆賢 李伯英 ▲南山面 明河聖 安禎商 羅贊永 李泰魯 洪在晉 姜永熙 朴鳳仁 朴濟瑎 崔海龍 洪亨植

平南龍岡郡各面

▲龍岡面 林賢鎰 鄭尙鶴 金炳三 金濂穆 金有楨 朴錫春 金翼淑 金潤鎬 金元穆 吳承澤 ▲海雲面 吳在祿 崔根柱 金昌模 金允善 趙永洛 蔡禹錫 李春煥 韓信瑞 印永九 金昌煥 ▲陽谷面 吳昌煥 朴來顯 李泳相 金元模 河達湖 朴禹俊 李斗完 金潤煜 桂顯錫 金春興 ▲瑞和面 金秉琉 白明瑋 趙永周 朱英猷 張正祿 金明濬 金承億 金用植 金得錫 金秉錫 ▲龍月面 河駿源 崔廷鳳 崔泳顯 張秉七 高弼賢 盧珍煥 金貞五 金秉柱 丁瑠柱 金達鏞

江原楊口郡各面

▲楊口面 任良準 鄭東洙 崔昉濂 平田與助 金昌鎬 安德俊 金宗璉 崔良煥 朴魯守 趙敎激 ▲北面 朴萬熙 楊永根 尹致銳 池東洵 金春澍 林良根 金在晳 劉淳相 鄭鍾格 權用奎 ▲方山面 李鶴圭 孫濟在 秋允求 李時愚 朴鴻奎 孫徹在 朴桂根 姜一甫 金榮斗 李萬圭 ▲水入面 朴鋼夏 申鎔均 朴在丁 朴宗洙 李秉龍 鄭鎔 金琪鐸 李元澤 李允會 朴鍾𧽚 金光泰 朴敬相 ▲亥安面 李鍾寅 朴文述 金東夏 白東柱 金亨植 趙秉訥 崔炳一 金學龍 ▲東面 鄭鎔麟 鄭泰淳 金鎬東 朴東渺 申泰憲 朱炳禧 鄭在鎭 金振德 任宗鎬 鄭應龍 ▲南面 金宗鍋 尹鍾憲 趙德歡 洪淳台 洪淳範 李大圭 咸寬洙 劉錫漢 尹亨奎 趙熙鼎

慶北義城郡各面

▲安溪面 李鍾大 金仁叙 裵守鎬 朴寅煥 金相鎬 金漢福 雲世烈 金致鍾 田所今太郞 朴能大 ▲比安面 李昌雨 裵衡葦 尹鍾求 金達元 金文圭 金甲泰 朴魯郁 朴淸麟 金弼沃 朴時玉 孫炳卓 金瑩鎬 ▲丹北面 禹世寬 金敬翊 裵進錫 林承鎬 柳寶植 禹泰成 李孝翰 李輔錫 金益斗 孫宗鎬 ▲丹密面 鄭宗烈 李東軍 張洲達 柳淸亭 梁守英 白南一 丁昌燮 李輿錫 申鎭甲 安衡東 ▲多仁面 梁萬煥 梁在河 金週熙 金允正 丁炳燮 崔世鉉 金相夏 金正明 崔錦斗 林浩鎬 朴炳斗 金昌圭 ▲龜川面 李錫喆 朴大晳 李相臣 金相彥 金東錫 蔡秉和 金鍾一 卞英東 梅鍾奭 金斗相 ▲新平面 柳政榮 金漢江 柳寧輝 裵榮熙 金泰榮 高文燮 梁柱厦 李鍾和 金東奎 林士錦

平北義州郡寧湖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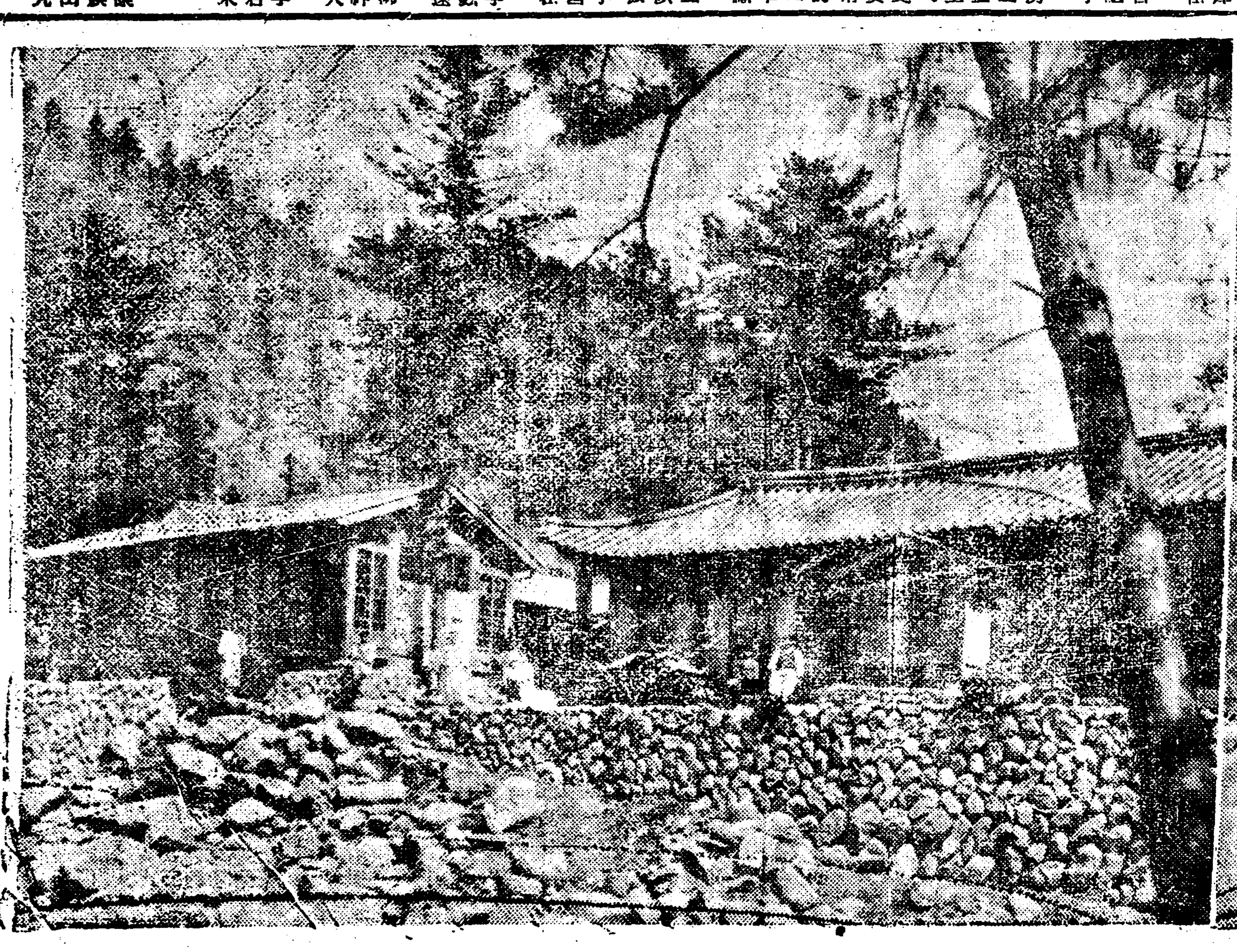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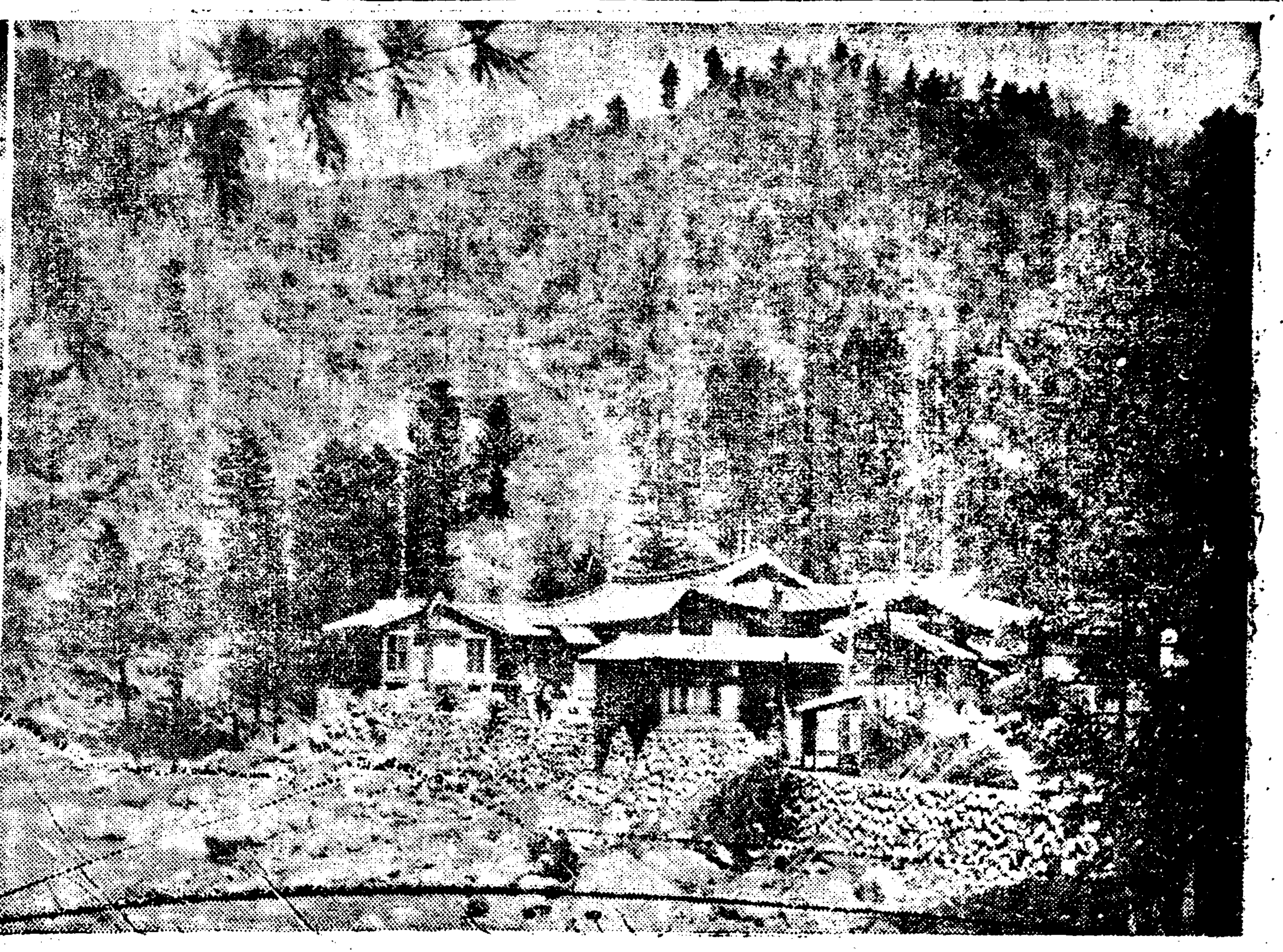
鄭璣典 李錫浩 金應鉉 金應倫 金海瀞 盧寬浩 張明善 朴蔣欽 朴基弘 韓壽長 金守一 李鶴奎

慶南陜川郡各面

▲陜川面 李景祥 朴昌甫 李昌弘 鄭致根 李珍煥 李炳佶 李基榮 李廷喆 李鍾淵 釘宮溯五郞 ▲草溪面 李守大 卞榮原 金正鏞 卞萬圭 鄭在鉉 金龍昊 金鍾千 李泰榮 尹炳湖 石鉉龍 ▲赤中面 鄭源昊 姜永宅 李台圭 孫且珍 姜道魯 鄭顯時 安永璞 金是安 吳道浩 金容赫 ▲青德面 李中厚 安瑄 車克薰 李相錫 車致薰 李斗純 金正時 徐錫運 孫瑞世 金鳳元 ▲德谷面 盧以讓 鄭民鎭 加露豊 徐相玉 李沃根 金天浩 羅成烈 具錦書 ▲雙冊面 李天封 全義判 全泰基 曹學述 康璟奎 李炳圭 朴昌濟 權寧熙 朴璟炯 ▲雙柏面 鄭鉉淑 金炯璋 鄭邦緝 金炳玉 鄭鉉庸 李洪鐘 李鏞錫 鄭應民 李鏞甲 金在昔 ▲三嘉面 朴基洪 南信佑 曹基淳 姜聖熙 羅貞洪 許遇基 安周鎬 朴琪守 高木初次 李敎永 朴在安 全永模 ▲佳會面 許鎬 金秉來 李勇錫 盧榮浹 裵相熙 鄭琨東 金基宅 許祥奎 李泰夏 李泰益 ▲大幷面 權爾澤 朱祥龍 全宗國 朱壽永 宋桂永 宗鎬均 文仕安 李在山 權戴萬 鄭璣燮 ▲栗谷面 文鷗燁 李根孝 姜在達 李相伊 李致道 金潤禧 李成宇 李憲台 文祖述 安鍾壽 ▲大陽面 鄭炳基 鄭聖基 金在重 宋在曄 鄭邦鎭 金羅泰正 沈璟煥 元聖喜 姜鳳潤 ▲龍洲面 金文鎬 金永熙 金在壹 尹昌東 柳相贊 金炳鎭 柳芳源 朴鳳新 朴敬模 金在振 ▲鳳山面 李廷輔 盧在繼 李昌純 梁斗永 朴璜九 金成昌 金永魯 李仁培 李時馥 康在浩 ▲妙山面 柳判大 河判聖 李志浩 李時榮 李尙弼 文基鉉 金炳達 文炳永 尹永植 柳達穆 ▲冶爐面 鄭尙浩 柳判聖 趙鏞旭 徐榮厚 鄭淑祚 河在洛 蔡任基 河尙洛 鄭大鉉 ▲伽倻面 河潤孝 鄭南鎔 李楊根 韓炳數 李古鎭 李判岩 呂相渭 李斗植 辛海山 白來成

咸南三水郡

▲普惠面 李元讚 金鶴化 康箕俊 李昌俊 金錫禹 車時煥 金重鉉 朴濟根 金元瑞 杉山幾太郞 大島良雄 今野雄一 丸山興三兵衛 森利久 ▲新興面 趙京實 金晟奎 金鋼九 金基弘 趙聖鎬 金禹楠 金炳舞 文大榮 金炳南 金正律 金俊益 金麟道 千濟善 李鳳瑞

◇……(寫眞은內金剛福壽館全景)

新設!! 開業!!

『願生高麗國하야 一見金剛山』!이는外國人의禮讃!!우리金剛山은世界的公園이다 이金剛山을못보고山水의絶勝을말치마시요 이萬古의神秘境은바야흐로世界人의눈압헤展開되려함니다 이에弊食堂은從來愛顧하시는諸位의厚恩을萬一이라도報答키爲하야 長安寺에**福壽館**을五月一日부터 新設케되엿슴니다 **淸潔한館舍**는諸位의**靜養**에**快適**하오며**新鮮**한 **西洋、朝鮮料理**는諸位의炙膾를밧을것임니다 特히金剛口驛(電鐵終點)에서 長安寺本館까지 旅客用專用自働車로諸位의便利를爲하야犧牲的**써ㅣ비쓰**를하고잇슴니다團體나個人손님을勿論하시고金剛에來臨次第모또록枉駕해주심을바라나이다

內金剛長安寺

典洞食堂支店

福壽館

主 徐福祚 白

000573

金剛山探勝客諸氏의

絶對要求로

內金剛長安寺

典洞食堂支店

五月一日開業

營業種目

▲旅館業‖福壽館

▲料理業‖朝鮮、西洋料理

◇**奉仕**

(1)金剛口‖長安寺間無料專用自働車

(2)數十人美麗女給의親切

(3)諸般設備는金剛山內第一

學藝

第十回朝美展評 (六)

金周經

李俠實氏『南門』 兒孩의손을 이끌고가는어린 少女는 童謠를노래하며간다무척 도열이케도만 少女의볼기의表 現이 童謠를노래하는 어엽분 입이되여잇다 이風景에萬一이 少女가지나가지안헛다하면 畵 幅이나지아닐것가튼봄 少 女의天眞한態度는 畵者의머리 에 참! 잉의春氣를뿌려주엇다 畵者는 그참! 잉에醉하야 近 景描寫를이저바렷다 아직圖畵 의삐를벗지못한그림이나 鎭寫 서버러온선물이라하니 誠意가 고마웁다

林水龍氏『봄의스켓취』 京城市民의春의遊園을자아내는 獎忠壇의봄이니 이러한柔軟美 의線으로보는것도 한趣味일것 이다 今年綠鄕展出品이던 少 女의얼굴은조흔調和이엿슴에對 하야 이것은風景畵는 고흔濃 첩의춤이다 才氣의그림이다

金鍾容氏『風景』 그림의힘이弱하다는것은 낫분것 은아니다 다만忠實을일어서는 아니된다

崔元鎔氏『風景』 물풀매질의特才를가즌 平國이 여서 그런지몰으나 氏의畵幅 에는 힘세인풀매질이잇다 가 는런쥐의躍復 自然의分析이아 니란말은 우에도말해두엇다 氏의前程에는 힘세인藝術의얼 골이빗최엿다

康泰鎬氏『風景』 놉흔位置에서 아래를내려다 보면 家屋이집웅만보이는일이 잇다 그러나그는百八十度의直 上에서 내려보는때에限하는것 이다 建物이잇는風景을그리는 데는 建物하나만을 생각할것 이아니라『地上에노인建物』이란 것을이저서는아니된다

朴泳善氏『早春風景』 조흔무리앙 한가지色으로는노 른잔듸빗說明이 充分치못한것 이다 엇더한風景을그릴여든지 나무만을떼도 그리고그다음에 풀은풀대로떼로그리고 하늘은 한울대로떼로그리는것이아니라 全體를한번에그린다는 마음을 이저어가야한다 部分的으로만 色을配付한다는것은『그린다』는 것보담도 『칠한다』는意味로變 하게된다

申鴻休氏『靜物』 글어보이는점은그림이다 바 니쓰의效果를어덧스나 빼나나 와器物의線이 線으로서의作用 을일헛다 조흔色調로統一되엿 다

金源珍氏『大同江의河邊』 그림에나타난 늙은버들人가 지와한가지 畵者의마음이넘우 늙엇다 靑年的氣勢를 굿히잡 을必要가잇다

徐柏氏『風景』 習作이지마는 이저엿봐온氏 의그림中에 가장優秀한그림이 다 全畵面이圓滿하고老熟한統 一이나 논둑길을거러가는 지 개진農夫가너무體小한것과 가 튼모양의구름부덕이의 躁覆이 亦是 作者의年少한妙한을謳歌 식힌다 그의어엿分招의와도가 튼 貴여운才質을보여준다

鄭鉉雄氏『한가한봄』 限界에빗최여들어오는 自然 全體를徹底히分析해볼려는新手 엿고또한그러한努力이엿다 그 러나 分析은精神의힘으로만可 能한것이오 腕力의善術으로는 不可能한것을이젓다

朴性變氏『鷄叫里春色』 透明한色調의고흔봄人동산이 다 『江南春色이近如何오』의 對句를이루엇다 任永氏와가튼 綿密한觀察이必要하다

咸元植氏『柳』 今年綠鄕展出品作도 高雅한 것이엿스나 이번에는 맑은頭 向으로 부드럽고純眞한손을내 밀어준다 氏는아직도年少한것 이그의前程을 빗내는것이다

基督의倫理觀 (四)

金永義

二、遺傳과創作

基督이猶太의思想에서 遺傳 으로밧은背景과 거긔에建設한 새로운創作을 推究할에잇서亦 是여러態度를 볼수잇다 基督 의敎訓이 猶太의思想과엇지關 連되엿는가? 어떠한關聯이는 基督의敎訓은猶太의文學이나聖 書에關聯하면서『基督의敎訓中 무엇이든지 새것은眞理가아니 고무엇이든지 眞理인것은새롭 지안흔다』―라고 主張하고反面 에어떠한이들은 局部的敎訓이 나 그이의斷片的態度를指示하 면서 基督은猶太의思想이나宗 敎에서全然分離된 新宗敎와新 倫理를建設하엿다主張한다 그 러나 이두解釋的態度의不足한 點은 前者가基督이創作한것을 無視할만큼 遺傳으로바든背景 을重要視하고 後者는基督이遺 傳으로바든것을 無視할만큼創 作力을力說한다 外的에우리가 가장合理化한解釋的態度를가지 려면 그이가背景으로가젓든猶 太의思想과 그이가새로히創作 한것을調和視하여야하겟다

(가)基督과先知者

다다처오는그이의生涯의最終 期에基督은에루살넴으로왓섯다 群衆이或은衣服을따우에깔며或 은나무가지를펴면서 歡迎하는 소리가 온市街를 騷動식히엇 다『이이가 누구인가?』―부른 면群衆들은『이이는갈릴니 나 사렛에사는 先知者 예수이시 다』―라고 對答하엿다 그이 의 時代 사람에게 基督은先 知者의 하나이엇다 몬데피오 리가 主張하는바와 가티 『基督은』 先知者요 그이 前六 七 百年 다른 形便과 環境 에 살엇든 에모스나 이사야 나 예레미아나 에스겔과가튼 이엇다 이先知者들과 基督은 宗敎的과 精神的으로 同班이 엇다 內面的實在를 主張함이 나 宗敎的禮式보다 正義를重 要視함이나 무슨큰事變이잇슴 을 力說함은 先知者들과 다 름이업섯다

……○……

自己들의信仰과 觀察에依하면 큰事變이잇슬것이 確實한外닭 에 先知者들이 입을열엇든것 과가티 基督亦是 神의新天國 이올늘 主張하엿다 先知者들 이宗敎나善의批判的尺度를內面 的實在에둠과가티基督은어느行 動에서든지그動機를 標準으로 삼는말을主張하엿다『여러분이 前에는殺人하지말라고 들으섯 스나 내가여러분에게 말슴하 는것은 누구든지 自己의이웃 에게對하야 怒를가지면 그는 하나님의定罪를 밧을것입니다』 ―라고 基督은主張하엿다『前 에여러분은姦淫하지말라는말을 드르섯스나 내가여러분에게말 슴하는것은 淫慾의눈을가지고 女子를보는이는 그는임이마음으 로 姦淫한 것입니다 祈禱하시기 를願하거든 아모사람에게나여 러분이 怒를가지시나 안엇나 歡想하십쇼 萬若누구에게든지 그러하면 먼저가서 그이와怒 를푸십이 조슴니다 萬若그이 를 차즐수업스면 여러분의가 슴에서 그怒를 씻아버리시고 祈禱하기始作하십쇼 그러케한 後에라야만 여러분의祈禱가效 果를내일것입니다』―라고 宣 言하엿다

……○……

外的에 先知者가 主張하듯 이 基督이 宣言한것은 正義 를行하며 謙遜을사랑하며神의 압헤 謙遜히行함이다 先知者 들이 眞正한正義는 마음의潔 白함에잇고 神은祭祀를즐기지 안는다고 主張한것과가티 基 督도 正義의外面的行動이 敬 虔한眞心에서 나오지안코다만 名譽의稱頌을願하는 利己的慾 望에서 오는것을 攻擊하엿다 先知者들이 다다처오는事變에 對하야 民衆을警告하듯 基督 도警告와 指導의 말을하엿다 더욱히몬테피오리가 提言한것 과가티 基督의時代에『富裕한 이가貧寒者를壓迫하며 稅金吏 의强取에서오는 慘憺과幸福 이 報酬를 不公平히난아오는 羅 馬人이 그들의生을 괴롭게하 잇고 한편에는 審判을밧을罪 는 惡寒가잇섯다 救援을要求하 어야할 僞善도잇고 假面을벗기 야할 숨긴善도잇섯다 布告되여 이의民衆을차저오시고사람의外 面으로가아니라그이의內面的資 格으로對하겟다』라고基督은主 張하엿다

戀愛의斷面

片石村

愛人이여―
당신이 나를가지고잇다고생 각할때 나는당신의밧게잇슴 니다

萬若에 당신의속에 내가잇 다면 나는木炭에 不過할것 입니다

당신이 나를노아보내는때 당 신은 가장만히 나를붓잡을 것입니다

愛人이여―
나는저비인데 당신의意志는 방입니다

SOS

―s―o―s―

午後여섯時三十五分―
突然
어둠의바다의 暗礁에걸린地 球가破船햇다
『살려라』
나는그들을건지려는誘惑을斷念 하리라

數字·朝鮮研究 朝鮮의書籍出版 【三二】

靑汀生

新聞雜誌의經營難

朝鮮文新聞雜誌는 平均그一 種에對한 人口當이 二十二萬 이나되여 日本人新聞雜誌每種 當人口보다 二百六十四倍나되 는터이로되 엇지하야 大部分 이經營難에싸저잇는가 競合新 聞雜誌可讀圈內의人員을 그每 種代表人口二十二萬의 二百六 十四分之一로 잡는다할지라도 日本人新聞雜誌一種當人口는되 는터인즉 日本人의 新聞雜誌 와가티 經營難이 업서야될理 致일것이다 그러나 그러치못 한것은무슨까닭일가 이에對하 야 甚히素博하나마 그特殊原 因을 몃가지 指摘하여볼가한 다

新聞雜誌經營難 資金難 檢閱難 原稿難

朝鮮內에서經營하는『日本人新 聞雜誌에는 이三難이거의關聯 되지안는터이로되 朝鮮人經營 의新聞雜誌에는 매양이三難이 떠날사이가업다 特히雜誌에잇 서서는資金을가지고 모처럼檢 閱難 原稿難을突破하야 幾號 를發刊하엿다할지라도 後援한 商工層에서 高價의廣告를줄外 닭도업고 또創刊期에多數한讀 者를獲得키도不可能한故로 뒤 대일만한多量의同情的 率仕的 資金이업스면 곳停刊廢刊狀態 에싸지고만다 그리고原稿檢閱 難으로말미암아 檢閱이遲延됨에 따라 定期刊行物의生命인發行 期日을여러번어기게되고 또日 本內地보다도倍나 費用을 當하게 될때에는 그臨時號의原稿準備가 될에서 一二個月의 時間을虛費 하게되는일은 드문일이안이며 原稿의沒收를 當하지안코 몃 가지의原稿가 不許可를 밧게 되닷지라도 그것이同號에 重 要한論文或은 記事이라하면 同 號는骨子째진 형대가記事만가 지고印刷에부처게 되는故로讀 者가減少되는터라 經營難에빠 지게된다 또原稿難(原稿料안 주는朝鮮雜誌의通病)에 부닥 처 經營上大困難가 생기는境 過도 非一非再이다 原稿難이 란것은 아즉것朝鮮內雜誌界에 는것인外닭에 必然的으로原稿 料를支拂치 못하는데 따라서 原稿難을부르짓지 안흘수업게 된것이다 이가든三難에 朝鮮人經營의 雜誌는 不絶하게病床에누게되어 十年을 繼續하는것은 姑息하 少하고 一年을채우지못하야立 지부지가 되는것이 甚히만타 (創刊號가 廢刊號되어 버린것 까지적지안타) 그리고新聞도資 金難(獨立資金不充分、代金回收 難、廣告覓縮難)을비롯하야檢 閱難(壓迫押收、削除―發 賣禁止)으로亦是經營難에 허 덕이고잇는것이만타

十年間朝鮮出版의趨勢

『最近十年間의 朝鮮文出版物 勢』에對하야 昭和五年『警務彙 報』四月號에 警務局圖書課에서 發表하엿다 다음과가튼說明과統計를 表하엿다

「最近十年間의 出版許可件數 를보면 亦是第一만흔것은族 譜이다 族譜는 勿論家門의 系譜이나 그反面朝鮮歷史의 一部門이오 朝鮮社會相의一 斷面이다 族譜無用論이一部 人士間에 提唱된지도오래나 좀처럼 急하게無用論에共鳴 되지안하서 出版許可件數 는第一位를占한다

宗敎는 阿片이라하야 全般的 는者잇스나 宗敎에關한書類 는年年增加되고잇는터임으로 우수운것이다

最近商工에關한 書籍의昭和四 年中許可件數는 七十七件으 로 大正九年의總數八件에比 하면近十倍나發展된것을보이 나 그러나全數七十七件으로 서는讀者로하여금 不足感을 가지게한다

最近數年以來의 傾向으로서 는 兒童讀物即童話 童謠類 乃至補助讀本의類가 着實한漸 進的發展을 보이고잇는것은 認定치안흘수업다

其他舊小說의類退에代身하야 新小說이 擡頭하고잇스며 無 觀되여오든音樂書類의刊行이 增加되는것을보면 時代는前 進한다고하지안흘수업다……

經書即論語、孟子等類에이르 러는 해에따라 一進一退되 고잇는것도現代朝鮮의社會相 을고요히 말하는것이다」라고 (統計表는次回에)

心經【上】 孫在馨
晴竹【下】 李應魯
朝美展特選

婆心語 (10)

薊篁生

兒童에게左手兼用을敎授하라

朴燕岩의『許生傳』에 依한즉許 生이海中無人孤島에殖民事業을 成就한後 出發歸國할際에臨하 야島民二千을召集하야노코告別 的訓詞를주엇다

其中에『兒生執匙、敎以右 手』란一句가잇섯다 나는許生 의實在與否에關하야는아는바이 업스나 燕岩은何如間朝鮮歷代 의文章大家인마큼 描寫한事蹟 始末로보아서許生도참으로歷代 의奇人物임에不拘하고 如此한 經營一偏的의訓詞를하얏다함에 至하야는좀意外로생각되엿다

元來右手獨用은人類의錯 誤事件目錄中重要한一目일것이 니萬一兒少時로부터左右手互用 의機會를주엇든들 今日吾人은 擧物、鑿掘、破毁等雙手並用의 僅少한境遇를 除한以外의各事 務處理上에至하기外지라도 左 右兩手를輪替互用하야 그成績 을倍增하는同時에 何等의不便 도업섯슬것은조금도의심할餘地 가업는바이다 이新方策이確定 되는時는 우리朝鮮으로만두고 말하건대 二千萬名의人口는엇 더한意味에서는

四 千萬名의人口로暴增되 는觀이잇슬同時에 食糧問題는 依然不變하는妙處外지잇슬것이 다 아直見인즉나의創見은아니 다 友人金敎庵(駿泳)의立案이고 敎庵도 親創은아니니벌서物故 된日本最初의進化論的學者이엿 加藤弘之는 그所著『天則百話』 中左利論의一文이잇섯슴을나는 記憶한다 그러나敎庵은天則百 話의讀者가아닌즉으로

그 着眼의獨創的임에는何 等의影響이업슬것이고 다만나 의所感으로는他人의美를掠取할수 업기로 그來歷經緯를紹介하야 有識者의考慮에供할뿐이다

模範的의朝鮮市民

나는模範的의朝鮮市民으로黃海 道의載寧邑內人과 京畿道의開 城邑內人을들려한다 右兩邑市 民의特質 技能 趣向等이多少 의不同은잇스나 그一致點은 勤 東萊府 秘密嚴守

正 業愛好 浮浪生活排斥 土産獎勵 勤儉不怠等諸美點에 至하야는 거의『쎈둥이』가되엿 다 다만開城人은賻遂된猶太처 럼他處人을猜疑 擯斥하는風習 이잇고 載寧人은支那의文盲漢 처럼 自豁自得하는痴癖이不無 하나大體上으로보아서 白璧의 微瑕일뿐이다 그러나致命傷的 缺點으로는되야잇지안타 近日 의事務經營者들이흔이는 東京 視察隊이나

上 海觀光團이니하고 遠 行準備의騷動을일으키지만 나 가보기에는 그러한行程도勿論 必要하거니와 尤極簡便하고도 實益잇는方面인즉 爲先上擧兩 邑의詳細無漏한見學이라고 言 布하야둔다 그리고 兩邑人士 의倍前努力향을斷願하야 말지 못하노라

翻譯書物의危險

假令佛文佛譯 佛文英譯 英文 獨譯或은 日本『한』譯의類는그 며지過甚만不似은업스나 原作 의妙味를 十中의三四分外지는 損傷하는嫌이 不無하고至於漢 文 西洋譯이라든지

西 洋文日譯의類에至하야는 僅少한傑作品을 除해노코는信用 할수업슴이거진 通則이다그러 한데目下우리 學人들은흔이日 本文을通하야西洋文學의 秘奧 를窺探하라한다 當初부터될수 업는 일일것이다 좋은말이지 만萬一『래푸캐되오·허ー』ㄴ(日 本名으로는 小泉八雲이英人)의 『怪談』『心』等出自東方等

芳 香絢爛한英文中에서日本 人生活의 眞髓를吟味한다하면 나는곳首肯할수잇되 阿鬼遺遙 黑岩涙香輩를通하야西地劇曲 의風神이나 小說의眞味이나를 體得하려한다하면 同意치못하 노라

戲曲 楊貴妃 (八)

中國 王獨淸 作
梁白華 譯

楊貴妃 (편지를편다)……그러 치생각한거와가태 그사람에 게서 온편지야……아 그사 람의 반가운筆跡이야 그사 람손수自己가 쓴편지야
(편지를읽는다)
삼가 이글월을太眞皇后에게 밧치나이다 이번의擧兵은오 직이 拜別하올때에 달아래 에盟誓를밟자고함이오니 이 몸을皇后께 밧치는外에 달 은所願은 이세상에 업삽나 이다 이一擧가不幸하와 失 敗에맛처옵드래도 마음에스 사로 달게여기는바이옵나이 다 擧兵名義를 爲兄國忠公 討伐에 빈것은 며개야家楊 氏一族에 嫌疑가 업스시도 록하고자하온 愚意에 지나 지못하오니 即朝廷의 楊氏 에 對한信任은 이로因하야 더욱깁며 廟堂一切의議論은 반듯이 이를楊氏에게무를것 이오니 이에읭은 더욱이自 由이실줄로 아오며다시살외 옵것은 臣의一生은다만 이 몸을皇后에 밧치는것밧게달 리 아모바라고 願하는것이 업나이다 이夜曲의 마음을 업대리어 살혀주옵시고 잇 지마옵시기를 만번바라옵나 이다
(興奮)
아아 그사람은 亦如是眞正 으로나를 사랑해……
(다시편지를본다)
이몸을 皇后에 밧치는것밧 게 臣의一生은 달리아모바 라고 願하는것이 업나이다
……다만이몸을 皇后에 밧 치는것밧게……
(더욱이興奮이되여)
아아 혀여지든날밤에 달을 向하야 盟誓한그말과 가태 참 愛情을 熱熱히 表한말 이야 그사람은 確實히나에 게 犧牲이되엿서 그리고
(또 편지에눈이가며)
擧兵名義를 爲兄國忠公討伐 에 빈것은며개 爲家楊氏一 族에嫌疑가 업스시도록……
(소리가떨이어읽지못한다)
安祿山아 安祿山아 네야말 로 참으로나의단한사람의愛 人이다 安祿山아 나는 네 게잘못하얏다 나는 지금外 지 너를疑心하고 잇섯다나 는 네가 이토록 苦心하고 잇는줄을 몰낫다 그苦心은 죄다 나한사람해문이다…… 安祿山아 네야말로 정 말 나의단한사람의 愛人이 다 나를爲하야 모든것을犧 牲하야 차오며 生命을度外 에두는 네마음속에는 단지 나라는것밧게는아모것도 업 는것을나는안다 만일 잇다 고하면 그것은나라는것에서 생긴 勇氣와 希望이다 이 세상에는 네힘과 네가려 眞 實한것은 다시업슬것이다 이세상에 眞實한네마음에견 줄것은 다시아무것도 업슬 것이다……安祿山아 만 일이세상에 人間의束縛을打 破하는暴力 人類의自由眞實 現하는 爭鬪 그러한眞理가 잇슬것가트면 나는네勇氣와 力量이 더욱굿세라고빌고네 反抗이 더욱徹底하라고 빈 다 그리고 殉蘇의忍耐와苦 痛을 사랑하는 그손으로나 를抱擁하기를 기대리고잇다 나는그날을苦待하고잇다……
(그만 全身을뭇두를 떨 며두손으로 安祿山의편지 를앗가슴에다가 대고微笑)
아아 나는참으로 愉快하다 이愉快는 지금까지 全혀맛 보지못한것이다……
(失神한것가티 뒤로넘어 지라고한다)
嵐娘 (貴妃를붓들어안으면서) 貴妃마마貴妃마마 웨그리십니 까?
韓國夫人 좀괴로운을 鎭定을하

柳絮三首

和毅明居士
沈相直

뉘라서 너를向해 輕薄타고 말하든가
故枝에 뭇지업고 바람조차 모지려라
참으로可憐한身勢 네處地ㄴ가 하노라

◇

네가지 離別하고 나부기는 그身世여
굴느고 또굴너서 어늬곳을 向한다여
아마도 北溟洲슬음 네가알 듯 하여라

◇

눈가티 힌바탕이 물들기 쉬울지라
차라리 淸流따라 魚腹에 장사커나
世上에 질흙만으니 너싸써 질가 하노라

三代 (136)

廉想涉 作
安夕影 画

입원 (一)

이튿날 덕김은 대학병원에 입원을하얏다 덕기부자는 수 술을할려도아니니 고만두자고 하얏스나 수원집이 열심으로 권하고 창훈이가 찬성을하는 것이엇다 수원집은 시중들기 가싱이가시니까 그러는가보나 고누구나 생각하얏다 그러나병 인도 그러할락지는안흔 말눈 치면서도 그래보앗스면 조흘것 가튼의견이기때문에 의사를횡 하야노코 의견을무른니 자긔로 서는 자신이업느만치 그래보 는것도 조타고하야 커녁베입 원을하게된것이다

그러나 이추이에 숨이넘어 갈듯갈듯한로인을 실어다가병 원에 둔다는것은 마음에 맛 죽틀하얏고 이왕도라갈바에야 병원구석에서 객사나식이지안 는것이 조흘것갓건만 아들손 주라도 반대만할수업섯다

병원에 또차갓다가온 수원 집은 손주메누리에게 상냥스 런웃음을 뒤어가며 병원이야 기를 들려주엇다 삼동을두고 량미간에 누버노핫든 내천자 도 오늘은 슬어젓다

『너두 래일아츰결에 한번가 뵈여야지』

『비―』

『그길에 아주 친정댁에도묵 은세배겸 좀다녀와야하지안켓 니』

『비―』

손주메누리는 엇저면 저려 케도 금시로 변할수야잇슬고 ?하고 얄밉기는하얏스나 친 정에 묵은세배까지 하고오라 는말은 반갑지안흔것도아너엇 다

안방이 금시로 환하야진것 이피엇슬뿐아니라 몸도 가벼 워젓다 평생에 들어보지못하 든 비스자루도 둘고나고 결 려도 둘고낫다

『이런구살머리적은독에 누으 신것보다 얼마나조흘지 모르 겟드라 모두 정하고 조용하 고 수중의난로를 훌훈이 피 어서 빨안은 흑근거리고잇뿐 새벳옷이 오죽가득하고……』

『흥은빈안에게 일본새벳가무 슨소용이냐고 어멈은 알궂은 말하였다 어멈도 안방마마에 못 지안케 얼굴에 조아한다

그러나 손주며누리만은 냄오 나 속이빤히보이는때 눈살을 찡흐리지안흘수업섯다

『병이 안나라야 안될수업겟 드라 설두 못차려먹고하얏스 니 정월보름안으로 나으시서 잔처를 한번하면오족조켓니』

수원집은 이런소리도하얏다 커녀도안방에서 모혀서먹엇다 수원집만아니라 집안식구가누 구나 묵어운짐을 내려논것가 티한숨들린것갓고 친정한과분 러나 화부러나간것갓기는하다그 이 수원집처럼 시원해할수야 업느니 세진것처럼 요리케도알 잇나 대보름만으로 나하서이 집에 드러오기는커녕 그안에 이집은권에 발등거리를 내어 달고 곡청이 낫스면 좋을줄 것이다

그래도 수원집은 커녁后에 병원간다고 어멈을데리고 나 갓다 덕기가병원에서 묵오려 다가 자리도만치안코하야 창 훈이와 상노놈을남겨두고 자 정에나 서모를데리고 도라왓 다 덕긔의말을들으면 집에서 는 커녁일곱시에나간 서조모 가 병원에는 열시갓가히나 왓 드라한다

『그동안에 어듸를 갓섯드람 ?』하고 안해가 무르니까

『낸들 아나!』하고 덕긔는 코웃음을 칠뿐이엇다 하여간 최참봉이 한삼십분 먼저오고 서조모가 나중들어온것으로보 아서 덕긔도 이상하다고는생 각하는것이엇다

이튿날 개동에 덕긔는 병 원으로 다라낫다 수원집도 아 춤진에 다녀오마하고 병원으 로갓다

『너두 친정댁에까지 다녀오 라면 일죽서둘러야할것이니 네 머녀올동안에 얼른밥을해치우 고 차비를차리고잇거라』고 일 러노코나갓다

손주메누리는 별안간 웨커 런케인심이 조하젓누하는생각 을하면서도 허락는대로 치장 을 차리고잇섯다

열시나갓가워 수원집은 도 라와서

『쇠잔넘은 거긔서 아츰사먹 엇다 어서가보아라 엇더면오 늘커녁때나 래일쯤 수술을한 다드라』고하며 손주메누리를듯 는다고 재촉재촉하야 내보냇다

『무어 이번에는 어른도안계 시고 다래도안지내설 모양이니 아조 실을쉬고 와도조라만…… 병원에가건 서방님더러 무러 보렴』

대관절 수원집에 무엇때문 에 이러케도 마음이 내켓는 지 손주메누리는 알수가업섯다

當選謝禮
舒山郡?尾面協議員
朴喜洙 朴喜信 朴來淳 申喆均 金守默 曺俊永 李鍾烈

當選謝禮
舒山郡高牙面協議員
金載璉 金圭默 池炳源

當選謝禮
舒山郡高牙面協議員
卞金尹金申李鄭
鍾在光炳炳聖壽東
秦喆培周翼奎鉉浩

當選謝禮
慶山面協議員
安炳吉 李相鎭 李錫祉 徐憲洙 鄭相勳 李尙植 朴永春

當選謝禮
慈仁面協議員
金秉河 李圭祥 金光浩 朴斗洪 柳正錫 李鍾日

當選謝禮
龍城面協議員
李斗榮 金洪烈 許英九 全海燦 金炳基 李恒雨 金顯奎 李圭善

當選謝禮
舒山郡?尾面協議員
金華默 李在和 石川宗平 徐丙熙

當選謝禮
今般昌原郡各面協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諸位의深厚한支持로當選의榮光을蒙하얏기에紙上으로謝禮하나이다
熊東面協議員
朴南? 李宗? 朱柄洽 崔太元 崔先甲 朴友鎔 金圭燁 朴時暄 裵健守 池水同

當選謝禮
昌原郡上南面協議員
金馨根 安石萬 金輔元 吳鍾泳 金啓柱 申柄熙 金駉洙

當選謝禮
昌原郡大山面協議員
河東晉 羅緖熺 崔贊洙 宋源瓚 朴南壕 姜紀中 金漢奎 李聲儀 李琪雨

當選謝禮
昌原郡熊南面協議員
黃洙達 朴萬祚 申容均 洪希守 金甲同 黃琮錫 金宜顯 金鍾植

술의만성중독은 결국비참할뿐
술에는두가지중독이잇다

술을매일 계속하여먹으면 결국에는 술중독입니다 술의 중독은 두가지로 난호수잇스니 하나는 급성알콜—중독 또한가지는 만성알콜—중독입니다 큰거리를

의식이혼미 하여인편으로 로혹은 올흔편으로 왓다갓다하는사람은 대개급성알콜—중독입니다 또남의창을 깨트리고문짝을째치며 야단을하는것도 급성알콜—중독입니다 이급성알콜—중독이 심하게되는때는 정신이업서지며 감각이 둔해지고 눈동자의 반사가 낫부게됩니다 또몸이참에 취하면 구토를하며 호흡이 곤란해지는일이 잇습니다 그럿치안으면 또헛소리를하더지 경련이이러나게 됩니다 피부의 혈관이 느러남으로땀의발산이심해저

추운때에밧 게잇스면동사를합니다

다음만성알콜—중독은체력이 둔해지고 정신작용도 박약하여저목위장 가튼데 만성가다루가생김니다 일을한데도 손이떨리고그밧게 여러가지 병의원인이됩니다 례를들면 간장의경변(硬變) 심장병 가튼것이 생깁니다 더욱정신병자와 가튼상태가 되는일도잇습니다 측착각을 이르키든지 망상을 이르키든지 하게됩니다. 또만혼것은오래술을 계속하는 사람에게나는신경통은 흔히알콜중독 이라고볼수잇습니다 이만성중독 상태가진행될때에는결국운동장애 망상 헛소리 심장쇠약혼수상태등이생김니다 더욱시력이 쇠하여지며 비교적급히 죽는일도잇습니다

이러한것을 본다면단 취흥속에 인생쾌락이 잇다고할수업는술이아닙니까!

가정의사

【문】 今年十八歲된女學生이온대 三四月이나되도록 하로도빼놋차안코 밤마다꿈으로지내게되며 아침에일어나면 머리가무겁고 快活한精神이업고하로終日머리가땅하고 책을읽으나 先生의말슴을들어도 잘理解가되지안습니다 밤에잘야고들어누어도 삼십분이상십팔때는두시간 가량이나잠이들지안해서 苦心을하게됩니다 神經衰弱症이아닐가요 자세히下敎하여주시요 (×學校生)

【답】 넘어가준괴발동괴인것만처여러가지空想에 잠겨잇기도하겟지요 이런때에神經衰弱症에걸니기도쉽습니다 속히왼당치료를받도록하시요

【문】 今年十四歲의男子이온데 항상머리가무겁고 元氣가不足하며무거운짐을들든지적은언덕이라도올나가게되면숨이곡참니다 五六日前에는運動을좀過히하엿드니左側엽구리가각금각금쑤시고압픔니다무슨病이며治療法을下敎하시요 (高陽生)

【답】 十二指腸虫이잇는지알수업스나 大便檢査를한번하여보고잇스면그것을먼저꾸처야될줄압니다. 左側엽구리가압흐다는것은或그편肋膜의病인가도생각되오니 左右間醫師에게直接한번診察하여보시는것이良策임니다 (醫師楊奉根氏答)

農村童話 괭이를쥐고
丁洪教

일즉이 아버지께서 이세상을떠나신후 다만 한분밧게안게신어머님을모시고 살아가는 길남(吉男)이라는어린아이가잇섯습니다 길남이가사는 동리에서도 길남이의집이 제일가게 가난하엿슴으로 남과가티 서로서로억개동모를하야 건는발 학교에도가지못하고 아츰이면 밧(田)에가서김매기와 저녁이면 산에가서나무하하야 늙으신 어머님을봉양(奉養)하며집안살림을아버지대신으로 하여가게 되엿습니다

그림으로 길남이는먹는것은둘재로 봄 여름 가을 겨울사시(四時)로옷한벌변변히입지못하고 철갓지안는옷을 그나마도 째엇이입지못하고 누덕이누덕이 기어입고 살과들로헤매이고잇섯습니다 그림으로 동리에서도좀 밥술이나 먹는집아이들은 길남이만보면 길남이라는이름을대신에

누덕이라 고이름을부르며놀리엇습니다그림으로그것이아주이름이 되여서 누구든지길남이집이라는 것보담도 누덕이의집이라면 잘알게되엿든 것이올시다 이러한 별명(別名)을 들을때마다 길남이의 어머니께서는남모르게 한숨을깁게 내쉬이시며 신세(身勢)를한탄하엿지만 어쇠할도리(道理)가업슴으로이집저집으로 돌아단이시며 무슨일이든지 하여주며 저우저우어 더먹는한편 ―길남이도 이웃동리에사는 김천지(金僉知)에게서 얼마되지 안는 밧과논을 어든것으로 어머님과 길남이가 살아나갈것으로 생각하고 봄이면여러사람들틈에끼여서부치는 힘을다―하야 밧갈며 씨뿌리며 여름이면 나려쏘이는 뜨거운햇빗에 잔등이를 태워가며논에모 밧에김매고한 그남어지에 가을에는 봄과여름동안 잇는힘을 다하야 각구워노흔 밧에옥어커잇는 콩 수수 팟가튼것이며 논에는 누려케익어잇는 베 ……이엇습니다

이러케하 야 얼마는되지 안치만 쏴하노흔것을 볼때에는 어머님과 서로안저서 길남이는 길겁게웃고 잇슬때에 어머님은 벙글벙글 것분마음을 억제치못하야 어머님은 길남이의동을 어루만지시면서 『길남아! 참으로애썻다아버지가 계시엇스면 얼마나칭찬을하시엿겟니…….』 하시며 말슴하실때에 길남이는 『어머님 래년에는좀더 어더서 해보겟서요…….』 하며 잠간동안 질거웁든

길남이의 집에는 멧칠이지난뒤에 영임자인 김천시네집에서는 도지를벳섭 가저오라는 통지서(通知書)가나왓스며밧과논가느라고빌어쓴소(牛)삭슬내라는소임자의통시며군청(郡廳)으로 호구세(戶口稅)와 학교비(學校費)를 바치라는고지서(告知書)가날러들어왓습니다 ＝계속＝

研劇舍 來演
六月一日부터 朝劇에서興行

지방순회 공연중이든연극사(演劇舍) 일행이 서울에와서 흥행하게되여 연극사의 강홍식(姜弘植) 신불출(申不出)씨외수씨가재직일 본사의인사차로 래방하엿다는데 류월일일부터 조극(朝劇)에서장괴흥행을하게되엿다는바 이번에는 재래의배우들을 만히갈어 새로운 인물들을망라하야연괴상 새로운 정을보혀주리라한다

라듸오 六月二日

午前一〇時〇分氣象概況 各地天氣實況 一〇時四五分料理『건북장앗지』 正午時報 뉴―스 午後〇時二〇分 落語 一時〇分家庭講座偉人과其家庭(二) 申錫雨 二時一五分 趣味講座 三時四五分公示事項 뉴―스 四時三〇分運動競技(京城運動場) 아라메다對京電野球戰 六時三〇分趣味講座 ……國時代歌謠(一) 七時〇分公示事項、全鮮뉴―스(A) 뉴―스 明日順序 七時二五分 …… 八時〇分라되오드라마 (A)八時四〇分獨唱(B) 九時二〇分……(A)二回目 九時三五分 氣象概況 天氣實況 時報 뉴―스 公示事項 明日順序(朝鮮語) 九時五五分映畫物語 ……金永煥

映畫小說 人間軌道 (55)
城北學人 安碩柱畫

옥화 【三】

그것은 후릿한 상근이의과거의생애엿다 학생들의천두에서 외치고 달려든자괴 삼년이라는 긴세월을 감옥안에잇슬때 해빗을보게되는날에 어떠한일을하리라하고서 미래에위대한자괴의 발치를그려보고서 스사로감격하엿든때 감옥에서나아오는길도 중국으로가서그너른천지를 뛰여다니며 오래동안경괘한 일을이두어볼랴고하든 그장패하고도비분한그의 아모래도 그일이라는것은본무려가아니면 그정세에맛추어일할수업다하고서 귀국하든그

일즉 죽어서 이괴로운 시간을 맛보지안코 장차 압헤다닥칠 그무서운 형벌―을버서나고십헛다 자괴는 지금교수대로 갓가히다는 자괴의그림자를 보는가릿다 것언제나자괴는 안켠하고도고둥이업는 죽엄을 선택하리라하는것이엇다 그러나 세상에대한 여려가지의미련은 안탑가웁게도 두터워지는것이엿다 상근은 방으로드러갓다 눈물이글성글성해서 자괴를처여다보는 옥화의 갸름한얼굴는 어느부분이고 아름다웁지안은곳이업는것가텃다

써에다시 보지못할줄아럿든산천을바라보고 크게숨을쉬여보든 그시절 그리고 서울을맛나서밤늘 멧칠식새여가며 모종의큰일을획책하든 위대한자괴들의 면영(面影)을―그모든것이 마음속에서 싼작하고는써지고써지고하는것이엿다 그러나 김정호의 계책에넘어가서 인행동을하야 무수한일군들을 압흑으로 써러던자괴아니―김정호의게 속앗다 하드래도 사변을이르키기전에 자괴가하고잇든 일이어써한일이라고 할고도 김정호를 되돌라잡지못하엿든 마음이약하엿든자괴―그자괴를생각하엿슬때는 지금의자괴는 다시금 어써케건커내일수 업는집흔연못에 싸진채로썩어가는 시체와도가탓다 상근이는 별넉이러섯다 그리고는 이를 북―가려보앗다 그소리는 입이 자괴의족두(髑髏)가 어는연못 밋바닥 조악돌에가려안는 소래가탓다 컴컴한 영바닥은 자괴를행하야입을버리고 손짓하야 써러드리는것가탓다 그의게는 이러한괴로운순간이만핫다 이순간마다 대지(大地)와 자괴가드듸고선이대 그는 지도 그품안에서 자괴를일속이 내여쫏친것가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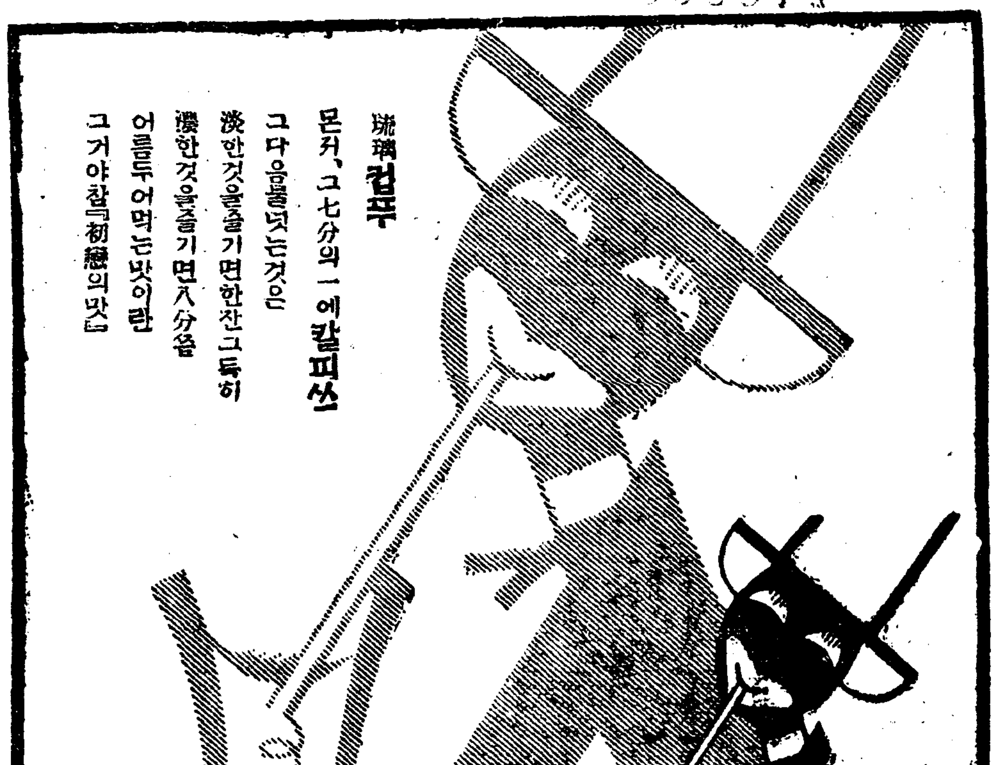
상근은 옥화의팔목을 덥석 쥐엿다 『옥화―』 상근은그의일홈을 불러노코는 묵묵히바라보앗다 옥화는 상근의모든거동이 오늘은화가 참머에게당한 일쌔문에 비분해서하는것가태서고마워다 『다―제팔자이지요 큰심마시요 기생노릇을 하니가 그런 꼴을 보는게지요 선생님만변치안으시면 어써한 봉변이고 마다노코 당한들 어써켓슴니가?』 『그러나 내자신은 옥화보담도더괴로운것가트오! 나야변치안치! 누구나 사랑하는사람 써리는 맛나면변치말자고 맹서는하는것이지 만 세상이 변케맨드니까』 두사람은 침묵하여젓다 거는밧에서 코를골고 자든옥화의 어머니가 마두에나와서 담배통을 대돌에써러 머롱의 재를털고는 담배를 피여물고 감캄한하날을 처여다보고칭승맛게 한숨을길게내쉬엿다 그는언제나 회푸리를하기권에는 의례히한숨을몃이켜라하고 내쉬이기째문에 옥화는 그가한숨만쉬면 옷을가라입고서 밧그로 나아가곤하엿다 임이 이마누러는말 한울처려 보랴고 옥화의방으로드러갓다

『쌈손』單獨 操縱成功의快報를밧고
女鳥人朴孃을차저
東京支局 一記者

입천일본비행학교(立川日本飛行學校)에서천십연구중인우리의 녀류비행가 박경원(朴敬元)씨는 지난오월이십일 복견교관(伏見敎官)의 허가를엇어 일본내의 녀류비행가로는 최초로쌈손기단독조종(單獨操縱)에성공의신긔록을지엇다 이 쌈손기는 이백삼십마력의 발동기를장치한 륙군을식일형정찰기(陸軍乙式一型偵察機)인데민간비행학교의다수한 비행사중에서도 동기를 조종할수잇는이는 몃명에지나지못한다하니 천일본내에 모다네사람밧게업는 녀류비행가중에서는우리박경원씨로고시라하겟다 처다한남자비행사로도 감마다못하는 어려운조종을 임개녀성의몸으로 륙시간미만의련습으로 훌륭하게 성공하엿다하니 동씨의기술이 엇더하다는것은 재언할필요도업겟다 사실박씨가 동긔를 조종하야입천비행장 상공에서 시여(時餘)나묘기를 보일째에는 참렬하엿든여러 교원과다수 비행사들은다만경탄하엿슬뿐이라한다 이쾌보를듯고 긔자는 지난이십삼일 오전열시 동경역발렬차를잡어타고 열한시사십오분에 입천비행장에 도착하야 곳일본비행학교에 씨를방문하고 온뜻을고하니 조곰후에 등교주사와가티나온

사진은박양의유도비행으로부터……

티나온 씨는기계유로 다수셤어진 그러나경쾌한비행복으로 괴자의방문을진심으로환영하여주엇다 일견이십오륙세밧게되여보이지 안는씨는 쾌활한가운데도 녀청으로만보일수잇는겸손한태도로 『밧부신데 차저오시느라고―감상이요? 별로 감상이라고할만한것은아모것도업슴니다 녀자이니만치의석권무를케손으로모다 하게되고보니 다른사람들갓흐면 단잠속에서 꿈나라에 헤매일 아츰천철이면 벌서벌개머리에서 울리는 시제의경종에놀나니러나조반준비그것이웃나고다섯시가되면 격납고문(格納庫門)을제치고드러가 일곱시반까지 여러가지 시실시연구를맛치고정오사시는 학과연구를합니다 오후에는긔계의수선이며 정돈을 하고잇는날준비까지하여놋코나면벌서어두운밤이됨니다사록 시중여가라할만한 여가는 조금도업는 생활이되고보니 다라서아모것도생각할여유가업습니다 말하자면 기계나다름업는생활이지요』 『왜여류비행가가남자의 그것처럼발전되지안는가는말슴이지요? 그야케업으로 새삼스럽게말슴드리지안어도일반사회의 여러분이 잘아시는터이아님닛가 그러나 케생각하는바를솔직하게말슴하면첫재는 비용문제요 둘재는 커의비행사들에게 상당한직업이 업는까닭이아닌가합니다 이두가지만완전히 해결되는날이면 오늘항공계에잇서서남자에지지안는활동도 잇슬것이요 지반도쉴것인줄밋슴니다 연습비에막대한금액이소용되는것은 우리들의내정을모르시는이들로는 상상도못할것입니다 일분간에이원한시간만계속하려하여도 일일백이십원이란 금액이잇서야됨니다 천재를가진이라도 삼능비행사의 면허장을엇어쥐라면 적어도천오륙백원내지 이천원의거액을가저야됨니다 그러나 외국이면몰나도 우리동양 더욱우리조선에잇서서야 딸이잇스면 크게쉬혀야 고등녀학교까지나보내주면 벌서출가식혀외손볼생각이나하지요(계속)



六月一日부터特別大公開 (每夜八時始作)
入場料金 階上 大人五十錢 小人三十錢 階下 大人三十錢 小人二十錢 어린이十錢
◇申不出作品!
鄕土劇 春夏秋冬 全一幕
아리랑 八場
登場人物三十餘名
◇朝鮮研劇舍脚本提供
洋劇 스피오네 全二幕
一幕―瑞西엇던카프에
二幕―巴里陸軍省附近
登場人物十五餘名
△其他若干
獨唱―池季順
合唱―全景希、池崔順
△朝鮮研劇舍脚本提供
諷刺笑劇 現代風景 全一幕
登場人物二十餘名
이른봄어느江邊에서이러나는
(無順) 申不出、全玉、卞基鍾、羅孝鎭、羅品心、申銀鳳、徐玉버、全景希、李元在、金基成、王平、李鍾哲、金滿、韓一、卜元奎、金亞淚、李樋浩、南邦、韓旭東、李瀾玉、朴貞玉、池京順、李白白、池季順、池崔順、姜弘植、吳先員、以上數名
仁寺洞 朝鮮劇場

‖(自六月一日부터)‖
◇洗新한舞臺裝置와獨特한照明效果로!
劇界의寵兒 虎聲劇團 一行
▲신진 명창 손진홍
▲동 박옥도
▲장우라 정록주
一、승무 朝鮮雅樂 李東伯
一、입창 金昌龍
一、좌창
一、검무 女唱 孫紅眞
一、단가 孫明玉
一、수심가 沐明月
一、카야금 鄭錦珠
一、靑年勇士의 …… 朴玉桃
其他男女名唱五十名出演

◆世劇社演劇初日푸로……
悲劇 慘敗者 全一幕
指揮…李 國
演出…徐 八 水
景…老紳士의집
喜劇 거진말부인을 全一幕
演出…徐 八 水
指揮…李 國
景…녕감의집
◇藝術의眞價를新舊劇을아울너나타내려한다
鍾路五 미나도座

五月二十九日부터 특別大公開 폭스名畫
特에入場料는 階上三十錢 階下十錢 均一
◆월리암폭스超特作大雄篇 巨匠라올월슈氏監督
二百萬弗映畫 세추레일 全十二卷
◆월리암폭스特作映畫 巨匠라올월슈氏監督作品
에로그로 巴里는조흔곳 全八卷
◆폭스社寫眞 水曜日에로그로 美第一! 女子浴場 全二卷
主演 [illegible]
實寫 一卷
團成社 電話光九五九

深刻한財界不況과 各地細農民의慘境

草根木皮로連命하는데 木皮切取까지取締

압흐로는무엇을먹고살가? 可憐한平南道內窮民

【平壤】 미가폭락으로풍년이나 괴근당한최근평남(平南)농촌방면의 경제계(經濟界)는 극도로 피폐에빠저 농민들은정든고향을 눈물짓고 류랑(流浪)의길을떠나게되며 엇던촌락은 령빈인 주인일흔집만이 옛날의면영을간신히 보존하고잇는 상태이며 대동군(大同郡)과 강서군(江西郡) 일대의궁민들은 돋아나는 풀순(草芽)을뜨더서 소곰물에삶어먹으며 원수의생활을 간신히니어가는 참담한생활을 계속하여산야(山野)에는거지궁민들로만원을일우는상태이며일반송피(松皮)를벗겨 덕을지어 연명하는사람도만허 당국에서는그것도못하게엄중한취체를하고잇는현상이라한다

三陟五千窮民의慘境

食糧缺乏된지오래다 ◇…굶어사경에빠진자가다수 當局에서는應急救濟

【三陟】 갈사록심각(深刻)하야 가는 공황은 어데나일반이겟지만은 누구보다도 가장참담한생활을하는 세민들은 더욱궁경에빠지게한다 이제그사선에 방황하고잇는삼척군(三陟郡)의궁민수효는 어미본보에 보도하엿거니와 그들의생활은 갈사록참경에빠저 지금 식량이떠러저서 이삼일을굶고 사선의 긔로에서 잇는자가 백여명에 달하고잇다 이에군당국(郡當局)에서는위선 응급책으로 도궁민구제비(道窮民救濟費)로부터삼천원(三千圓)을어더가지고각면에게원을 파견하야 군내오천궁민에 식량을사서 배급에 분망중이라는데 이로인하야 일시완화를어들가한다

過重營業稅 不納運動擡頭

영업은안되는데세금만올려 金泉商民들이抗議

【金泉】 경북김천(慶北金泉)시내에서는 얼마전부터 일반상업자사이에 영업세가 년년이늘어감으로 도저히상업을 유지할수업다고하야 점점영업세 불납기세가 농후하여오는바 사실상조선인의 경제상황이란 나날이 몰락하여가는 형편임으로 더욱이곡가폭락된 이래로 일반의상품수요능력이 상상이외로 위축되어현상을 유지하기가 매우어려운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넘우과중한영업세를 부담식킴으로얼마전에 시내모상인이 넘우세금이만타는 질문을하엿든바 면에서는 군에서시키는일임으로할수업다고 함으로 다시군에가서질문한즉 군에서는 면으로미루운다고하야매우격분하여마지안는다는데 무릇일반 세금이란생활의 여유가잇고 나서의 문제이겟거든 지금그날 그날의 생명을근근이 계속하여 나가는 시민에게 과대한부담을 덥퍼씨워놋코 성화가티 독촉함은도리어일반의 감정을 사기에까지 이른다면 여하한소동이 이러날는지알수업다 고할뿐아니라이와가티민간의 실정에몽매한 세금을또바또바 납입할수업서 우리는일치단결하여 세금불납 운동을이르키지아니하면아니되겟다고하야형세가날로험악하여간다 한다

하로한끼도못먹는 金堤에五千戶窮民

昨年洪水와恐慌으로因하야 注目되는그들生途

【金堤】 전북김제지방에는춘궁이닥쳐와 하로에 한끼식도먹을수가업는궁민이오천여호에달한다는데 그자세한것을 보도하건대 작년이래 살인적불경긔로인하야 일년동안 피땀으로지은농작물은 비료대와 농채로다빼앗기게되엿슴으로 거년 겨울부터 식량이결핍되엿스며 또한그들중에는 작년여름에 지독한홍수로말미아마 농작물의 전멸을당하야 낫도대보지 못하엿슴으로 그와가튼 참경에일으럿다는데 농비문제로 금년농사도지을가망이업다하며 그들의 먹는식물은 산채 밧나물 야채『나무재』 등에서속삼할가량을 석거서 죽을쑤어먹게되는데 이것이나마 하로에한끼식도 온전히먹지못하게되엿슴으로그들은장차엇더한 방책으로 생명을보존할것인가 그장래가 더욱참담하게되얏다한다

▲女子機業傳習所創設 【龜城】 평북귀성군방현면남시(平北龜城郡方峴面南市) 조선예수교회(朝鮮耶蘇敎會)에서창립한방현수도원(方峴修道院)에서현재교사로 시무하는리공환(李恭煥)씨는농촌부업본위(農村副業本位)의 녀자긔업전습소(女子機業傳習所)를설립하고 신식직긔십대를구입하야재래의구식직조법을 폐지하고 최신식의직조법을 교수하려고 방금지원자를 모집중이라는데 이제그설계와 시말을 드른즉 졸업기한은 일개년으로하야 양잠법(養蠶法) 제사법(製絲法)등을교수한후자의로직조업을하는자에게는만반으로편의를주고취직을원하는자에게는 동전습소경영의공장에서채용하기로하엿다하며 림시장소는 동지에잇는 귀성군청(龜城郡廳)의관리하는간견실반양케이솔며건물을림시로사용케한다는데지방인사는 동전습소에대하야 만흔긔대를가지고잇다한다

退學生防止로 月謝金減下決議

安溪奬學會에서

【安溪】 지난이십구일경북의성군안계(義城郡安溪)공립보통학교에서는 학부형으로써 조직된장학회(奬學會) 정기총회를 안계공보교내에서 개최하엿는바 동석상에서는 현하농촌생활의극단의공황과 무산아동의 퇴학율이 증가함을보아서 그중요한대책이 수업료의 감하에잇다고철규하야 실지운동을 개시키로만장일치로 가결되엿다는데 그러한 중요사명을띄고 개선된임원으로는회장허호빈(許鎬斌)부회장김상학(金相鶴)구명의원김찬영(金燦榮)외 구명의 평의원김하며 일반은그실현여부에 매우주목하고잇다한다

安東에旱魃騷動

보리싹이그대로말나 일반농가에서는불안

【安東】 경북안동지방에는지난삼월경 베야난 장림으로수십정보의건답이 침수되여 일반농가에서는 금년도 풍란리가이러나리라는 예측을하고 잇섯스나 그후로는 비한천나리지 안코비로 모진바람만이부러 벌서부터 채소류는전멸상태에 이르럿스며 보리도싹이 나왓스나결실이여의치 못하리라하야 농가에서는적지안흔불안을늣기고잇다한다

咸興靑盟의 委員會禁止

【咸興】 함흥청년동맹에서는 재작년대시위사건이래로종회는 물론집행위원회까지라도거의금지를당하여오든바 방금 자체가 직면한중대문제인 회소문제(會所問題)와기타 재정문제등을토의코저오는六월七일에집행위원회를개최코저하엿스나 당국으로부터 시긔가적당치 못하다는 리유로열니지못하게되얏슴으로동동맹에서는 방금그대책을 강구중이라더라

堤川繁榮會創立

충북제천군 제천면 읍내에서는 번영회를 조직하야 본월이십팔일오후사시부터 룡지 공회당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엿는데동일정각에는 백여명의 회원이 회집하엿섯스며 그시에 결정한사항은좌긔와여하다

一、役員選擧狀況 會長 堤川面長李鼎儀 副會長 橫匠新吉 申東休 評議會員 熊見勝敏 鄭壽乙 韓鳳敎 鄭海準 石戶傳三郞 長谷市三 孫盛顯 安漢益 鄕原信一 鄭股準 間間堤川郡守 張顯鐵 堤川警察署長小林秋森 山田米一 朴廷楨

二、規約及豫算案賦課徵收規程

西朝鮮巡觀團 천안지국서모집

【天安】 본보천안지국에서는 금월이십일에 서선시찰단(西鮮視察團)을조직하여 승람케하기로되엿다는데 개성평양의명승한 풍경과 명사적고적이며 발달된상공업에 대하야 남선인사들이 앙상사모하고 한번보기를 원하엿든것인고로 참가자가 가볍서 정수에넘어감으로일대장거를이루리라한다

◇募集規定

一、日時 六月十九日午後五時에天安邑本報支局으로集合 六月二十日午前六時車로天安驛發

出發 同日 開城市視察午後朴淵宿 六月二十一日 平壤着觀光 六月二十二日 終日平壤觀察 同日午後十一時車로平壤驛出發 翌朝天安邑歸

三、定員 二十人以上

四、旅費 二十圓(車食費)

申請期日 六月十五日外지(但旅費中五圓添付要)

五、申請場所 天安邑

長津蔓蔘專賣와 小商人들의打擊

유일의생산근원을일은 蔓蔘商들의困境

【長津】 함남장진군(咸南長津郡)은 만삼(蔓蔘)의산출지로서 유명한바 최근에와서는 일년동안의산출액이 약사만여원의매상을 헤아리게된다는데 이것으로말미암아 이때까지는 수백여명의상인들이 유일의 생산근원으로서 경쟁적으로 그매매(賣買)에 열중이되는동시각방면으로대활동을 개시하고 잇든중에 돌연히금년도에와서 인천부본정(仁川府本町)삼정목에잇는야중순오(野中順悟)와 동항정(港町)에사는 삽곡백태랑(澁谷百太郞)등인이만삼의 전매허가를어더가지고 장진군내의 하갈우리(下碣隅里)와 덕실리(德實里)량처에다 매매장소를설치하고독단적으로 일수판매하게되여근근시작하리라한다는데이로말미암아 수백여명의 소상인들은그유일의 생산근원을 빼앗기고 금후사라나갈길이아득하여며 단근심중에잇다는바 그들은전매제실시를극력반대한다고한다

統營靑盟의 幹部四名을檢束

긔념식내용이불온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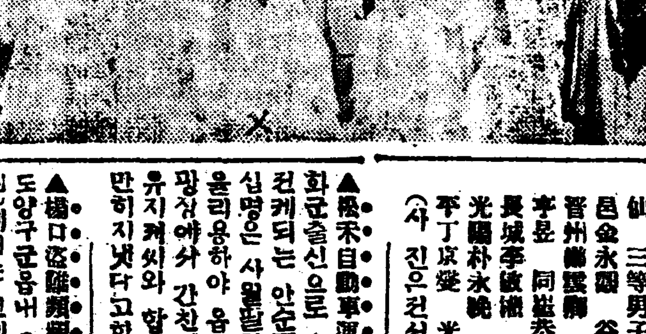
【統營】 조선청년총동맹통영청년동맹(朝鮮靑年總同盟統營靑年同盟)의 창립일주년긔념식을 지난이십칠일밤에 동회관에서 성대히거행하엿다함은 이미본보에 보도하엿거니와 그날밤그것은 사회운동단체의 창립긔념식인것만큼식순중(式順中)에 개회사를 비롯하야 연혁정세경과(沿革、情勢、經過)등보고와여흥(餘興)에속한 여러가지이의잇는연극과독창합창등을하엿는데 그가운데에 불온한언사가잇섯다하야 통영경찰서에서는 그다음에 긔록한청년네사람을 그악일인 이십구일 오후두시쯤하

관이 그것도불온하다는 리유로금지함에대하야『경관이 너무나몰상식(沒常識)하다』는말을하엿다하야 주영두(朱榮斗)라는청년을 경찰서일실에 종일토록감금(監禁)하엿다가그날밤중에석방하엿다

◇檢束된靑年 池守萬 金在守 朴正穆 朴相默

全朝鮮弓術大會

【長城】 긔보한전조선궁술대회(全朝鮮弓術大會)는지난이십삼일오전십일시에 전남장성군 장성면수산리군자정(全南長城郡長城面麓山里君子亭)에서사장(射長)김연하(金演夏)씨의지휘아래각군



대표자의 협의로써 동오후일시에 삼인투각소리는 반공중을향하야 삼입한록을발전고 인파는사정을 에워싸고 묘기들의경아한 지화자소리속에서 일회권아시작되야 제일일에는 이회권을맛쳣고 익일이십사일에는 오권십일시부터 긔술적 백열전이되여 다음과가튼 성적으로동오후두시 십분에상품수여가잇슨후폐회하엿다고한다

一等男子光州崔俊永 女子光州李錦湖 二等男子順天崔承仙 三等男子長城朴鍾洙 井邑金永興 谷城金在今 女子晉州趙玉雪 四等男子光州崔孝昆 同崔泰淳 井邑韓濟敎 長城李錫根 五等井邑金在國 光陽朴永鉉 興德金大鉉 南平丁京燮 光州林鋼南 (사진은궁술대회입상자)

注目되는그들處置

面長書記가協同하야 住民財産을騙取

虛僞戶稅告知書까지發付 모든장려비는례사로횡령소모

【順天】 전남순천군 황전면(全南順天郡黃田面)에서는면장서긔(面長書記)등이공모하고여러가지의 부정한사실이 폭로되엿다하야 멧칠전 수십명의면민들이면사무소로쇄도하여일대풍파를일으키는한편일반의원성과비난이 자못고조되엿슬뿐아니라 면민대표로 조봉모(趙奉模)씨외십이명은 문제인 면장강모와서긔신모의 부정사실을 렬거하여가지고 지난오월이십칠일부로 남도지사와 산업부장에게 탄원서를제출한 사실이 잇다이제그탄원서의 요지를듯건대 소화삼년도에 권긔면장서긔등 공모로동면 비촌리(飛村里)리민 사십여명에게 허위로 이긔분호세고지서를 발부하야 거액의금전을편취(騙取)하엿든것을 필두로금춘에 이르러채종답비(採種畓費)사백삽십원을 증수한후이것을 민간에보급치안는동시에 허위문서만을 작성하엿다가 도칭파견원에 출장원을 괴만한것으로부터 면민은면유림비(面有林費)로 오백륙십원이라는거액을 부당하나 여하히 처치하는지를 모른다는것이며 면장등은 동면윤모(尹某)와 공모하고 동일인증명을 내어주어 윤필지(尹必之)의처(妻) 소유토지 십륙두락을매도하야 취로하엿슴과 동면 황학리(黃鶴里) 김모(金某)에게 동일한 수단으로 소유토지 십일두락을 협잡한사실이며 동면봉덕리(鳳德里) 조모(趙某)에게 조광례(趙光禮)의 토지를사과한 사건이며 면장등은 자긔의 친족에 쌀도면창고에 너허둔 석유(石油)한동이를 도용(盜用)한것과 작년에 군당국에서보조로 칭한 애대두(靑大豆)가나오면일반에게분배하야 농사를 개량할 당연할것임에 불구하고 면직원끼리만 우물쭈물하여 버린것과 국세조사비(國勢調査費)이백십오원에서 조사원들에게 정당히 지불할것도아니하고잔액칠십오원을엇더케하엿는지 모른다는것이며 이와가티 부정사건이 만흔만큼 면민들은 어데까지든지 부정면직원들을 숙청키를 결심하고 면직원들의 장래처치를 주목중이라한다

作權剝奪코毆打

被害者告訴提起 회세의악덕소지주

【水原】 진위군(振威郡)내에 땅을예고또한 반항하엿다는구실로함부로 소작인을 갈리한적은지주(小地主)가 잇다 그사실을드러보면 진위군송탄면 이충리(振威郡松炭面二忠里)에사는 최모(崔某)가 칠팔년전부터 잣골윤씨(尹氏)의 땅을 소작하든바 근일에는 동면가재리(佳才里) 리모(李某)에게그땅이팔려넘어가게되매 권리새로된 소지주리모는땅을떼여서지긔사촌에게 리작식힘으로 최씨가너무도 분개하여 지난서정리(西井里)장날에 리모를만나서요사이못자리를다하엿고또이앙(移秧)시긔가되엿스니금년이나소작하는것이 엇더냐고하엿든바그것조차안된다고하여 자연말썽이 되다가최씨는 함부로 흉부(胸部)를마저서 곳수원동화의원(水原東華醫院)에 입원치료중인데늑골(肋骨) 두개가 부러젓다하며 분개한 최씨는 소지주리(李)를상대로재판소에고소하엿다는바장래가 주목시된다고한다

於之屯水組反對會

反對長文打電

각관계요로인물에게 設置不必要를力說

【沙院里】 어지둔수리조합(於之屯水利組合)의설립을 반대하기위하야 지주대표최태봉(崔泰鳳)씨외오인이 지난이십칠일에 도지사를 방문하려갓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마침지사는 출장중임으로 맛나지못하고 내무부장을 회견하고 약사시간동안이나 반대에대한이야기가 어우러젓섯다는데 동씨는 이십구일 오전십시경에 도라와서 삼십일 사리원에 체무대신과 현도동총독에게와 총독부중촌토지개량부장(中村土地改良部長)들에게 장문의 반대전보를 발하엿다는데 전문은아래와갓다

昨今新聞報道와가티朝鮮土地改良計劃을根本的으로變更한은朝鮮農民의日鮮人을勿論하고懇切히要望하든것이요實로閣下의御盡力의賜物이라고信합니다 願컨대目下創立中의於之屯水利組合은여러가지特殊事情에鑑하야設立하지아니하기를渴望함

▲亭山夜學院紀念 【成悅】 전북익산군함열면정자리김정권군은(全北益山郡咸悅面亭子里金貞權君)동리 무산아동의 문맹을 유감으로 역이고이년전에정산야학원을 세워아동의 문맹퇴치에 열렬히 노력한결과모도가

地方時論

宣川의將來

中國商人의對策은如何?

宣川支局 李泰建

(規定=八十行以內로支局長責任印이必要함)

우리宣川市街의 朝鮮사람商業界는 날마다뒷거름을치는狀態인바 그原因은那邊에잇슬가? 宣川商界의昨今을比較해보건대 距今六七年前에는 宣川邑內朝鮮사람의商業戶數가 二百四十餘戶이엿고 中國人의商業戶數가十戶未滿이엿섯는테오는에잇서서는 朝鮮人의商業戶數가二百二十六戶 中國人의商業戶數가十七戶인즉 그동안朝鮮人의戶數는 十四戶가줄엇고 中國商人은 七戶以上이增加된터이다 벌어서最近의商業發展方向이 그어되로轉換되는가하는것을살피면 뭇지안어도中國商人은繁昌해지고 朝鮮商人은 작고쓸쓸한客氣에· 헤매고잇다는것을짐작할수잇다

◇

그러나商業發展에對한客觀的條件을따저볼때 朝鮮商人側은 原來多少라도不利한條件이잇고中國商人側은多少라도有利한무엇이잇섯든가? 안이다이點은오히려朝鮮商人側이 훨신有利한터이니 朝鮮商人으로말하면이곳에 오래土着해내려온主人公으로 近村의親戚知舊가만은만큼 顧客도만흔터이며商店의位置가 重要地帶를차지한만큼어되로보든지 有利한터이요 中國商人으로말하면 以上諸條件에서到底히 朝鮮商人을따를수업는것이다 뿐만안이라資本에잇서서도 朝鮮商人은相當한資本에豊富한物貨를 去來하나 中國商人들은 조고만한貿易에所謂物貨다하드래도 몬아풀호초대조호도등과 유향발방울등을버려노와 貧弱하기짝업는배안이라?

◇

그러면 以上의諸條件으로보아 朝鮮商人側이훨신有利한테不拘하고 날로中國商人의侵入을當함은 그무슨까닭인가? 이에對한責任은 勿論商路當事者들의營業方針如何에도 잇겟지만日用物貨를 購買消費하는 一般市民에게도 뭇지안을수업다 이제一例를드러말하면 一般消費者側의心理가現金을가지고現金이업서서外上이必要할어수그러한中國商人의店舖를차지는배라면 쭉벗쭉벗朝鮮人의店舖를차자드는바 그理由는엇더한가? 中國人商店은 一定한價格을嚴守하기에잇서 恒常웨누리를하야 顧客보다는 面조케落價를하는바 어리석은 消費者들은朝鮮人商店보다우엇이엉성하게販賣할뿐이고(其實은 오히려빗싼배가 만치만) 이리로만몰녀드는것이다 그리하야 계법有識階級이라고 自處하는 사람들도 이곳을 차드는터이니 얼마나寒心하랴

◇

以上을簡單한말로表現하면結局똑맛찬가지 十錢짜리라도 朝鮮商人은 처음부터十錢을불러十錢에팔고 中國商人은十五錢이나十二、三錢을불럿다가생색내는체하고 十錢에엇거파는데 一般消費者의心理가불린다는것이다 장날가튼때 村에서모여드는婦女子들이 中國商人의巧妙한이手段에 그얼마나속는것이랴? 이에反하야中國勞働者들은 비록단돈一錢짜리物件을살때라도 반드시自國商人의것을買入하는데比하면 우리로서뭇업는못그러옴을 禁치못할것이다 宣川商界의不振을도리어보며이點에對하야 一般住民의反省을特히바라는바이다

蔚山砂防工事着手

貧民救濟事業으로

삼년간계속사업으로진행할려 所要人員五萬餘名

【蔚山】 경남울산군에서는울산면태화강(蔚山面太和江)과하상면동천(下廂面東川)의상류는 년년이 비가올써마다 산이문어커모래는 하류로밀리어 강은차차로맥히게되고 홍수의 넘치는것은그도를 가하야 피해가적지안홈으로 속히사방공사를 시행하지아니하면 아니된다는 여론이만흘뿐만 아니라 한편농촌의피폐로 말미암아 구제를요할빈민이부지긔수입으로 이번에는도지방비(道地方費)의보조를어더지난 이십일일부터 권긔량처의상류에 사방공사를 착수하엿다는데 총공사는 삼년간계속하기로되엿스나 우선일년간의 공사비만이 삼만사천여원(순로동임금) 이오사용할인부수는오만이천이백여명에 달한다하며 이번공사는 특히관의직영으로로동임금은하로 평균 륙십전이되는데 후일을 위하야한사람에 오전식을강제적으로 저축케 한다고한다

▲水泳乞兒溺死=【順天】 지난이십사일 오후두시경 전남순천

▲松禾自動車運轉手親睦會 【松禾】 송화군출신으로 운전대에안저운전케되는 안순경(安順慶)씨외 십명은 사월팔일 불도의대축일을리용하야 읍내사직공원 천연광장에서 간친회를 베풀고읍내유지제씨와 합력하야 일열을원만히지냇다고한다

▲楊口盜賊頻頻 【楊口】 강원도양구군읍내(江原道楊口郡邑內)에서는 권에잘볼수업는도난사건이 작년가을부터 자주잇게됨을딸아 지난십구일밤 열두시경에는 읍내시장가로변에 잇는양흥상점(楊興商店)의 화방잇들을맛고 드려와서 현금륙십삼원칠십전든 수제금고(手提金庫)두개를절취하여간 사건이잇는 익일인이십일아침에와서 부근에잇는상전(桑田)에서파상된금고두개를 발견하엿다하며 이급보를 접한경찰당국에서는 불철주야하고 백방으로 수사중이나 아즉단서를 엇지못한모양이며 권긔도난사건이 발생된이후로 상민측에서는 밤이되면버개를곱피하지못하는현상이라한다

地方人事

▲尹秉羲氏(金浦郡郡內面長)金浦京城間自働車競爭線反對陳情次로去二十九日上京 ▲申錫永氏(金浦郡陽村面長) ▲海野太一郞氏(金浦繁榮會長) ▲李朝國氏(金浦郡郡內面協議員) ▲支秉運氏(金浦郡高村面協議員) ▲朝村楠樹氏(金浦郵便所長) ▲井上文治氏(陽谷郵便所長) ▲朴一陽氏(金浦郡內面有志) ▲趙寬榮氏(金浦郡高村面有志) ▲李敎鼎氏(本報金浦支局長) 以上全部同上 ▲金昌煥氏(平壤各組合聯合會長) 三十日午前七時發車로鎭南浦市民大運動會에寄贈할銀컵을가지고出發 ▲張元一氏(同常務)同上 ▲安昌鉉氏(同會計)同上 ▲郭斗榮氏(同常務)同上

朝鮮中國聯合蹴球大會

時日 六月十三、十四兩日

場所 新義州高普校運動場

申請期日 六月九日限(加入金不要)

申請場所 朝鮮日報新義州支局

一二等 優勝旗、其他副賞品

主催 朝鮮日報新義州支局

後援 中華民國新義州領事館

社告

本報星州支局을左記와如히設置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시압 位置 星州邑內 名稱 星州支局 支局長 朴海星 朝鮮日報社 白

本報麗水支局을左記와如히設置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시압 位置 麗水邑東町 名稱 麗水支局 支局長 尹善周 朝鮮日報社 白

本支局에서左記와如히局員을任命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시압 記者 朱元濟 記者 姜斗鉉 朝鮮日報麗水支局 白

本報南部支局을左記와如히設置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시압 位置 西氷庫 電話龍山七一二 名稱 南部支局 支局長 殷熙元 朝鮮日報社 白

本支局에서左記와如히局員을任命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시압 記者 尹龍 記者 殷熙元 朝鮮日報南部支局 白

本報熙川支局을左記와如히設置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시압 位置 熙川郡邑上洞 名稱 熙川支局 支局長 李秀榮 朝鮮日報社 白

本支局에서左記와如히局員을任命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시압 總務兼記者 金己得 記者 金秉甫 寫眞班 洪錫周 朝鮮日報熙川支局 白

本支局에서左記와如히局員을任命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시압 記者 韓小州 朝鮮日報溫井支局 白

本支局에서左記와如히局員을任命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시압 記者 千在泳 朝鮮日報支局 白

本支局에서左記와如히局員을任命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시압 寫眞班記者 金炯煥 朝鮮日報支局 白

本報善山支局을左記와如히變更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시압 位置 京釜線龜尾驛前 名稱 善山支局 支局長 金雨東 朝鮮日報社 白

本支局에서左記와如히局員을任命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시압 總務兼記者 金轍東 朝鮮日報善山支局 白

本報漆原分局을支局으로昇格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西朝鮮視察團募集

一、目的 西鮮의風物觀光、古蹟見學、商工視察

二、日程 六月十九日午後五時天安邑集合 同日開城視察、朴淵宿 六月二十日午前六時天安驛出發 六月二十一日平壤着 六月二十二日午後十一時平壤驛出發、二十三日朝天安歸

三、定員 二十人以上

四、旅費 二十圓

五、申請期日 六月十五日外지(但旅費中五圓添付要)

主催 朝鮮日報天安支局

第二回南朝鮮個人庭球大會

時日 六月七日午前九時부터(雨天後週延期)

場所 進永公普코-트

會費 一組一圓(午飯提供)

主催 金海靑盟進永支部

後援 東亞、朝鮮兩支局

第一回女子大運動會

時日 六月七日午前九時부터

場所 馬山俱樂部運動場

會費 三十錢

主催 槿友馬山支會

後援 馬山靑年同盟 東亞 朝鮮兩支局

金剛山探勝團員募集

出發時日 六月十五日午後七時

期間 往復一十日

參加金 參拾圓

主催 光州

後援 朝鮮日報光州支局 東亞日報光州支局

責任者 李通鎬氏

授業料滯納三千名 未收總額이四千餘圓
泗川郡內各普通學校의統計 農村不況深刻의反映

【泗川】 경남사천군내에잇는 구개보통학교(普通學校)의 월사금체납자수가 삼사년전부터 현재까지 실로 삼천이백구십사명인데 체납금액은 사천사백팔십삼원이란 거액에 달한다 이원인은 전년에보기드문 재해와말못할불경기로 인하여 농촌의경제가피폐함을따러도모지수입이 잘안되는것이라한다 군당국에서는 별별대책을 강구하다가최후의수단으로 유월일일부로 전긔체납자의게 일제히 독촉장을발부하야 동월말일내로 전부수입이되도록할것이라한다

六月末內로안내면 差押斷行할方針
먹을것도업는이궁항에 泗川郡當局에서

별항보도와가티사천구개보통학교의수업료 사천육백팔십여원체납생삼천수백구십사명에유월일일부로 일제히 독촉장을발부하야 동월말일내로 체납월사금을 바치지안하는때에는 군당국에서는 최후수단을써서 극단적으로 일제히차압을 단행할방침이라는바 전긔체납생중에도 약간은여유가잇다고할지모르나거개가빈한한터임으로 이궁한때를당하야 현재먹을 식량조차결핍되어 아득한 보리가을만바라보고그날그날의 생활을 계속하는상태이라 이것을보아도 무산아동에한하여는월사금을면제함이 당연할것이 추측된다 하며수업료차압문제에대하여금후의사태가 매우주시되는바이며 각보교월사금미납액과인원별은아래와갓다

	◇滯納金額	滯納者人員
泗川公普	二、八六一、五〇	一、一三二名
三千浦普校	七三六、五〇	三七三名
昆陽普校	一九三、〇〇	三八六名
泗南普校	三三七、〇〇	[illegible]
昆明普校	一八三、〇〇	[illegible]
西浦普校	[illegible]	[illegible]
龍見普校	[illegible]	[illegible]
南陽普校	[illegible]	[illegible]
栮洞普校	[illegible]	[illegible]
計	四、四八三、〇〇	三、二九四名

趙德根을檢擧하고 金始津家宅再搜索
【刑事隊八方에活動】 行人의行色을監視

【端川】 지난구일미명부터단천경찰서(端川署)에서는아연긴장되여 일대검거를 시작한후혹은야밤 혹은재검거로 아직도검속자삼십여명이엄중한취조를밧고잇다함은 임이 보도한바니와 지난이십칠일경에또다시파도면송평리(波道面 松坪里) 조덕근(趙德根)을검거하고전일에수색한김시진(金始津)의가택을재수색하엿다하며 이십구일에 일으러서는 삼삼오오의 형사대가사방에 흐터저서 오고가는행인의신원까지 일일히 됴사하는등경계는 자못엄중하엿다는데 사건내용은 절대비밀에 붓침으로알길이업다

金萬聲再檢擧 姜某家宅搜索

별항보도한단천경찰서검거사건은 의연계속중인바 지난이십구일에는리중면창동리(利中面昌洞里) 강모(姜某)의집을단천서형사대가가서 엄밀히 수색하고동일오후열두시경에는일단석방되엿든단천농조원김만성(端川農組員金萬聲)도재차검속되엿다는데 검거가 시작된지가근일개월에 경계는 날로엄중하고검거의손은 쉬일사이업는 점으로보와서 그사건내용이 자못중대한듯하다고일반은추측하고잇다

大邱檄文事件 權徐兩氏出獄 지난삼십일에

【大邱】 작년구월경에부내각처에다격렬한 격문(檄文)을 천부하야 사회의이목을 놀래이든대구 격문사건의 권모(權某) 동서정수(徐丁洙)량씨는당시 대구경찰에 체포되여 대구지방법원(大邱地方法院)에넘기여팔개월징역을 밧고대구형무소(刑務所)에서복역하다가지난삼십일에만긔되여 만흔친우와 친척의옹영리에 출옥하엿는데 안색은창백하나 원긔는왕성하엿다

大邱醫講生 停學處分解除 지난삼십일부로

【大邱】 긔보=대구의학강습소(醫學講習所)들의건(嗣事)으로 승격운동문제로 말미아마 동강습소학생 일백륙십명은 일처로단결하야 경북도청에쇄도

……하야 도지사의면회를 강청하는동 총독부에 진정을하는동 승격운동에 매우분망하엿는데 동강습소측은 경성으로진정간 일반학생의대표 팔명에게대하야 교측위반(校則違反)이란 조건아래 단연히 무긔정학처분을 나리엿든바 학생측은 긴급히학생대회를여러 대책을강구하는한편 도립의원(道立醫院)원장과 면회하야 사정하는동 강습소당국에처분해제를 요구하엿든바 동강습소에서도 학생의태도가매우근신하는빗치 보인다는 명목하에 전긔팔명에게 지난삼십일부로 처분을해제케 하엿다한다

森林看守殺害犯 中和署에被捉되여
엄중한취조를밧고잇다

【平壤】 삼일전에중화군고생면묵정리(中和郡古生里墨城里) 편창조삼림간수인 (片倉組森林看視人) 리의영(李義泳)(三二)을참살한범인은 동리거주 박양수(朴揚壽)(三四)로판명되여일일중화서에서 체포되엿는데 범인은권귀편창조 림야에서 재목을도벌하든중 감시인에게 발각되여 『너를경찰에갓다 감옥에보낸다』는말을듯고 감옥에갈실때 참하리죽여버린다는 결심으로 독긔로리의영을 작살한후친형박희수(朴熙壽)와가티부근밧가운데시체를차넛코삼림속에숨어잇다가체포된것이라한다

梁山農補校 九月에開校 設立委員改選으로

【梁山】 량산농업보습학교설립을위하야 금년이월에 위원을선정하고 설립비로상무계(商務契)돈을리용하려다가 계원일동의반대로 여의치못하야 침체한상태에잇다가 지난달 이십일량산군(梁山郡)당국은농보교(農補校)문제를 주제로삼고 면장회의와 동시에 각면유력자를소집하야 동교설립에 대한의론을 전개식혓다는데 당일에모인 유력자등이 상무계돈을전간부들이 허락한더로 지금에못쓰게됨은 전설립위원들의 무성의한것이라고 통매하고 전위원을 넘소하여버리고 다시 성의잇는자를 선거하여줄을 촉청식히자고하야 선거한결과 위원장김정표(委員長金正杓)씨로비롯하야 위원은각면장과 각면유력자일인식 십칠인이라는데 전위원들의 무잡지부성의를 질책한신입위원장금위원인난치만반의성의를 제공하야 무난히완공식힐것을 일반은긔대하고 잇다하며 일부에서는 동교를 신축하기보담 상서교리(上西校里)에 잇는 공보교(公普校)를 농보교(農補校)가 사용하고 동교는물금(勿禁)이건(移建)설까지잇섯다고하나 실현의 가망이업다고 고적구량산읍으로정하엿다고하며 설립비는 상무계가천원긔증할리라는것과량산면이천원이며 원은륙면(六面)이분배하야부담하엿다는데지금으로부터삼개월내에수입을완료식혀공사에착수

飢渴이迫頭한火田民 五日平均一名이餓死
奉化郡下의이悲慘한事實! 當局의救濟策如何

【奉化】 봉화군춘양면(奉化郡春陽面)황지천평부근은 산중이니만큼 한마지기도 확실한전지는업고 모다 화전(火田)을이르켜먹는 화전민들인데 작년에너무장마와 꼭풍으로 강냉이숙감자등을하나도먹게되지못하야 금춘에 먹을것이업서서 농사를지으랴도 배곱흠에 못이기여소나무가지를 석거먹다가 그것도쎄가느저 먹지못하고 나무열매와기타 사람이먹지못할것을 다먹다가 지금은 다시긔가느저 먹을것이업서서 근일은 오일평균한사람식굴머죽는다한다

京都遭難同胞 救濟會까지禁止
경도부경찰부의처치

【京都支局發信】 긔보한바와가티 지난오월이십륙일경도(京都)의대화재로말미암아십사오명의 조선동포가 뜻안이한조난(遭難)을 보게되여 그들을구제하기위하야 재류동포중 유지제씨가모히여 『경도화재조난동포구제회』(京都火災遭難同胞救濟會)를조직하엿든바 경도부(京都府)경찰부로 부터『일반민중을상대로 금품(金品)을모집함은 절대로불가하다』는리유로 지난이십팔일 재차교섭간 리수각(李秀珏) 김정규(金正奎)씨에게 대하야 긔어히금지를 통고하엿다고한다 이에대하야 구제회측에서는 유감천만으로 경도재류동포 각단체로하야금 활동케하되 송금(送金)방법은 각단체로부터리재(罹災)동포에게공평히분배되도록 하자고 결정하엿다는바 조난동족(同族)을위하야의의 잇는 구제회의활동을 경찰로부터 긔어히금지하엿슴을 일반은 매우비난한다고한다

六十老人慘死 소풀먹이려다가 황소에밧치여

【泗川】 사천군축동면길평리(祖洞吉坪里)거주하는 김순제(金順濟)(六〇)란 사람은 지난오월이십팔일 오후다섯시경에 자긔집에서 기르는 황소를풀고풀을뜻기로산야에갓는바 별안간에 황소가달여들어쌀도 함부로떠밧어서 온전신이 난자되여긔절된것을 일하든 사람이발견하고 각사업어다가 치료케하엿스나 익일새벽에 드듸여절명하엿다한다

北靑檄文事件 又復一名檢束
一部는釋放되여

【北靑】 지난이십칠일미명에 시내요소에××격문을산포한사건이잇섯다는데 그사건혐의로칠년십여명이검거되여엄중한취조를당하고잇다함은이미보도한바이어니와 그후대부분은 석방되고몃사람만두고취조중이든바 지난이십구일에 일으러 또북청읍동리(北靑邑東里) 리명호(李明浩)씨를 검속취조중이라한다

咸安李鉉培氏特志

【咸安】 경남함안군 산인면(咸安郡山仁面)일대는작년의 한재의 영향으로면민의 생활상태는극도로 곤궁한중에 빠저잇서면민들은 먹을길수업는 처지에잇는터인데 더욱히납세긔를 당하여빈민들은 엇지할줄을 몰으든바이엿다 이를본동면 면장리현배(李鉉培)씨는극빈민인동면입곡리(入谷里)사십삼호의빈민을위시하야 면내이백륙십구호에 월월금 칠여원의 호세를 자긔의개인으로 희생하여가며 대납하엿다는데 일반은 그의미거를칭송하며 이미납부한 빈민은매호에 삼십전식을 차저가기를바란다 한다

京都又復火災 同胞工場燒失
【原因未詳、損害十餘萬圓】

【京都支局發信】 지난오월이십칠일 오전한시에 경도시임생삼정(京都市壬生森町)에잇는동포 김재복(金載福)씨의 경영인 우선증업권문송옥공장(友禪蒸業松屋工場)에서 돌연발화(發火)되야 그공장은 물론이요 그부근의공장 주택합 십여호가 연소되엿는바 그원인은 아즉도 미상하다하며 전피해액은 십여만원의 거액에 달하엿다고하는데 소관경찰서에서는 발화당시에 곳공장주김재복씨를 돌연검속하야갓스나 그리유는 아즉발표하지안는모양이다

延日郡屬取調 公金橫領關聯인듯

【大邱】 경북연일군청(慶北延日郡廳)에 군속으로잇는김준희(金俊熙)는 이십팔일밤에 돌연히 포항서(浦項署)에 인치되여 엄중한취조를 밧는중이라는데 탐문한바에의하면 금년봄에 발각된 동군횡서긔로서 어업세(漁業稅)기타 공금(公金) 칠천원소비사건(消費事件) 무게의 주인공인 오응삼(吳應三)과 공모관련된 혐의인듯하다 한다

青盟紀念式으로 다시青年檢束 통영서에서

【統營】 지난이십팔일밤에통영청년동맹창립일주년긔념식을 동회관에서 거행하엿는바 그내용이 불온하다하야 그의일인 이십구일에 동 동맹간부네칭년을 당지경찰이검속하엿다함은임이 보도하엿거니와 그후 지난삼십일에다시손이형헤귀긔념식에 연극합창독창에참가한칭년남녀들에까지들 소환하야 국비빌리에서밤이늣도록까지취조를한후 일부는검속하고일부는석방하엿다

商業失敗코悲觀 飮毒自殺한青年
지난삼십일안주읍에서

【安州】 지난삼십일오전아홉시경에야 평남안주읍남천리(平南安州邑南川里) 오십삼번지에 사는김병호(金炳浩)(三〇)는자긔집에서 최면제(催眠劑)를 만히먹고자살하얏다 이제 그의죽은원인을 조사한바에의하면 그는본래 상당한자본으로 장사를경영하던바 의외의 대재변도인하야 금천을일조에파산하고 지남지북으로 방랑의길을것다가일마전에 고향에왓스나 원수의돈이업슴으로 가정의 환경과모든것이 전혀비관뿐이라고 매일술로지나든바 그와가티 삼십세를일긔로 한많흔세상을 떠나고만것이라한다

天氣豫報 晴一時曇

一日京城測候所發表 高氣壓은支那北部와日本東方海上에擴大되고日本海에는低氣壓이잇다全朝鮮天氣良好하며昨日處處에小雨가잇다明日은天氣良好

昨日溫度 高二十四度六 低一二度一

忠武公遺跡保存會에 有志誠金遝至
今日同事務所收入金

一金五圓也 京城 金容起
一金貳圓也 全南求禮 黃巖顯宗中

金壹圓 李浩然 / 金壹圓 柳廷烈 / 金一圓 鄭萬朝 / 金一圓 兪鎭贊 / 金一圓 李大榮 / 金一圓 金完鎭 / 五十錢 鄭喆永 / 三十錢 朴時陽 / 二十錢 朴初陽 / 金一圓 安寅植 / 五十錢 李東鵬 / 五十錢 河永洛 / 三十錢 崔嵩熙 / 三十錢 張炳晩 / 三十錢 田海俊 / 金十錢 安永琦 / 金十錢 李泳珪 / 金十錢 鄭圭漢 / 金十錢 李昌基 / 二十錢 金熙曾 / 二十錢 李義八 / 金十錢 尹泳翰 / 金五錢 金容文 / 二十錢 趙世泳 / 二十錢 金興岩 / 二十錢 金昞鎬 / 金十錢 李重憲 / 金十錢 洪大善 / 二十錢 曹康鉉 / 金十錢 孫東昌 / 二十錢 柳興奭 / 金十錢 金用鋼 / 金十錢 白在道 / 金十錢 李東雨 / 金十錢 [illegible] / 金十錢 李[illegible]源

金十錢 趙星九 / 金十錢 金鍾國 / 金十錢 任熙宰 / 金十錢 金正會 / 金十錢 林直相 / 金十錢 韓鎭洙 / 金十錢 李昌慶 / 金十錢 鄭燦書 / 金十錢 朴燦錫 / 金十錢 崔性駿 / 金十錢 李洛雨 / 金十錢 鄭兌浩 / 金十錢 曹正道 / 金十錢 李伯淳 / 金十錢 李中根 / 金十錢 趙春植 / 金十錢 李湯熙 / 金十錢 李勳相 / 金十錢 獨孤律 / 金十錢 鄭羽錫 / 金十錢 金東豪 / 金十錢 劉永淑 / 金十錢 金知洋 / 金十錢 韓快鎬 / 金十錢 崔正植 / 金十錢 李聖鎬 / 金十錢 鄭寅淳 / 金十錢 許龍久 / 金十錢 朴性湖 / 金十錢 金啓昌
(以上全部京城槿學院員)

計 貳拾貳圓 六拾五錢也
累計 四百貳拾圓 九拾壹錢也

第二回全鮮中等學校武道大會

日時 六月六日(土)午後一時四十分
場所 新村延禧專門學校道場
武道種類 柔道 一校選手七人候補二人監督一人
主催 延禧專門學校 後援 朝鮮日報社

運動競技

實業聯盟野球 京電5 遞信1

京城實業野球聯盟 京電對遞信第二回戰은 三十一日午後一時三十五分 京城球場에서(球)高須(壘)西村 田代審判下에 京電先攻으로開始한바 京電은第一回第一打者西岡左前安打로나아가 中村의左中間三壘打로生還하고 小西의三遊間拔安打로中村生還하야 二點을先取하엿슴에對하야 遞信은同回裏一死後佐武中前安打二盜後 大島三遊間安打로三進하엿다가 岡崎中堅飛球로生還한後에는 得點치못하엿슴에反하야 京電은五回에一點 八回에二點을奪取한結果 五對一로快히雪辱하고午後三時五分에閉戰하다

京電 2 0 0 0 1 0 0 2 0=5
回數 一二三四五六七八九
遞信 1 0 0 0 0 0 0 0 0=1

京電			遞信	
7	西岡	35AB32	北山	1
4	中原	5R1	楠城	H
1	中村	11H4	淺野	6
8	熊谷	12B1	佐武	5
9	小西	23B1	大島	8
2	森崎	1SH0	岡崎	9
5	平山	3SB4	田岡	3
3	橋口	4SO7	網	PH
6	津島	3BD2	成澤	2
		1E0	濱水	7
			高野	1
			出島	4

殖銀4 鐵道2

京城實業野球聯盟 殖銀對鐵道決勝戰은 三十一日午後四時十分 京城球場에서(球)[illegible](壘)長曾我部 竹內審判下에 殖銀先攻으로開戰하야 第一回殖銀二死後 李藻敏左前安打로나아가二盜後 松本의左越二壘打로生還하야 李先의一點을先取하엿슴에對하야 同回裏鐵道는西村遊偏失로나아가 平井의犧打로二進하엿다가 三盜한다음에 永田의一越安打로生還하야 一對一의同點으로進行하다가 六回에殖銀鈴木二越『텍사스』로出하야 二盜後兩者凡退로二死되여餘望이업슬것갓더니 岩田右中間快打로鈴木生還後 交代한鐵道는 平井四球 永田犧打로二進投手『보크』으로三進後櫻井의遊左拔安打로生還하야 又復二對二의同點으로 白熱戰을演하면서補回戰에드러가 第十二回表殖銀小林二匍失로出하야 市村의犧打로二進後『펀취힛터-』高原의遊擊頭上을넘기는 適時安打로小林長驅生還하고 李藻敏의左中間拔의痛快한 三壘打로 高原生還하야運命을決할二點을奪取한다음에는 鐵道三者凡退한結果 殖銀은對鐵道戰에優勝하엿다

鐵道			殖銀	
4	西村	38AB15	梶山	4
3	平井	2R4	磯部	4
9	永田	3H8	高原	PH
2	瀨口	02B1	鈴木政	6
8	櫻井	03B1	李藻敏	72
7	白石	2SH1	松本	9
6	麻生	5SB4	岩田	3
5	關口	9SO7	池田	1
5	大根	4BD3	田代	2
1	西村春	3E3	鈴木忠	7
			小林	5
			市村	8

百米에新記錄【大阪電報】

三十日正午부터擧行한 第四回日本學生陸上競技選手權大會에서 東京文理科大學吉岡隆德君은百米決勝에十秒五의 日本新記錄과國際學生新記錄을지엇다

六大學野球리그 慶大4A 帝大2

慶帝第二回戰은 三十一日午後零時二十八分神宮球場에서(球)池田(壘)鐵村 淺澤審判下에帝大先攻으로開始하야 4A對二로慶大再勝하고 二時二十分에閉戰하다

▲뺏터리(慶)磯石——小川(帝)高橋——片桐

帝大 0 0 1 0 0 0 1 0 0=2
回數 一二三四五六七八九
慶大 0 0 1 0 2 0 1 0 0=4

早大6A 立敎1

早立第二回戰은 同日午後三時(球)三宅(壘)藤田 新田審判下에立敎先攻으로開始하야六A對一로早大雪辱하고 午後五時十六分에閉戰하다

▲뺏터리(早)伊達——三浦(立)菊谷 辻——宮崎 小笠原

立敎 0 0 0 0 1 0 0 0 0=1
回數 一二三四五六七八九
早大 0 0 1 0 3 0 0 2A=6

알라메다野球團 今朝入京 明日京電과第一戰

米國알라메다野球團一行은 朝鮮體育協會의招聘으로 一日朝八時五十分 京城驛着列車로入京하야 明日對京電試合을『홈』으로 四回의『게임』을行할터인데同野球團은 日本에到着한以來 十八勝八敗의好成績으로一行中强打者는마한1將을비롯하야『서빈』『갓비어』『화잇트』『커터』等으로서 日本에서十餘本의本壘打를처서賞讚을博하엿다

六大學全體會議서 審判辭表容認

【東京一日發電】 六大學리-그全體會議는 三十一日午後七時半 東京會館에서開會하고安部 平沼正副會長以下二十數氏出席하야 慶明戰紛擾로말미암어發端한審判員의 辭表取扱에對하야 協議한結果이를容認하고新審判制度가確立될때까지는試合當校에서協議하야審判을決定하기로決議한後同十時에散會하고引續하야 理事會에드러가十三四兩日早慶戰 入場券發行枚數는內野一萬八千外野三萬四枚中에서리-그校分配分을除한남어지一萬六千五百枚를一般에게發賣하기로決定하다

明大野球部에서 布哇遠征計劃

【東京一日發電】 應援團의暴行으로 出場謹愼中에잇는明大野球部에서는 士氣振興을爲하야布哇遠征을計劃中인데 一行은前監督岡田源三郎 講師松本瀧三氏以下約二十名으로서 來十八日橫濱出帆大洋丸으로 渡布하리라고 明大當局及體育會와交涉中이다

데비스盃南北米決勝 米國優勝

【와싱톤卅日發電】 데비스盃庭球南北『손』決勝 米對『알젠친』試合第三日單試合은 本日當地에서擧行하야 米國二勝하야結局五對零으로 米國優勝하야歐州『손』優勝者와對戰할資格을得하다

崔南善著 朝鮮歷史 ◆附錄 [illegible] 定價一圓 送料拾四錢

純朝鮮的立場에서純學理的方法으로써深究平說한朝鮮처음의民族生活及文化展開記錄으로空前收穫卷末에朝鮮民德의長短得失을剖檢한數千言長論은明快剴切・慷慨激昂하야우리의一大感奮을追請함

發行所 京城府鍾路六丁目十一 東明社 振替京城六六四番

緊縮의覇王 示時正確 實用時計

値下斷行 ◉絶對他店不可追從 獨逸製야클넉겔側十七型 特價參圓 瑞西製시린クロム側十六型 特價參圓 市價半額奉仕提供 (送料代金引換實費) 應酬 交換 中日兩國海關稅負擔하면서 正直信用本位 滿鮮洋行 中國安東縣三丁目五番 振替口座京城六五五番

京城府水標町(수표다리남쪽) 內科、性病科 神經、精神科 協和病院 醫師 楊奉根 電話光化門八三九番 入院簡便 問病歡迎

피부병退治 데-무水
◇殺菌作用으로 皮膚病의菌虫을殺滅하야압흐고、가려워氣分납분것을速히낫게함
◇消毒作用으로 患部의毒素를分解消滅식혀內攻치안코治癒됨
◇收斂作用으로 患部를健康組織으로復舊식혀速히낫소
◇滑澤作用으로 트는것을막고살결을부드럽게함
前記의四大特長은 데-무水만이가진最大의자랑이요
◎마른옴 ◎음부습신 ◎水虫◎덧낫데◎지무른데◎가려움◎吹出物◎어두럭이◎버즘◎癜風◎鱗癬◎濕疹◎腫物◎여드름◎죽은깨◎飛火◎입술헌데◎藥、漆의독◎霜傷、살거치는等皮膚病一切에써서◇쓰리나◇압흐나◇內攻치안코◇가렵지안코◇보기실치안코◇짓무른것을外맛시速히나음 ▲벼룩▲빈대毒虫의刺傷等皮膚病一切
데-무水 藥價 三十錢、五十錢、一圓、二圓、送料內地六錢
公國到處藥店에서販賣함、萬一品切時는代金添付하야左記發賣元에注文하면卽時送藥함
發賣元 東京市芝區田村町十八 電話芝一八七四番 振替東京六〇一〇〇番 東京藥院
大阪市赤十字病院前 電話南一二四六番 振替大阪五〇八二八番 東京藥院
模造品빈소 必이데-무水다指名하고사시요

小兒揶억 肝간 散산 此劑肝散은昌東醫院長前陸軍軍醫黑永錫先生의秘劑로 實地經驗數十年에 依한바 小兒의生命을救濟키爲하야 天下嬰兒界에普及하오니 諸位는잇고試用하시오 萬無一失의効能이有합니다 適應症 小兒肝氣(疳)、泄瀉、乳病、便秘、腹痛、吐乳、夜啼、驚風及一切食傷等

價格型錄進呈 醫療器械 京城長谷川町 高野製作所 振替京城一六〇四番 電本1226 611 (但病院醫師에限하야型錄進呈)

外科 肛門病科 醫學博士 朴昌薰 入院室各等獨房

當選謝禮 陽谷面會議員 河達潮 朴禽俊 李泳相 金元謨 吳昌煥 海雲面會議員 崔根柱 吳在練 瑞和面會議員一同

當選謝禮 北靑郡陽化面協議會員 李昇琬

當選謝禮 北靑郡陽化面協議會員 張學奎

當選謝禮 成悅面會議員 龍安面會議員 鶴浦面會議員 黃化順 全溶大 柳喆鎬 徐道錫 黃河宗 林泳鎬 金容賢 林炳烈

當選謝禮 北靑郡陽化面協議會員 金英周 周致學

當選謝禮 今般東萊邑會議員選擧에際하야不肖等으로서當選의榮譽를得케되옴에有權者諸位의厚意로謹히紙上으로謝禮하나이다 東萊邑議員 韓星洙 朴吉浩 金炯贇 金文奎 朴康洵 朴遇衡 李相泳

當選謝禮 北靑郡陽化面協議會員 李昇琬 / 北靑郡陽化面協議會員 張學奎 / 北靑郡陽化面協議會員 周治學

當選謝禮 今般陜川郡面協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諸位의厚誼를謝함 陜川面協議員 金孝珏 金性太 禹浙桓 金鍾崙 金相洙 金泰珉 徐廷基 姜寧淳

西面協議員 朴仁錫 任泰攸 李鍊宇 康之恒 南貴棡 黃琫柱 金基宗 張洵鎔 金瀰柱 金炳泳

雙岩面協議員 李根[illegible] 金周安 張基彥 南敬熙 南廷七 朴桂[illegible] 趙聖植

住岩面協議員 趙[illegible] 趙廷淳 趙圭斗 朴東出 裵炯基 申重模 許周殷

松光面協議員 朱完贊 林錫珍 金泰鶴 金昇杓 吳子鍊 朴炳猷

光陽郡玉谷面協議員 柳根秀

商工界의 對策觀

商工協會主催座談會記

地方手形의 割引範圍 擴張에 對하야

孫弘遠氏

저는 地方手形割引問題에 對하야 말할가 합니다 東一銀行 殖産銀行 山口銀行 第一銀行의 各銀行去來地가 잇는 곳에는 割引이 되지만은 去來地가 업는 곳에는 割引을 할 수 업습니다 그래서 殖産銀行 갓흔데는 金融組合과의 去來가 되기 때문에 殖産銀行에 去來하는 사람은 江原道 갓흔 各地에만 흣데더러 金融組合만 잇는 곳이면 手形도 金融組合에 割引을 할 수 잇스나 其他 東一銀行이나 漢城銀行 갓흔데에 去來하는 사람은 銀行의 去來地가 적으니만큼 手形의 割引의 範圍가 좁습니다 그러니 엇더케 銀行과 銀行사이와 銀行과 金融組合사이 等의 去來地를 늘리어 手形割引의 範圍를 擴張하엿스면 조흘가 합니다

그리고 朝鮮사람은 무엇을 營業할에 잇서서 自體에 對한 欠陷이 만습니다 外部의 缺陷도 업지 안치만은 內部의 缺陷이 만습니다 우리가 日本사람이나 中國사람에게 比하야 消費節約力이 매우 不足하며 또 技術에 잇서서도 不足함이 만습니다 忠淸道나 江原道 等의 南部地方에는 中國사람이 商權의 大部分을 占領하고 잇습니다 京城에도 綿布라던지 絹布의 都賣商이 朝鮮사람 中에도 멧 곳이 잇지만은 아직도 中國사람이 만히 占領하고 잇습니다 그 裡面을 살펴보면 中國사람은 信用잇는 사람 二三人式 連帶를 하야 手形도 割引해 쓰고 또 銀行에도 去來하는 故로 表面으로 個人으로 貧弱한 商店과 갓해 뵈임으로는 營業稅가 큰 것도 十分의 一밧게 아니 됩니다 또 朝鮮사람은 日本사람보다 生活方途가 費用이 만히 듭니다 朝鮮사람으로 銀行 借手나 헤여 노흐며 營業을 좀 낫게 한다는 사람을 보면 그의 家族親戚 等이 七八十名이나 붓허 삽니다 아모리 큰 商業家라도 엇더한 바람만 불면 곳 沒落하기가 쉬운 것은 事實인즉 外部보다 內部를 먼저 整理함이 必要가 잇습니다 그리고 金融에 對하야는 우리도 엇더한 方法으로던지 信用으로 連帶를 하여서 로서로 도와 나가는 것이 必要할가 합니다

營業稅及自轉車稅 撤廢에 對하야

尹宇植氏

저는 營業稅撤廢와 自轉車稅撤廢問題에 對하야 좀 말슴하려 함니다 이 두 問題中에 自轉車稅撤廢는 엇더한지 알 수 업스나 營業稅撤廢는 잘될 것 갓지 안습니다 그래서 營業稅는 撤廢라고 하느니보다 稅率을 減下하자는 것이 조흘가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갓치 稅金이란 한 나라를 維營하는 데 잇서 밧어드리는 徵收金인데 그 中에는 營業稅가 한 重要한 한 가지가 될 줄로 압니다 日本에는 營業稅가 업다고 하나 營業收益稅가 잇습니다 이것이 卽 朝鮮의 營業稅와 갓습니다 營業稅 營業稅附加稅 特別營業稅가 잇습니다 이것을 撤廢한다는 것은 重要한 問題올시다 稅金을 撤廢하거나 新稅金을 設定 않은 日本서도 政黨의 重大政策으로 되여잇습니다 그럼으로 이와 갓흔 問題는 廣汎합니다 나는 한便으로는 營業에 關係하는 니만큼 營業稅를 減下할 必要가 잇지 안흘가 합니다 昭和二年度부터 朝鮮에 이 營業稅라는 것을 徵收하게 되엿는데 그 前에 國稅營業稅라고 밧든 것이 올시다 그에 對하야 不公平하게 生覺하는 것은 稅金이 製造業者보다 都賣業者가 빗싸고 都賣業者보다 小賣業者가 빗싼 것 그것입니다 京城으로 말하면 生産都市가 아니요 消費都市가 되여서 小賣業者가 만흡니다만 小賣業者의 利率을 낫추는 것이 商工業을 助長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다음에 自轉車로 말하면 이것을 徵收한다는 것은 理由가 닷지 안습니다 日本에서 自轉車稅를 밧기 때문에 朝鮮에서도 밧게 된 것인데 日本에서 그 前에 自轉車를 只今의 自動車나 飛行機갓치 奢侈品으로 生覺하야 稅金을 밧게 되던 것이 오늘날은 普遍的 使用物이 되엿스나 亦是 밧게 되엿습니다 그러나 더욱이 朝鮮에서는 鐵道가 普及되지 못하야 交通이 不便한 故로 商工人의 必要品으로 되여잇습니다 그러함으로 이 稅金이 都市의 商工業이나 農村의 農業發達을 妨害하는 便이 만습니다 그럼으로 撤廢하는 것이 可能性이 잇는 것이며 撤廢하는 것이 同時에 何等의 矛盾이 업슬 것 갓습니다 그리하야 우리 社會에서 營業稅 三種을 減下하고 自轉車稅金은 撤廢하는 것이 우리 商工業의 助長上 必要하지 아니할가 하는 平素의 生覺을 말하는 것임니다

産米資金計劃變更 近間具體案公表

最終目標에는 變更업다고 結局年限延長乎

産米增殖計劃의 再檢討에 關하야 一部에서는 計劃의 縮少變革을 傳하고 잇는 바 右에 對하야 土地改良部及殖産局의 意嚮을 綜合하면 大體 左와 如함으로 計劃의 實體 卽 産米增殖最終의 目標인 産米 八百十六萬石의 增殖에는 何等 抵觸하지 아니하기로 되여잇다 卽 農事改良方面에서는 計劃當初의 昭和元年頃의 狀況으로 하면 肥料는 大豆粕 本位로 立案된 것이 最近에는 價格에 잇서서 거의 半額 以下의 流安이 供給되야잇고 또 農具耕牛도 計劃當時에 比하면 만히 低落되얏다 따라서 資金關係로도 그만큼 餘裕를 生하는 것은 必然의 結果로 되는 一方 土地改良方面에 在하야서도 計劃施行當時의 計劃業績보다는 거거해마다 後年度에 累를 及하야 現在에 五年度末에는 計劃面에 比하야 約 六千町步의 施行이 遲延되여잇는 實狀일 뿐아니라 他方 勞銀의 低落에 依하야 土改資金의 運用은 日常 餘裕綽綽한 結果를 招來하야 當局은 資金의 消化難에 苦慮하는 實情이다 따라서 資金의 消化難은 農改土改兩方面도 相當히 머리를 써히는 勢인바 此가 드되여 今年度에 資金의 新規增加 中止로 되여 融資計劃變更의 必要를 痛感하기에 至한 것이다

勿論 右 資金計劃의 變改에 依하야 三十五萬町步의 耕地改良에 影響이 잇는 것이 아니고 又 增産 八百萬石에 影響이 잇지 아니한 모양인데 此에 對하야 土地改良部에서도 一部의 誤解를 避하기 爲하야 다시 具體案을 作成하는 同時에 近日中 公表하기로 되여잇다

私鐵懇談會 協議事項

及希望事項

廿八日에 開催된 私鐵懇談會는 正午에 休憩하고 午後 二時부터 再會한바 會議의 協議事項及各社希望事項의 內容等은 左와 如하다

▲協議事項

一、運輸施設에 關한 事項

(一)旅客賃率 其他 輸送施設

(二)貨物賃率 其他 輸送施設

二、附帶事業及兼業에 關한 事項

三、經費의 節約에 關한 事項

四、他交通機關(自動車船舶)과의 關係

▲各社希望事項

一、陸上交通機關統制의 件(各社)

二、自動車交通事業法을 朝鮮에 施行하야 貨客及自家用自動車取締에 關한 法令制定의 件(各社)

三、私設鐵道의 交通系統을 統一하야 補助費豫算의 活用에 依한 各私設鐵道의 振興을 發揮케 할 件(南朝鮮)

四、全州鳥致院間線路를 官私의 何에든지 依하야 敷設하고 順天麗水間線路의 效用을 發揮케 할 件(南朝鮮)

五、新設道路는 鐵道를 中心으로 計劃하고 又 旣設道路도 鐵道에 連絡하도록 施行의 件(各社)……內務關係

六、鐵道沿線에 漁港新設의 件(京南)……殖産關係

七、麗水港防波堤國費築造速成의 件(南朝鮮)……內務關係

八、鐵道沿線에 有力한 金融機關設置의 件(京南)……財産關係

九、麗水下關間航路의 補助及郵便物搭載에 關한 件(南朝鮮)……遞信關係

一〇、線路障害防止의 件(各社)……警務關係

十一、私鐵現業從事員을 官憲에서 召喚取調時에는 現業勤務의 形便을 考慮케 할 件(朝鮮金剛山)……警務關係

一、附帶事業及兼業에 關한 事項

私鐵沿線에 鐵道收入을 增加할 有利한 事業이 잇스면 可及的 此를 私鐵에 簡易히 認可하고 또 低利資金의 斡旋도 求하고 십흔 것(京南)

二、鐵道事業과 密接한 關係가 잇고 또 私鐵의 振興에 資함이 重大한 兼業에 對하야 鐵道同樣 補助를 하도록 補助法改正의 件(各社)

三、和順炭坑其他資源開發에 關하야 低利資金의 供給及兼業으로의 補助下附의 件(南朝鮮)

一、經費節約에 關한 事項

一、鐵道業에 所得稅를 免除할 件(各社)……財務關係

二、私設鐵道에 對하야 地方稅를 賦課치 안케 할 件(南朝鮮)……財務關係

三、他交通機關과의 關係事項

一、鐵道와의 併行自動車를 絶對로 認可치 안을 件(京南)……警務關係

二、現在許可된 併行自動車는 相當한 期間을 有하야 營業權의 消滅期를 附할 件(京南)……警務關係

其 他

一、私設鐵道補助法의 改正(各社) 補助年限의 延長及補助金의 增額

二、私設鐵道補助率年八步를 本位로 하야 會社收益의 一部를 增加할 수 잇도록 補助法改正의 件(南朝鮮)

貯銀利下는 六月中에 實施

貸出도 同時에 利下

朝鮮貯蓄銀行의 各種預金利下에 對하야는 京城, 仁川, 釜山을 除한 各地組合銀行이 金融組合과의 協定關係上 金融組合이 利下를 斷行치 안어 오는 아즉 利下를 斷行치 안코 홈으로 아즉 利下를 斷行치 안엇는 今日 外지 그 進行을 보고 잇는바 畢竟 利下로 決定하고 金融組合 各銀行等의 如何에 不係하고 貯蓄獨立의 立場으로 利下하기로 調査中인바 利下의 方針은 殖産積金에는 觸치 안코 定期特約据置 各 五分八厘에 對하야 三分乃至五分을 引下하며 甲乙兩銀의 間으로 하는 모양이다 또 右 預金引下와 同時에 貸出利率도 殖産積金에 對한 貸出을 除하고 一率로 引下하야 調査完了되는 대로 六月中旬부터 實施할 모양이다

京取今期業績

二分配當豫想

京取市場에서는 來六月三日頃에 重役會를 開하고 今期決算事項에 對하야 協議한 後에 配當與否를 決定할 터인데 今期業績은 手數料收入 四萬三千六百餘圓(前期보다 一萬九千七百餘圓增) 代引日步 其他의 雜收入 二萬餘圓 合計 六萬三千六百餘圓이다 支出은 極度의 節約을 行하야 仲買人手數料의 戾等이 잇고 合計 約 四萬八千餘圓 差引純金 一萬五千六百餘圓이다 其內 諸積立을 除하고 株主配當 二分(一萬二千圓)은 可能하니 結局 重役會에서는 二分配當으로 決定하려는 모양이다

朝運株主總會

合同決定은 懇談會에서

朝鮮運送第一回定時株主總會는 卅一日午後二時四十分부터 鐵道局構內食堂에서

本人 二六四名 三三、〇二株

委任 一二九 五、三〇三

計 三九三 三八、三六五

의 出席으로 河內議長司會下에 開催되얏다

一、營業報告貸借對照表財産目錄及損益計算書承認의 件

二、利益金處分의 件

當期利益金 一四、二七八圓

內

法定積立金 一、〇〇〇

別途積立金 三、〇〇〇

後期繰越金 一〇、二七八

右 異議업시 可決한 後

三、鮮內⑵其他運送店과 合同의 件

을 上程하야 本案은 協議事項으로 懇談會에 移하고 左와 如히 決定하얏스니 七時廿分에 散會하얏다

(가)主義로 合同을 承認할 것

(나)合同條件細目協定에 關하야 役員에게 建議하고 又는 役員의 諮問에 應하기 爲하야 廿一名의 委員을 選任할 것 委員은 直轄店所長主任인 株主從業員中에 株主會員인 株主에게 各七名

朝運各種의 會合

從業員問題協議

朝鮮運送會社 各支店長 出張所長 相談役은 三十日午後一時부터 京城驛樓上에서 會合하야 從業員擁護問題에 對하야 協議하얏다 丸星會正副會長은 會議를 同二時부터 開催하고 從業員擁護 丸星聯合會設立에 對하야 協議하얏다

朝運從業員

從業員擁護陳情

朝運直轄店 四十三個所의 從業員代表委員은 二十八日 本町松葉亭에서 會合하고 非合同合流後의 現從業員의 權利擁護問題에 對하야 協議한 結果 無業者京城仁川從業員大會에서 決議한 從業員擁護를 目的으로 한 三個條를 承認하고 二十五名의 實行委員을 選任하야 目的

市場去來牛 二百萬頭

一個年間數字

朝鮮內의 朝鮮牛의 賣買는 普通牛市場에서 行하는데 이 市場으로서는 一般市場과 갓치 오래前부터 開設되야 地方에 依하야는 月三回乃至六回의 開市가 잇다 此等牛를 賣하려 할 農民은 市日을 待하야 市場에 牽出하고 買하려 하는 者도 또한 此에 集合하야 去來할 것이다 牛商는 順次轉轉하야 市場을 도러다니고 又 市場에는 居間이라는 仲介人이 잇서 賣買兩者間을 斡旋하는 習慣이 잇슴으로 現在牛市場의 仲介는 거의 各道의 畜産同業組合이라고 잇다 現在의 牛市場數는 全朝鮮을 通하야 約 七百餘 一個年의 出頭數 二百萬頭以上이다 其賣買數는 約 五十萬頭以上에 達하는 現狀이다

六月末에 決定

煙草直營官制

專賣局의 煙草直營에 伴한 官制는 今週中 閣議에 決定될터인데 任用令에 關한 一部는 樞府의 諮詢을 要함으로 全部의 決定은 六月末頃일 듯하다

五月中의 滿粟輸入不振

五月中 安東經由로 朝鮮內에 輸入된 滿洲粟은 一萬八千二百四十噸이니 前年同月에 比하야 約半減의 不振이다 右는 産地는 在貨가 頗히 豊富하나 朝鮮內 豊作으로 極端의 米價低로 到底히 粟輸入의 餘地가 업는 듯하다 船便에 依하는 仁川方面에도 輸入된 것이 큰 數量은 아니라 한다

煙草在庫高

全朝鮮의 煙草販賣官署는 二十一個所이다 最近 專賣局에서 調査한 今年三月末現在의 各官署의 在庫煙草는 京城支局管內 口付品 九百三十梱 兩切品 七千五百八十梱 細刻三百餘梱 荒刻品 二萬九千三百餘梱 全州支局 口付 四百七十梱 兩切 四千九百七十梱 細刻 四十梱 荒刻 一萬四千梱 大邱支局 口付 三千百八十梱 兩切 三千六百八十餘梱 細刻 八十梱 荒刻 三萬三千七百六十梱 又 平壤支局管內 口付 四百九十餘梱 兩切品 一萬一千七十餘梱 細刻 六十梱 荒刻 一萬二千四十梱 合計 十二萬二千六十梱이다

仁川在米減少

【仁川】客月三十日付現在 仁川三銀行의 穀物在庫數는 前週에 比하면 合格米는 一九一、一三叺의 減少를 示하고 無檢査米는 三四〇叺의 增加를 示하엿스며 그外 五叺 正租 四三三二叺 大豆 一、七八〇叺인데 銀行在庫品을 種別하면 左와 如하다

▲玄米 四斗入 八一、〇一三叺 五斗入 一、五九六叺(日本米) 一、四九八叺 ▲正租 叺入 四五、〇三二叺 俵入 一〇、七九一俵 ▲大豆 叺斗入 一〇、三一八叺 ▲小豆 四斗入 二四六叺 ▲黍 七斗入 七〇四袋 ▲蕎麥 五斗入 五七叺 七斗入 一〇〇袋 十斗入 一二八袋 ▲綠豆 五斗入 二五〇叺 七斗入 五九〇袋 ▲外國米 七斗入 七、五八六袋

朝煙引繼人員

近日中에 決定

煙草配給直營에 伴한 朝鮮煙草元賣捌會社에서 專賣局에 引繼할 人員에 對하야는 目下 專賣局에서 詮衡中이다 近日中에 決定할 터인데 現在의 社員 七百餘名은 幹部級의 一部를 除하고 全部 引繼할 모양이라 한다

東京公債市況

【東京電】東京國債市場 一日正午氣配

甲號五分利	九六、三〇
第三回五分利	九四、八〇
二回四分利	八〇、四〇
一回四分利	八〇、四〇
佛貨四分利	一四七、三五
二十二年分	九九、〇〇
十七年分	—
十八年分	—
二十八年分	九七、七〇

市勢와 商況(一日)

株式 底意頑强

前場堅調

休前下放이더니 今朝 阪寄의 大體不變을 入하야 東新 百十九圓三十錢 六十錢低로 寄한

後場昂騰

阪地의 高騰을 入하야 東新 百二十圓八十錢으로 一圓丁大高로 寄하야 東新은 百二十一圓五十錢 引一本 京取는 寄不成 十二圓六十錢 步 七十錢大引

後場諸株步調

▲東新 [illegible]

頑强한 商勢

低金利의 威力

綿絲生絲의 低調스릴 株의 底拔的暴落 減俸實施等 周圍環境이 不良한 際에 前日下旬貿易의 惡化로 買氣가 一時頓挫되엿더니 今朝에 至하야 初付는 幾分軟調를 呈하엿스나 前場引際무려는 다시 硬化하야 頗히 頑强한 商勢를 示하는 바 諸種의 惡材에 無關하고 이 가티 頑强한 商勢를 支持하는 證券界 唯一의 强材料가 低金利의 威力으로 압

株-界-六-感

◇減俸決定을 覺하고 政局安定을 買하더니 減俸時勢一巡後는 또 다시 小浮動商勢

◇五月下旬貿易의 入超增이 一時 反響하는 듯하더니 時勢가 다시 硬化하는 것을 보면 依然 弱材에 鈍感

◇低金利가 繼續되는 限은 多少의 弱材料가 出現할지라도 反響키 어려울 모양

◇貿易이 幾分 不良하여진 나 할지라도 上半期를 通하여는 大體로 順調이고 金融緩慢의 永續性 等

◇大體로 前年에 比하야 買方이 有利한 便인즉 現實의 惡材를 망하고 향부도 賣키도 어려운 입

◇融緩漫狀態가 持續되는 限은 賣妙味가 少할 것이다 그러나 周圍가 好轉키 前에는 上伸도 至難할 것인즉 此 邊에서 小浮動을 繼續할 外에 無할 것이라 한다

期米 軟弱裡 發會

東西市場의 新甫發會平穩

東京大阪의 新甫發會는 小高한 外는 大體不變이오 短期도 亦然하얏스며 各當地의 東新도 休前入超新加의 反轉으로 低移하얏스나 紛米賣物이 大部分 整理된 關係로 下押는 餘地가 적다 低合에는 買物이 出하는 傾向이오 種種의 惡材도 反應이 無하야 稍히 下押氣味를 示하다가는 旋回强調로 推移하는 바 低金利를 除하면 周圍가 總히 惡氣流에 包圍된 狀態인즉 當分 可望할 上伸도 期待키 難할 것으로 보는 便이 多하다

無風의 受渡況

今朝는 京取渡田道 六十受 立山 四十으로 代引 九百三十枚 東新은 新田渡 二十 田道等受 四十으로 代引 五百三十으로 代引 六十枚 其他는 大新이 日步 二日分 三十八錢으로 一錢 引下된 外에 不變이엿다

要하면 集散地의 在米가 比較的 薄하다고 硬하는 主張하나 昨年度 産米의 實收高로 보아 農民의 手中에 잇지 아니하면 低 商勢 浸食에 積이 잇슬 것을 豫想할 수 잇스며 又는 今回 新體으로 因한 不良氣의 影響이 此에 만 止하지 아니할 것임으로 一時的 實氣의 繁榮에 當動하는 것은 注意할 일이라고 云云

前場小戾

今朝 阪地는 十八圓〇一錢인 價이 上鞘로 新甫八限이 發會되고 當地新甫는 中限에 比하야 二十丁上鞘인 十五圓四十錢에 發會된 後 阪地 七圓九十九錢으로 小弛함에도 依然 下澁狀態를 呈하야 阪地 八圓〇四錢의 小高를 伴하고 五十錢으로 跳返하더니 其後는 反히 頭重伸惱하야 阪地 十八九錢으로 綿騰함에도 依然 五十錢을 維持하다가 場을 止하엿다

後場軟調

大阪小高를 入하나 十五圓五十錢인 前止同價로 始하야 細刻이다가 六節 四十八錢으로 結局 四十六錢에 止하엿다

買氣俄然潑剌

發會初日에

新甫八限이 發會된 初日에 買氣俄然潑剌하야 動輒反撥의 形勢를 示한다 그러나 그 原因에 잇서서는 可히 擧할 만한 强材도 업시 本天災期에 入하는 八限의 將來를 軟弱視할 수 업다는 것과 又는 客月에 崩落을 告한 後인만큼 反動的 買氣가 擡頭하는 모양인바 實로 此等의 買人氣가 那時에 外지 頑張하게 될지 一考를 要할 것이라 한다

米-豆-談

◇今朝의 場面은 커다란 活氣를 呈한다 그러나 特筆할 强材는 업스니 一時的 實用?

◇客月末에 瓦落를 示하엿스니 此에 對한 反動은 아닐가

◇그리고 八限은 本天災期를 演出할 限月인만치 賣方이 警戒할 것도 事實

◇그러나 春米의 雨量이 潤澤하엿슴으로 植付後의 發育은 良好라는 弱材

◇挽近 正米는 比較的 下澁狀態를 呈하나 高價를 期待하는 農家의 手持는 果當 賣放하고야 말터이지

◇賣米의 事情과 目下의 天氣는 弱材를 造成할 뿐이니 참아리모도리 賣가 得意?

天災期到來와 賣警戒의 光景

今朝 八月限은 十五圓四十錢인 二十丁上鞘로 新甫發會한 後 依然 와히 幾分 頑强의 味를 添하는바 컨대 八限은 本天災期에 入하는 限月인만치 今後 一晴一雨의 天氣如何로써 勝負를 決하게 될 것으로 未然의 天候를 警戒하야 賣方은 警戒自重하는 모양이다 然而 今春以來의 天候는 殆히 順調로 雨量이 潤澤함으로는 植付期에 至하기 外지는 水不足의 懸念이 毫無할 것임으로 足히 賣方成算할 수 잇스나 그러나 俄變褻改하는 天氣의 일일뿐더러 天災期란 文字 그것을 聯想케 하는 同時에 弱氣의 大方針을 가지고도 腰入的 行動으로 容易히 賣方針을 確하지 못하는 光景이다 果何如?

京城延

前場底堅

休前不來로 發會를 告한 當市場은 今朝 阪仁新甫의 不勢로 寄會를 入하야 七中은 十五圓十錢인 前會價보다 六丁低 七末

正米 大體軟調

◇京城下向=休日後입으로 二日中의 出廻 相當히 잇고 期延의 不勢發會로 人氣不振하야 氣配 十錢方低인 三마ー크 三等 十四圓八十錢 四等 十四圓四十錢 假量을 唱하엿다

◇仁川下放=出廻閑閑잇고 定期의 不勢發會와 奧地의 軟化說로 氣配 軟弱 時勢 十五錢方下落되야 三等 十五圓三十錢 四等 十五圓十錢 無格 十四圓丁 等外 十三圓二十錢 假量으로 二千三百五十叺의 去來가 잇섯다

後場微波

大阪小高를 移하야 高寄하야 十五圓三十六錢을 最高 二回丁高를 寄하야 二十四錢 外지 下押하엿다가 結局 二十八錢에 散會하엿다

	寄付	大引	高價	低價
一回 六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回 六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回 六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回 六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回 六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回 六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算定	六中 [illegible]	六末 [illegible]	七中 [illegible]	七末 [illegible]

◇群山保勢=各地不味이나 入津薄함과 小口入注로 手合賣가 잇서 買物漸少하야 氣配堅하고 休日로 精米側도 買添하야 丸七 三等 十四圓九十錢 假量을 唱하엿다

◇大邱小低=天候의 關係로 出廻閑閑잇고 各地新甫의 上鞘發想도 遊鞘로 一部 手持側의 賣手 低價指値에 三等 十五圓〇五錢 神力 十四圓七十錢 假量唱이엿다

◇釜山小軟=各地消算市場의 遊鞘로 人氣不振하야 目前 産地의 嫌氣賣出豫想濃厚로 買手는 當分 形勢를 觀望하는 態度로 休日後임으로 精米側 小潑側의 必要買가 잇슬 뿐으로 氣配漸低하나 手持側 依然 奧地高를 後援으로 賣澁하야 結局 五十錢方低인 變南發見

朝鮮炭의 販賣普及에 注力

朝鮮炭業株式會社는 今回 鳳泉炭坑會社의 姉妹會社로 되는 同時에 鳳城炭坑會社直營五炭販賣權利義務一切를 繼承하야 成興炭外 樂林, 鳳儀, 鳳山炭等 代表的 朝鮮炭의 普及販賣에 主力을 注하기로 되엿다

朝運從業員의 陳情에 對하야

加藤鮮銀總裁談

朝運從業員과 會見後 加藤鮮銀總裁는 語하되 合同後에 冗員의 生活을 念慮한다는 것은 此際에 잇는 일이다 從業員代表의 말에 對하야는 同情으로 對힘 밋치는 곳 外지 努力함은 當然하다고 生覺한다

株式(一日)

京城短期

[illegible]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現株前場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京取短期賣買高

二三三〇〇 [illegible]

大阪短期步調

[illegible]

京取主要株取組

[illegible]

代引算定日步

[illegible]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綿花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

滿洲各地商況

[illegible]

東京取引所株

[illegible]

鐘平鈔時勢

[illegible]

大連鈔時勢

[illegible]

期米(一日)

仁川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取組高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各地期米

[illegible]

仁取各限合後

[illegible]

大阪市中在米

[illegible]

京城手形交換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日本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海外經濟

[illegible]

고무原料市勢

[illegible]

延取(一日)

京城

[illegible]

群山

[illegible]

大邱

[illegible]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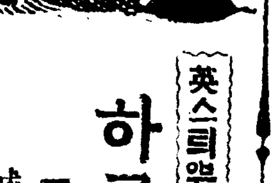
[illegible]

仁川大豆

[illegible]

京城綿糸布時勢

[illegible]



하로ㅅ밤 (12)

英스틔븐슨原作 異河潤譯 城北學人畫

『그건 전쟁에서도 흔히 잇는 일도 이지오 령감』

『전쟁은 명예(名譽)의 마당이외다』

로인은 자랑스럽게 대답을 하엿다

『전쟁에서는 사람이 자긔의 일명(一命)을 걸어 놋는 것이라오 그는 그나라 임금의 일홈으로 주(主)의 일홈으로 또 천자와 청사의 일홈으로 싸호는 것이란 말이요』

『가령』

하고 『예용』은 말을 쓰내엿다

『내가 실상 도적이라고 하드라도 역시 나는 일명을 걸고서 우세(優勢)한 자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닌던지요』

『그것은 리익을 위하야 서이고 명예를 위한 것은 아니오』

『리익이라고요』

『예용』은 억개를 한번 웃숙하고 말을 바닷다

『리익 불상한 사람이 저녁밥이 먹고 십허 그것을 구합니다 전장(戰場)에서도 병사는 그와 갓흔 놈을 하고 잇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귀에 익숙한 저 징발(徵發)이라는 것은 무엇입닛가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리익이 아니라고 하드라도 꽤 앗기는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손실입니다 군인들은 불을 해놋코 그 엽헤 둘너안저 술을 먹음니다 그러나 시민(市民)들은 그 군인들에게 술이며 나무를 사주기 위하야 손톱이 달아싸질 지경입니다 나는 시골서 선량한 농민들이 나무에 목을 매단 것을 만히 보앗습니다 사실 한 나무에 설흔 사람이나 매달녀서 그 정경이야 말로 불상하기 짝이 업섯습니다 그래서 내가 엇던 사람에게 웨 이러케 보다 목을 매달게 되엇느냐고 물은즉 그들이 군인들 마음에 흡족할 만한 돈을 거더 모을 수가 업섯든 까닭이라고 하겟지요』

『그런 것은 전쟁에서는 필요한 일이란 말이오 천하에 태여난 자는 언제나 그것을 감내할 수 밧게 업지오 대장(隊長)들로서 왜 가혹한 짓을 한 자도 잇는 것은 사실이오 어느 계급에도 련민(憐憫)이라는 것을 쉽게 감하지 안는 사람이 잇는 것이외다 사실상 군역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산적(山賊)과 다름업는 자가 얼마든지 잇는 것이 낫겟지요』

『그런치요』

시인은 말하는 것이엇다

『병사와 산적과를 구별할 수는 업지요 그래서 결국은 도적이라는 것도 남몰래 신종한 방법을 취하는 고립한 산적이 아닌 것이나 뉘 사람들의 장을 방해하지 안코서도 양의 고기 두점쯤은 훔칠 수 잇습니다 그러면 농부들이 다소 불평을 말합니다 그래도 그 남어지 것으로 넉넉히 그들은 배를 불릴 수 잇습니다 당신네 군인들은 잘난 듯이 나발을 불면서 와서는 양을 로채 빼서 가바리고 거기다가 농부를 불상하게도 막 두다립니다 나는 나발 갓흔 건 불지 안흡니다 나는 그저 청명업는 평민에 불과합니다 나는 악한이오 또 개와도 다름업는 부랑인이올시다 목을 매다는 것도 내게는 너무나 과남한 일임니다…… 진정으로 그럿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에게 당신네와 나와 어느 편이 조흔가 물어보십시요 치운 밤에 자지 아니하고 우리들 중에 누구를 귀주하는가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두 사람을 잘 보시라 말이오』

령수는 [illegible]

『나는 나희를 먹고 힘이 세고 사람들의 존경을 밧고 잇소 가령 내가 래일 이 집에서 죽거난다고 하면 몃백 녕이 쌀거나를 보호하 줄 것이란 말이요 만일에 내가 호자 잇고 십다는 핑계이라도 부한다면 불상하게도 그 사람들은 일부러 자긔 집을 나와서 사아이들은 데라고 걱거리에서 밤을 새이기도 할 것이오 그러하지만 당신은 밤에 잠도 못자고 집도 엇사 방향하며 또 로방에 쓰러진죽은 계집 안테서 돈ㅅ 빼앗섯구려 나는 엇던 사람이든지 엇던 놈이든지 두려워하지 안소 당신은 말한 마듸에 벌벌 썰며 안색을 변하엿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내 집에 잇스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족히 기다리고 잇소이다 또 만일 국왕의 쎄다시 나를 불너내시고 십흐시면 권장에도 나갈 작정으로 잇소이다 당신은 교수대에 가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희망도 업고 명예도 업시 흉측하게 죽사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이 두 사람에게 아모 구별도 업다고 하시는가요』

『그거야 천양지차지오』

『예용』은 동의하엿다

『그러나 만일 내가 『브릐ー즈두ー』의 령주로 나고 령감이 빈한한 학자 『엔탕시스·예용』으로 태어나셧다 하면 그 차이가 얼마간이나마 적엇슬 것인가요 그러케 되엇드면 내가 이 화로에 무릅을 쏘이고 잇지 안엇슬가요 그리고 령감은 군속에서 돈을 찻고 게시지 안엇슬던지요 내가 군인이 되고 령감이 도적이 되섯지나 안엇슬가요』

『도적이』

로인은 부르지젓다

『내가 도적이 되엿다니 만일 당신이 자긔가 엇던 말을 하엿는지를 알면 후회하실 것이외다』